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Jeonju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
Localization for the Safe Society

2020. 9. 4. (금) 09:00~18:30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You Tube LIVE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

2020. 9. 4. (금) 09:00~18:30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 YouTube LIVE

목 차

■ 진행 프로그램	3
■ 주요인사	4
■ 개최 취지문	11

CHAPTER 01 – 개막식

■ 개회사 오창환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15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17
■ 축 사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18
■ 축 사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19

CHAPTER 2 – 기조연설

■ 코로나 이후의 기로에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23
------------------------------	----

CHAPTER 3 – 세션 1 〈사회적 금융—시민자산화의 적용 방안〉

■ 지역 투자는 왜 중요한가 : 북미 사례로 살펴본 교훈 마이클 슈만	33
■ 서울 강서지역 시민자산화 사례 사람과 공간 나상윤	46
■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 모델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57
■ 자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책자금 활용 밴드파운데이션 김선영	77
■ 자산화 프로세스와 사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지영	85

CHAPTER 4 – 세션 2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 체계 만들기〉

■ 건강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위한 진보적 정책 데이비드 홀름그렌	104
■ 도시농업으로 행복도시 만들기 서울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은수	116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홍명희	124

CHAPTER 5 – 세션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

■ 프레스턴, 영국 및 해외의 Community Wealth 축적 사례 매튜 브라운	148
■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삼육대학교 정선철	161
■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사)어반베이스캠프 정수경	171

진행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주제	참여인사	
08:50~09:00	10'	등록			
09:00~09:30	30'	개막식			
09:30~10:00	30'	기조연설	코로나 이후의 갈림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	
10:00~10:10	10'	휴식			
10:10~12:10	120'	세션 1	사회적 금융 - 시민자산화의 적용 방안	좌장 발제 나상윤 이경호 김선영 성지영	전북대 연구교수 미국 Neighborhood Associates Corporation 디렉터 사람과공간 이사장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밴드파운데이션 국장 서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2:10~14:00	110'	점심			
14:00~16:00	120'	세션 2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체계 만들기	좌장 발제 패널	한동승 전주대 교수 데이비드 홀름그렌 호주 영속농업 디자이너 이은수 서울 노원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홍명희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사무국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정 서쪽숲에네발요정이내린카페 대표 소희주 진주 우리먹거리협동조합 대표 김중기 전북대 교수 김아영 사)소비자의 정원 회장
16:00~16:10	10'	휴식			
16:10~18:10	120'	세션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	좌장 발제 패널	정건화 한신대 교수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의회 의장 정선철 삼육대 교수 정수경 어반베이스캠프 대표 김정후 런던대학교 UCL 펠로우 교수 윤병훈 LH 토지주택연구원 허문경 전주대 연구교수
18:10~18:30	20'	폐막식			

주요인사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 스웨덴

[기조연설]

- 로컬퓨처스(Local Futures)의 설립자이자 대표
- 전 세계 로컬 운동 활동의 선구자, 바른생활상(대안노벨상) 수상
- 주요저서 :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Ancient Futures : Learning from Ladakh)’ 등 다수



마이클 슈만
(Michael H. Shuman) / 미국

[제1세션 발제]

- 미국의 경제학자, 변호사, 작가
- Neighborhood Associates Corporation의 지역경제 프로그램 디렉터, 뉴욕시 바드 경영대학교 강사
- 주요저서 : ‘The Small Mart Revolution : How Local Business Are Beating the Global Competition(2006)’ 외 다수



데이비드 홀름그렌
(David Holmgren) / 호주

[제2세션 발제]

- 호주의 환경디자이너, 생태교육자, 작가
- 빌 모리슨과 함께 지속농업(퍼마컬처, permaculture) 개념의 창시자
- 주요저서 : ‘Permaculture One(1978)’



매튜 브라운
(Matthew Brown) / 영국

[제3세션 발제]

- 영국 서북부 프레스턴시 시의회 의장
- 시차원의 경제전략인 ‘프레스턴 모델’ 추진
- 영국 노동당 지역자산형성위원회 고문

국내주요인사



김 승 수
전주시장

민선 7기 전주시장으로 재임중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람, 문화, 생태에 주목하며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 번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구도심 마을 재생과 전주푸드플랜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공동대표 외에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 2018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장직을 맡으며, 다른 지방도시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 동 화
전주시의회 의장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임중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라는 기치아래,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구현과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맡아 다른 시·군의회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며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견고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매사진선(每事盡善)의 마음가짐으로 전주 발전에 밑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정 원 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 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로 나아가고자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과 기술을 모든 주민과 공유하는 도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며 참여하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이자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가 있다.

국내세션인사



나 상 윤 이사장
[1세션 발제]

2020년 5월 5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공공부문 산별노조에서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노동조합과 마을공동체의 융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3월 강서양천민중의집을 설립해서 공간을 매개로 지역차원의 민민,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교통, 노동인권,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 강서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시민자산화 실현 목적으로 지난해 ‘로컬의 오늘’이라는 저서를 발간했으며 공유자산 매입방식으로 공동체공간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 호 변호사
[1세션 발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영역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함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함은 개별 기업에 발생하는 이슈 대응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들과 더불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직도 맡고 있다.



김 선 영 사무국장
[1세션 발제]

재단법인 밴드의 사무국장으로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사회적금융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함께일하는재단 기획팀장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에서 민-민, 민-관 협력 사업 및 기업사회공헌 사업을 주로 담당해왔다. 재단법인 밴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및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금융을 기획·개발·운영하고 있다.



성 지 영
[1세션 발제]

충남대학교 환경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생태조경학 석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 조경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을 거쳐 넥서스환경디자인 연구원, 방림이엘씨(주), (주)효산엔지니어링에서 지역활성화 계획 및 도시 환경, 조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무 업무를 해왔다. 현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력소 및 자산화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세션인사



이 은 수 대표
[2세션 발제]

시민단체인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를 설립해 도심속에 꽃과 나무, 채소를 가꾸 도시에 생명을 심는 도시농업 운동을 하고 있다. 빗물활용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고, 노원구 천수텃밭에서 생태, 환경,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도시농부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국가물정책 기본이 된 물기본법 공청회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커먼즈국제대회에 초청받아 공유경제와 도시농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홍 명 희 사무국장
[2세션 발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직함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으로 농촌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농민 조직이 건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농민단체 활동가이다. 가톨릭농민회에서 지향하는 생명농업의 실천과 생명공동체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들이 생명밥상 차림과 환경살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 급식운동 및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반gmo전북도민행동, 삼락농정위원회” 등의 위원 활동을 통하여 우리 먹거리가 귀하게 여겨지고 지속적인 농촌 유지를 위한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다.



황 영 모 박사
[2세션 토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 중앙계획지원단 위원, 한국농촌사회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박 현 정 대표
[2세션 토론]

지금은 21살, 18살이 된 아이들이 13년 전 도시의 경쟁과 진학보다는 자연과 잘 노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작은 시골(완주군고산면)에 정착해 살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역학교가 행복해지는 데 힘을 보탰고 이제는 지역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을살이가 되기 위한 터전 닦는 일에 관심이 있다. 지역에서 이웃들과 의·식·주·예술을 만들고 향유하고 나누는 일을 꿈도 꾸고 실천도 해가며 사는 시골마을 카페마담이다.



소 희 주 대표
[2세션 토론]

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국장, 진주시 여성농민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들꽃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직을 맡았다. 현재는 진주시여성농민회 부회장이면서 식생활교육 진주네트워크 고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주지역의 먹거리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 형성과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세션인사



정 건 화 교수
[3세션 좌장]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1993년부터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서울연구원 이사, 50플러스 재단 이사를 지냈고 서울시 <전환도시 서울 2019 국제컨퍼런스> 총감독을 맡았다. 현재 (재)희망제작소 이사,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 과정사상연구소연구위원(research fellow), 한국 생태문명회의 공동디렉터(Eco.Civ. Korea Director), 서울시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자문관이다.

지역협력,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 베이버부머의 고령화와 사회공헌, 지역 행복 지표,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에 관심갖고 시민사회- 공공부분(지방정부)-대학간 협력을 위한 크고 작은 실험과 연구, 정책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정 선 철 교수
[3세션 발제]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형사회적기업 (주)사회설계연구소 대표이사,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을 거쳐 삼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도시와 도시재생, 행복정책 등 이론과 현장을 넘나드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인간~사회~자연의 올바른 관계 재생에 관심이 많다. 경기도의회 환경분야 전문가, (재)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기획자문위원,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정 후 교수
[3세션 토론]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배스대학(University of Bath) 건축과 박사과정을 거쳐 런던정경대학(LSE) 사회학과에서 런던의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작가정신이 빛나는 건축을 만나다』(2005, 서울포럼), 『유럽건축 뒤집어보기』(2007, 효형출판), 『유럽의 발견』(2010, 동녘) 등이 있고, '제32회 경기건축대전 대상' 과 현실비평연구소 주최 '제2회 비평상 공모전 건축부문 1등' 을 수상했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서울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디자인 정책과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윤 병 훈 위원
[3세션 토론]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연구교수/시간강사,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공간연구실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도시재생, 협력체계(거버넌스), 산업재생, 공간분석 분야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재생위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주택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20년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도시재생 현장의 경험을 담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창조적 도시재생시리즈)』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오 창 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 문 경
기획운영위원장

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전주대학교 연구교수로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이다. 국무총리직속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현장의 사례를 담론의 장(場)에 담아내고 다시 현장으로 환원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를 전주로 안내한 이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고 은 하
위원

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손 현 주
위원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미래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와이대학 정치학과에서 미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의 대안미래와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연구하고 있다. 초연결성에 기반한 데이터사회에서 인간, 가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운동(New Economy Movement)'에 관심이 있으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손 재 민
위원

경제학박사이면서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정수경
위원

도시가 즐거워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주로 도시재생, 사회혁신, 장소성을 연구하고 있다. 부업으로는 도시를 고민하는 소규모기업, 프리랜서, 개인, 비영리기업 등을 위한 공유공간인 어반베이스캠프를 운영 중이다. 공유공간에서의 협업을 통해 전주시가 보다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동승
위원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이면서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장 및 평생교육원장, 지역혁신센터 센터장, 전북 ICT 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한국 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과 콘텐츠' 논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고등교육 방법론을 정리하고 한국 대학교육이 나갈 길을 제시하여 '2017 올해의 논문상'에 선정되는 등, 인문학적 가치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지식 전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김중기
위원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부교수로 재임 중이며,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으로서 전주시의 지역화된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만들기의 정책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일본 큐슈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전라북도청 농정분야 등에서 15년 가까이 행정 실무(전문위원)를 담당, 지방농정 기획 및 실행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도청 재직 중에 마을만들기 및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더불어함께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금까지 지역의 사회적 연대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김아영
위원

이웃과 자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천가이자 연구자다. 전주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만들어 가는 현장에서 활동했다. 지금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에서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의 연구교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전략과 거버넌스, 인력개발 등을 주제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취지문

전주시는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로컬퓨처스 Local Futures 및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전주시에는 6번째이자 로컬퓨처스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25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회의의 부제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로 정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적 금융, 지역의 먹거리 순환체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기조연설에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로컬퓨처스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나고 지역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분명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며 보다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지역화를 위한 전략의 보완을 강조할 것입니다. 1세션에서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변호사인 마이클 슈만 Michael H. Shuman은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투자 개혁 사례를 통해 한국의 지역자산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2세션에서 호주의 데이비드 홀름그렌 David Holmgren 은 자원고갈,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영향에 대응하는 식량체계의 재지역화에 대해 자신이 창시하고 지난 40년 동안 적용해온 퍼머컬처 permaculture 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3세션에서는 매튜 브라운 Matthew Brown 영국 프레스턴시 시의회 의장이 '프레스턴 모델'로 널리 알려진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의 과정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에 따른 국제 화상 컨퍼런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 정책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시대 시민행복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CHAPTER 1

개막식
OPENING SESSION

- 개회사 | 오창환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 환영사 | 김승수 전주시장
- 축 사 |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 축 사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회사



오 창 환

조직위원회 위원장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 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전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역화」을 부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역화’를 포함한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지난 1회~5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의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행복의 경제학 3세션의 주제이기도 했던 공동체 화폐에 대한 논의가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이어져 올해 11월 전주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도 전 세계에 전파할 만한 좀 더 구체적인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역화에서 찾아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되어왔던 세계화는 전세계에 바이러스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83만 명이 사망하고 2,450만 명이 감염되어 고통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웃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막대한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는 바이러스의 전파 뿐 아니라 부의 집중에 의한 빈부 격차의 극대화와 온난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며 인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는 식량, 에너지, 자본,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이미 많은 후진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 곧 다가올 식량, 에너지, 자본 분야의 국제적 위기는 지역 독립성을 상실한 선진국 주민들의 삶도 심각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의 모든 지역이 위협해져가는 상황에서 세계의 각 지역이 전 지구적인 위기로부터 자신들의 지역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도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지만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환경, 식량, 에너지, 자본 위기에 대해 안전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 현재는 더 저렴한 돈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음식을 먹는 것은 편리하고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환경재앙으로 전 세계 곡창지대가 파괴될 경우 독립적 먹거리 시스템이 붕괴된 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찾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를 늦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다양한 지역 규모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부의 유출을 줄이고 우리 이웃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역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 마이클 슈만 교수, 데이비드 홀름그렌 교수, 매튜 브라운 의장님을 모시고 전 세계의 지역화를 바탕으로 한 행복의 경제학의 기본 방향과 사회적 금융-지역자산화의 적용방안,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체계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정책에 대해 주제 강연과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세션에서는 시민자산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2세션에서는 지역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연계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됩니다. 3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나서 악수를 나누며 직접 인사나누지 못함이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 국제회의를 유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형식의 국제회의가 오히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헬레나 호지 대표님과 로컬퓨처스 사무국 관련자 분들 그리고 전주시장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님과 관련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국제회의 준비를 위해 8차례의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단체 및 전주시민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모두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지난 5년간 전주시는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명제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만큼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생태계를 보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 공동체의 연대와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공동체의 연대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세계 모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세계화의 물결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상황에 위축된 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지역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과 불신이 아닌 협력과 연대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지역과 민간, 외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해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우선 되고, 인간적인 규모의 경제활동에서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호혜와 연대를 통해 지역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역화’라는 부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이 준비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꾸려집니다. 모든 국가와 지역의 협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지역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활기차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사회적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 큰 교류와 연대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화상으로 참여해주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대표님, 마이클 슈만 디렉터님, 데이비드 홀름그렘 교수님,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 의장님 그리고 국내 전문가 패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축하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멋과 풍류의 도시 이곳 전주에서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는 표면적으로나마 막대한 부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를 발전과 성장의 상징으로 신봉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흐름은 상대적 박탈감과 인간관계의 단절 등 정신적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공동체의 해체와 배금주의의 횡행으로 마음의 병을 얻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부작용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요즘, 코로나 19의 확산은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뿌리 깊은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탐구하고 공동체간 연대를 중시하는 행복의 경제학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확장과 개방보다는 지역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끝없는 경쟁 대신 상생과 공존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때입니다.

오늘 회의가 세계적으로 행복한 경제학을 널리 알리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축하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성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의 개최를 협의회 47개 회원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매년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실현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논하는 이번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저희 협의회 또한 2013년 출범 이후부터 지방정부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좋은 대안들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협의회도 그 노력에 함께 하며 ‘행복의 경제학’이 지역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2

기조연설
KEYNOTE SPEECH

■ 코로나 이후의 기로에서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ena Norberg-Hodge

코로나 이후의 기로에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Hellena Norberg-Hodge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저는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 김고운님으로부터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는 “우리 가족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전환이라는 시급한 과업을 상징하는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비GMO와 토종씨앗을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 주고 미래를 위한 희망 심기에 동참을 독려하고 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제 친구처럼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일을 보는 것은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시드니, 런던에서 라다크에 이르기까지 작은 농가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유례없는 수요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음식점은 생산자와 소비자 만나는 허브가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성행했던 ‘승리의 텃밭(Victory Garden)’¹⁾ 이후 처음으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 자립을 위한 실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의 중앙화된 제도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 스스로 조직된 지원단체들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식료품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들의 생활을 지원했습니다.²⁾ 동시에 주민들이 balconi에서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다보며 서로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은 온 동네를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슈퍼마켓의 물건이동이 동이 나고 여러 나라에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술용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세계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모두의 눈앞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조차 각국 정부가 중요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국제교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문제점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거대한 세계화를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운동이 진정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방대한 수준으로, 더욱 전인적으로 세계경제의 폐단을 인식해야 하고 이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역화의 비전이라는 명확히 표현된 대안 또한 있어야 합니다.

지역화는 우리의 기본적인 니즈가 다뤄지는 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좁혀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거리를 좁힘으로써 우리는 변동성이 강하고, 자본집약적이며,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계경제에서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문화와 생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지역 중심, 공간 중심의 경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화된 경제는 더 투명하고 해당 지역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하고, 재생성을 갖습니다.

1) <https://www.localfutures.org/covid-19/#1585861956304-f44ed519-4eac>

2) 부각된 몇 가지 사례 : 영국 - <https://covidmutualaid.org/>, 미국 - <https://www.usacovidmutualaid.org/>, 호주 - <https://viralkindness.org.au/>, 발리 - <http://idepfoundation.org/en/what-we-do/idep-news/468-covid-19-emergency-response-in-bali-rural-area>

지역화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생태학적 족적을 줄이고, 사회적·심리적 웰빙이 좌우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를 재확립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인 방향입니다. 따라서 ‘해법의 승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접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체계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위기에 휩싸인 전 세계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라는 전인적인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청사진이 아닙니다. 기존의 빛바랜 사상을 대체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 또한 아닙니다. 지역화는 오히려 국가, 지역,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는 세계경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한 꿈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대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반시민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를 예년과 같이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와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열리고 있는 컨퍼런스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풀뿌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지역화를 향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다지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기로서

지난 몇 십 년간 지역화의 실현을 위한 풀뿌리 차원에서의 지지가 급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자본주의의 알박한 민낯을 꿰뚫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과, 자연과의 유대가 행복의 진정한 마르지 않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농산물 직판장, 지역사회 협동조합, 지역 사업체 연대, 재생농업 프로젝트, 지역 기반의 교육제도, 자연과의 조화 중심의 치료,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계를 재확립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있는 현상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일 미래를 위해 이미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 리더들이 아직도 이러한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치밀한 공공정책을 입안해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이라는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공식에 목매고 있고 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과 은행을 위해 거침없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규모 생산자들과 지역 중심의 업체들은 갈 곳은 잃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들은 민주주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현재의 행태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국제교역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인프라 건설에 치중하고 공적 보조금과 세금을 쏟아 붓고 이에 유리한 규제 도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통신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기술 시스템에 공공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동시에 부와 권

력이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낳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서 중국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세계화와 기술 중심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충하는 핑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는 이러한 기업 중심의 이해관계 시각에서 보면 황재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미래를 외치며 유례없는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 기반의 견제와 균형은 내팽개치고 감시와 정보 수집이라는 전례 없는 시스템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용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영향이나 원격학습이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금 널리 통용되고 있는 비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스크린 타임과 SNS 사용 시간의 증가와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중독률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원격시스템이 대세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웰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³⁾
- 아마존,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이미 탈세와 중소기업 파괴를 저지르고, 기그(gig)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저임금의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발달이 고용 안정성에 어떤 폐해를 남기게 될까요? 로봇이 농사에서 노인돌봄, 교육, 건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⁴⁾⁵⁾
- 페이스북과 구글이 이미 우리에게 관한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면 개인정보와 사회의 정보가 더욱 상품화되고 사유화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⁶⁾
- 애초에 규제 없는 시장과 관련된 환원적 사유로 인해 환경위기가 발생했다면 그와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 진정한 생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동시에 기술 중심의 경제발전 시스템의 단순한 규모만으로도 구조적으로 표준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산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하향식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통해 문화가 균일화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유니레버, 네슬레, 펄스콜라와 같은 독점을 일삼는 글로벌 기업식 농업 기업들은 전 세계 국가들에 획일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장식 농장에서 방대한 규모로 화학품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단일재배가 유리한, 그들만큼 독점을 일삼는 슈퍼마켓 체인이 유리한 시장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이들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균일화된 입맛과 구매습관을 만들어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이 더욱 “효과”를 보고 이윤을 창출해내도록 하는 것이죠.

3) Boers E, Afzali MH, Newton N, Conrod P. 스크린 타임과 청소년 우울증 사이의 상관관계(Association of Screen Time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JAMA Pediatr. 2019;173(9):853-859. doi:10.1001/jamapediatrics.2019.1759

4) 아마존의 전성기: 두 배의 이윤, 연방소득세 0 달러(Amazon in Its Prime: Doubles Profits, Pays \$0 in Federal Income Taxes), ITEP. URL: <https://itep.org/amazon-in-its-prime-doubles-profits-pays-0-in-federal-income-taxes/>

5) <https://soundcloud.com/projectsyndicate/our-digital-no-touch-future-marietjeschaake>

6) Pariser E, “온라인 필터 버블을 주의하라” (“Beware Online Filter Bubbles”), TED 2011. https://www.ted.com/talks/eli_pariser_beware_online_filter_bubbles/transcript

한편 자유무역 협정 덕분에 글로벌 제조기업들도 가장 값싼 노동력, 가장 낮은 세금, 가장 환경 기준이 낮은 곳으로 활동영역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고 안정적이고 단합된 지역사회가 점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방면에서 세계화된 경제모델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제모델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나 브뤼셀의 고층건물에 앉아 계시는 지체 높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고문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들은 받지 않은 채 보호막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은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에 “낙수(trickle-down)” 경제, “비교우위”, GDP 성장을 통한 “발전”이라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동화 속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파괴가 가속화되고 줄어드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영국 재무부의 고위 자문위원인 팀 루닝(Tim Leunig)은 농업이 영국 GDP의 약 1%만을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처럼 모든 식품을 수입하자”라고 주장하며 “영국에서 농사를 완전히 중단하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환원적 사유는 놀라울 정도의 교만을 불러옵니다. 팀 루닝은 이왕 그렇게 말한 김에 차라리 “영국의 모든 농민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들이 우리가 먹을 식품을 재배하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게 나았을 지도 모릅니다.

루닝을 비롯해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세계화론자들의 경제적 사고가 얼마나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계화로 발생하는 엄청난 운송거리, 세계화가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와 자원추출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들은 중앙화된 식량체계가 어떻게 비윤리적이고, 건강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생산방식을 본질적으로 부추기는지 그 근본적인 방식에 무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식량체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범죄 수준의 음식 낭비, 생산자들의 노예와 같은 상황에 무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무지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들 의사결정자들은 우리 사회가 멀리 떨어진 누군지도 모르는 주체에 더욱 의존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화와 생태적 파괴, 사회불안 조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희망

제가 앞서 이미 설명 드렸듯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풀뿌리 운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자연과의 유대 강화를 갈망하게 됨에 따라 아래로부터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화를 추구합니다. 위기의 망령으로 점철된 미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화라는 비전은 인간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심도 있는 경험에서 태동합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율타리를 뛰어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물권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풍요롭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없애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의미 있고, 생산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적 수단을 확보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활기차고, 다양하며, 세대를 아우르고, 서로가 평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주, 영국의 브리스톨, 호주의 바이런베이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위치한 이들과 같은 허브 도시에서 우리는 풀뿌리 운동과 시 단위의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독립언론에서도 지역화의 “분수(trickle up)”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시 정부들은 전주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올해 논의될 주제와 같은 다양한 혁신조치를 통해 지역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도시에 위치한 시장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가 입는 손해가 이미 체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대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로컬 퓨처스(Local Futures)와 저는 운 좋게도 매주 새로운 지역화 프로젝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면 민간의 힘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안활동이 지속적으로 속속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 동기부여, 인내, 강인함 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이러한 운동과 지역사회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더욱 큰 “신경제”네트워크와 국제연대를 형성합니다. 라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 운동이 그 예입니다. 세계 최대 사회운동인 라 비아 캠페시나는 2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소작농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업체들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주권을 지탱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다국적 기업과 은행의 재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기를 요구하는 연대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운동은 좌우로 양분된 정치적 촛극을 초월합니다. 거대 정부나 대기업을 지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운동은 다양한 인간의 가치가 실현되고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자연 속에 문화가 다시 자리잡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운동은 사회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이며, 자원집약적인 주체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대신 지역의 니즈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중심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마케팅하는 사람들과 광고주들이 소비자주의와 끝없는 성장을 부채질 하기 이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욕구가 아니라 진정한 니즈입니다.

결국 이러한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폭넓은 지역화 이니셔티브는 사랑과 유대를 원하는 인간의 유구하고도 선천적인 바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의 목표를 둔 단

일재배의 규모가 비인간적이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꿈을 조종하려 들며, 인류애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규모의 체계를 다시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지역화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재발견합니다. 더욱 안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저는 원예치료, 동물과의 유대, 공동체 텃밭가꾸기 등의 프로젝트에서 우울증이 치유되고 위기에 처한 십 대 청소년들과 재소자들이 교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의 상호의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구축해나가면서 우리 안의 본성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 기쁨, 공감, 미적 감각, 유대를 원하는 없어지지 않는 바람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주변의 땅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땅을 약탈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합치고, 지성을 모아 그 땅을 가꿔나가고 더 넓은 생태계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땅의 생산성을 높이고 영양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화와 다각화, 일자리 증가, 진정한 지속 가능성 사이의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줄여서 단일재배보다 생산 다각화를 진작시키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자연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니즈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고용이 늘어납니다. 농업용 화학물질, 로봇, 산업용 기계 등 획일화된 제품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⁷⁾ 가용한 자원을 더욱 혁신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의료보건과 교육처럼 고도로 중앙화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율과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고 그 결과 개인의 니즈와 역량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업, 자원의 낭비, 빈곤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기업의 세계화가 가져온 불안정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지역화를 한다고 해서 선박을 태평양 한 가운데로 보내 심해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광물을 끌어 담고 탄소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센서로 도배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역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고 100% 도시화된 사람들을 위해 방대한 인프라를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화는 현재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나타날 모든 이들의 삶을 필연적으로 파괴할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 팬데믹, 이주로 인한 위기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화의 길로 나아가면 인류의 절반인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와 심리적인 힘에 의해 도시로 밀려들어가고 빨리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의식(衣食)을 생산하는 지역 생산자와 연결되고,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 서나 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도시화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시작해 세계경제로부터 방치된 농촌 마을과 소도시에 다시 사람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가 남겨준 것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생태계 과정을 복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탄소흡수 기계를 써도 혹은 “정밀”수분 기술을 써도 지구의 이런 능력을 적절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주신 전주 시정부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시리즈로는 26회째인 올해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가 사회정의 운동을 실천하는 분들과 환경

7) <https://ilsr.org/why-care-about-independent-locally-owned-businesses/>

운동가들, 정책 입안자들, 일반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지역화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시는 도시 전체가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실질적인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도시들에 도시가 지역의 회복력과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는 지역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낼 수 있다는 강력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CHAPTER 3

세션 1
사회적 금융-시민자산화의 적용 방안

- 지역 투자는 왜 중요한가 : 북미 사례로 살펴본 교훈 | 마이클 슈만
- 서울 강서지역 시민자산화 사례 | 사람과 공간 나상윤
-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 모델 |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 자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책자금 활용 | 밴드파운데이션 김선영
- 자산화 프로세스와 사례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지영

세션 1

사회적 금융-시민자산화의 적용 방안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 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0:10~10:1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0:12~10:40 (28')	발제 1	지역투자는 왜 중요한가 : 복미 사례로 살펴본 교훈 마이클 슈만 미국 경제학자
10:40~10:55 (15')	발제 2	서울 강서지역 시민자산화 사례 나 상 윤 사람과 공간 이사장
10:55~11:10 (15')	발제 3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모델 이 경 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11:10~11:25 (15')	발제 4	자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책자금 활용 김 선 영 밴드파운데이션 사무국장
11:25~11:40 (15')	발제 5	자산화 프로세스와 사례 성 지 영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1:40~12:10 (30')	자유토론 및 결과공유	자유 토론 및 결과공유

사회 및 좌장 | 손 현 주 전북대 연구교수

지역 투자는 왜 중요한가 : 북미 사례로 살펴본 교훈

마이클 슈만

Michael H. Shuman

세계화의 취약점은 자본입니다. 지구 전역에서, 심지어 미국과 한국처럼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법률과 정책, 관습의 전통이 세계 최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자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해석해보면, 주류 정당들은 보편적인 경제 이론을 포용하고 기업들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기업이 수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핵심으로 여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기업들이 대중보다는 극소수의 글로벌 엘리트만을 위해 기능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부의 창출 원천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글로벌 기업들만이 희소한 투자 자본을 전용하는 것은 지역 기업과 지역 기업이 지탱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자본을 글로벌 기업에서 지역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 미국에서는 이를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자본을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 경제, 환경 및 사회 개선에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SME 및 스타트업 에이전시에 따르면, 한국 기업 350만 개 중 99.9%가 중소기업(SME)입니다.¹⁾ 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의 77.4%가 연간 부가가치의 51.2%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이용 가능한 투자 자본 중 최소 51.2%가 경제의 51.2%를 지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극히 적은 일부만이 SME로 돌아갑니다. 은행과 기타 투자 기관들은 대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처럼 한국의 증권법도 대기업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국가에서 새로운 지역 투자 생태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지방화 및 지방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 속도는 불필요하게 느려질 것입니다.

최근 북미에서 진행된 개발 정책은 지방화 지지자인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종류의 개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북미에서 진행된 지역 투자의 진화 과정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을 고찰할 것입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 모두 지역 투자와 연관성이 있지만, 은행보다는 유가 증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보통 서류로 된 계약의 일종인 유가 증권은 기본적으로 소유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나 주가 인상, 로열티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한선까지의 수익 비율). 미국인들은 주식이나 채권, 상호펀드, 연금기금, 보험기금 같은 유가 증권에 56조5,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²⁾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위기 직전에 미국인들은 은행보다도 유가 증권에 4배 이상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5가지 논거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지역 기업이 지역사회 번영의 핵심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미국 유가 증권 법률은 지역 기업들로부터 공정하게 형성된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는 자본을 박탈했습니다. 셋째, 미국 유가 증권 법률, 특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최근 개정으로 자본의 흐름 변화와 지역 기업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넷째, 지역 투자 기금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추진 중인 추가 혁신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의 자본 흐름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화 지지자들은 실현 가능한 개혁을 고찰하면서 캐나다에서의 유망한 모델을 연구하고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 지역 기업은 왜 중요한가

지역 소유 기업은 지역사회 번영 및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 기업 대 유사한 비지역 기업을 비교하는 연구 20여 가지가 발표됐으며, 지역 기업이 2-4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시민 경제학(Civic Economics)을 연구 중인 두 명의 경제학자, 매트 커닝햄과 댄 휴스턴 박사가 이 같은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실시된 연구에서는 시애틀의 중앙 조합과 이와 유사한 규모의 체인 식료품점의 영향력을 비교했습니다.³⁾ 중앙 조합은 모든 판매 수익 1달러당 48센트를 재순환했으며 이는 경쟁업체인 체인점이 지출하는 것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더욱 많은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중앙 조합의 지출을 유도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고 현지 식료품을 조달했으며 지역 자선단체에 더욱 많은 구호품이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중앙 조합을 다른 체인 식료품점으로 대체한다면, 승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애틀 경제에서 82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뛰어나며 지역 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경제 개발 전략은 대규모 글로벌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는 전략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2010년 “소기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가 그 일례입니다.⁵⁾ 연구진은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경제 성장은 대기업 몇 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기업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랜타연방준비지구가 2013년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미국 전역의 카운티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성과에는 지역 기업가가 중요하며, 지역 소유 기업 설립으로 카운티 소득과 고용 성장, 빈곤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⁶⁾

지역의 기업 소유권은 경제를 안정화시킵니다. 외부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공장 한 개만 있는 지역사회는 수백, 혹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타지의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단일 산업 현장, 특히 어류나 목재, 석유 또는 석탄처럼 자원 의존적 상품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 한 지역의 산업을 장악한 후 수익을 내기 위해

1) <https://www.kosmes.or.kr/sbc/SH/EHP/SHEHP025M0.do#:~:text=In%20Korea%2C%20there%20are%20about,nearly%2088%25%20of%20the%20workforce> (2020년 7월 22일 접속).

2)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금융 계정, 2019년 1분기” 2019년 6월 3일.

3) 매트 커닝햄 & 댄 휴스턴, “중앙 조합: 워싱턴 경제 공급 II”, 2019년 2월 26일, <https://www.centralcoop.coop/communityimpact/> (2019년 9월 27일 접속).

4) 지역자가의존연구소는 약 100여 가지의 관련 연구를 <https://ilsr.org/key-studies-why-local-matters/> 에 요약해 게시했습니다 (2019년 9월 29일 접속).

5) 에드워드 L. 그레이저 & 윌리엄 R. 커, “일자리 성장의 비밀: 작은 것을 생각하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0년 7-8월.

6) 아널 루페싱가, “지역 소유; 지역 기업 소유와 규모가 지역 경제 웰빙에 중요한가?”, 애틀랜타 연방준비지구 논의서 2013-1, 2013년 8월.

멕시코나 베트남 같은 곳으로 공장을 이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지역사회는 하룻밤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장 소유주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지역 공장 소유주는 적지만 양적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으로 가득 찬 지역사회가 보다 큰 경제적 안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이직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⁷⁾ 1946년, 두 명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C. 라이트 밀스와 멜빌 얼머는 한두 개의 대규모 제조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다수의 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비교해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 많이 포진한 지역사회가 “대기업 한두 개가 들어선 도시에 비해 시민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경제적 생활을 제공”하고 “시민 복지 수준을 높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⁸⁾ 코넬대학교 토마스 라이슨 농촌사회학과 교수는 2001년 미국의 제조업 의존적 카운티 226곳을 조사한 후 이 연구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 같은 지역사회는 “경제가 다각화된 지역사회보다 불평등에 취약하고 복지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붕괴율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⁹⁾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릴수록 투표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가 지역정치에 참여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하버드대학교 로버트 퍼트남 정치학 박사는 안정적인 지역의 장기적 관계가 경제 성공에 필수적인 학교나 교회, 자선단체, 공제조합, 기업 같은 여러 종류의 시민단체의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학 문헌을 검토한 후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향후 미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¹⁰⁾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지역 기업 문화가 특징인 카운티는 범죄율이 낮고 보건 수준이 높다는 증거도 있습니다.¹¹⁾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연결성과 지역의 부는 보다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식량 체계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신선하고 가공 처리가 덜 된 지역식품을 포용하는 지역기업사회는 비만과 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¹²⁾

지역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지역사회 고유의 문화와 음식, 생태계, 건축, 역사, 음악 및 예술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기업, 특히 지역 소매업체들은 내재적으로 지역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어디든’ 가리키지 않는 소매업 환경은 현재의 거주 지역을 미국의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¹³⁾ 다른 말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은 주변 환경에 대한 장점과 밝은 면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시민문화를 기릴 줄 아는 지역기업사회에서 “창조계급”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¹⁴⁾

7) 찰스 M. 톨버트 II, “소규모, 지역 그리고 충성심: 기업 속성이 근로자의 조직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로컬 이코노미 29, No. 8 (2014년 10월).

8) 토마스 A 라이슨 “대기업 및 지역사회 복지: 고전 연구 재도입”에서 인용, 코넬대학교, 모노그래프, 2001년 3월.

9) Ibid., 14.

10) 사드 윌리엄슨, 데이비드 임브로시오 & 가르 알퍼비츠, 지역사회를 위한 장소 만들기: 글로벌 시대의 지역 민주주의 (뉴욕: 루트리지, 2003), 8.

11) 트로이 C. 블랜차드, 찰스 톨버트 & 카슨 멘켄, “미국 카운티의 건강과 부: 소기업 환경이 개발의 대체 수단에 영향을 미친 방법”, 케임브리지 지역, 경제 및 사회 저널 5, No.1 (2012sus 3월), 149-162.

12) 다라 블룸, 조안나 레레악스 & 레베카 듀닝, “지역 식량 시스템: 현재 조사 분석”, 노스캐롤라이나주연구소, 모노그래프, 2018년 11월14일.

13) 사뮤엘 스트름, 아론 B. 프란젠, 찰스 M. 톨버트 & F. 카슨 멘켄, “대학 졸업생, 지역 소매업체 및 미국 지역사회 소속”, 사회학 스펙트럼 34, No.2 (2014년 2월).

14) 리처드 플로리다, 창의적 계급의 부상 (뉴욕: 베이직 북스, 2002).

이 때문에 관광객들도 지역사회 고유한 시그니처인 레스토랑과 상점, 박물관 등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한 일로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다른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수요가 적습니다. 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혁신 - 지열난방 프로젝트, 1년 내 내 신선한 지역 식품을 공급하는 온실, 지역 목재를 사용해 건축한 아파트 - 은 전 세계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작용 모델을 제공합니다. 자기 의존적인 지역사회는 수입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사업 소유주가 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EPA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는 지역 소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소유가 아닌 두 개의 비슷한 공장을 비교 시 지역에서 소유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은 지역 소유가 아닌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¹⁵⁾

II. 미국 증권법이 지역사회에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

지역사회 웰빙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 기업에 우호적인 증권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최소 한도라도, 증권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면 모든 부문과 모든 유형, 모든 크기의 기업에 자금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권법으로 감독되는 자본은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의 극히 일부에만 독점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처럼, 미국 경제도 소규모 지역 소유 기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¹⁶⁾ 비지역 기업이 포함된 실제 카테고리에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업들은 일자리와 생산 결과 측면에서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대학 같은 수많은 대규모 회사들도 지역적으로 소유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 던 & 브래드스트리트는 “지역(local)”이라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매장의 본사가 같은 주에 위치해 있는 경우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정의한다면, 미국 경제의 약 80%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¹⁷⁾

“지역”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지역 소유 기업은 미국 경제의 6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는 투자 시장에서는 증권 자본의 60-80%가 경제의 60-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국의 거의 모든 증권 자본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과 채권으로 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¹⁸⁾ 심지어 소위 말하는 “투자 영향”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는 친환경적이거나 노동 친화적으로 공개 거래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 기업은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화로 인한 혜택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5) 돈 그랜트 & 앤드류 존스, “사회사는 오염 경향이 심한가?”, 소셜 사이언스 퀴터리 84, No.1 (2003sus 3월), 162-73.

16) 2015년 근로자들과 함께 설립한 기업의 총 수는 687만2,350개로, 그 중 125만1,702개 기업의 근로자 수는 500인이 넘어 소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해, 고용인과 함께 설립하지 않은 기업의 총 수는 2,433만1,403개였습니다. 한편, 근로자 수가 500명이 넘는 모든 기업은 지역적으로 소유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구조사국의 카운티 기업 패턴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cbp.html>)과 비교용주 통계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nonemployer-statistics.html>)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17) 던 & 브래드스트리트 데이터와 여러 가지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접속 가능한 무료 사이트는 www.youreconomy.org 입니다.

18) 정의상, 공개적으로 거래된 주식과 채권은 지역 투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 연금 기금 및 보험 기금은 공개 거래 증권 투자 법률 하에서 장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 시장은 법적 필수 유동성(이와 대조적으로, 수많은 지역 투자는 쉽게 재판매할 수 없음)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H. 슈만의 “지역 자금, 지역 감정: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자금을 이동하는 방법과 실제 재산 조성 방법”(화이트 리버 정션, VT: 첼시 그린, 2012) 참조. 도입.

미국 자본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어떨까요? 투자 자본 중 60%를 지역 기업으로 보내면 미국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정도 규모의 자본이 이동한다는 것은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가 모든 지역 시민을 위해 지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최소 10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1만 명 가량이 작은 도시가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인구 10만 명인 도시는 1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투자 선택을 바꾸도록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규모의 자본을 전달하는 정책이나 정부 프로그램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증권법에 대한 이해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유 기업이 글로벌 거래 기업보다 투자자들에게 적은 수익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비효율적 자본 배분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 따르면,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익이 높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의 2013년부터 최근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단독 소유권을 가진 소규모 기업 혹은 소규모로 시작된 기업 대부분은 파트너십을 체결한 당사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C 코퍼레이션보다 수익성이 3배 가량 높습니다.¹⁹⁾ 캐나다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 수는 10-20명 선인 반면, 수익성이 가장 적은 기업은 500명 이상입니다.²⁰⁾ 높은 수익률을 가진 기업은 수익률이 낮은 기업보다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 수익에 뜻이 있는 투자자들은 지역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소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회피하는 투자자들은 지역 기업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투자자문가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비지역 소유든 지역 소유든 관계없이 모든 스타트업은 실패율이 높습니다. 창업 후 5년 넘게 생존하는 스타트업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기업 중 90% 이상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역 투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위험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지역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지역 투자자들에게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기업을 방문해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회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직접적인 대화는 회사를 평가하는 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사회 은행은 컴퓨터가 생성하는 신용 점수에 의존하는 글로벌 은행보다 연체율이 낮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유는 지역 증권사들의 수익 또는 위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권법이 각기 특성이 다른 고객층에 작용되도록 만들어진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에는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는 부유한 투자자들과 금융 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지만, 투자 기관들은 대규모 투자자들을 대기업과 연결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은 적고 수수료는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모나 장기적 수익성에 관계없이, 증권법은 자금의 주인이 바뀌기 전에 동일한 수준의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 회사당 1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수료는 거래 비

율이기 때문에 투자 거래자는 이웃의 철물점보다는 홈디포(Home Depot) 같은 대기업과의 10만 달러 작업을 선호합니다.

소수의 거물들은 은행업 외의 대규모 금융 거래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극소수의 미국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이뤄진 투자의 민주화로 풀뿌리 투자자들이 지역 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주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붕괴하고 뒤이어 대공황이 발생한 1929년의 불행으로 인해 1933년 증권법, 1934년 거래법, 1940년 투자자문법, 1940년 투자회사법을 거쳐 오늘날의 증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증권법의 기본 법률은 증권을 판매하길 원하는 모든 기업은 가장 먼저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된 부담은 증권 매수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구매자가 부유하다면 서류 작업은 간단합니다. 법률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를 이해하고 있으며 간주하고 있으며, 부유하지 않더라도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반면에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려면 상당한 법률적 서류 작업이 필요하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논리가 완벽합니다. 증권법은 미국인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도치 않은 다른 결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유가증권 매출당 2만5,000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호가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만 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지역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풀뿌리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벌어들이기 위해 거래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약간의 혜택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지역 기업들이 외부 화폐를 벌어들이기 위해 엔젤 투자자나 벤처 펀드, 혹은 부유한 투자자들이 관련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법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공인된 투자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공인된 투자자는 미국 인구 중 1-5.5% 가량입니다.²¹⁾ 즉, 나머지는 “공인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인 받지 않은 투자자들은 기업이 적절한 서류작업을 마친 뒤에야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법률의 결과는 자본의 대부분을 지역 기업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풀뿌리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지역 투자 대상을 찾고 투자 대상을 평가 및 거래하며 개인 퇴직금 거래 계좌와 투자 대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지만, 성숙한 시장에서 지난 세기 동안 대기업들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투자 업계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같은 상황은 풀뿌리 투자자와 지역 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금을 불균등하게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역 기업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금을 받는다면 이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19) IRS 통합 비즈니스 데이터,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ntegrated-business-data> (2019년 8월 24일 접속). IRS는 수익, 그 자체 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지만, “순이익”을 “총 사업 수령액”으로 나누면 3가지 사업 카테고리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해는 2019년입니다. 아밀리에 라프랑스, “기업 역학: 여러 가지 규모의 캐나다 기업 전반의 수익성 변화, 2000-2009”, 캐나다 통계조사논문, 2012, 표 5, 7.

21) 마이클 H. 슈만, 삶이 향하는 곳에 투자하라: 자기 지향적 IRA와 솔로 401k를 활용해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 (샌프란시스코: 베렛-괴슬러, 2020).

Ⅲ. 크라우드펀딩: 개혁의 사례 연구

최근 몇 년간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합법화되면서 평균 미국인이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저렴해지고 용이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 분야의 개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검토하면 한국에서도 향후 개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이지만 -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매년 수천 억 달러의 지역 기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²²⁾ - 더욱 중요한 법률 개혁은 2012년 잡스법(JOBS Act) 3항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관한 것입니다. 소기업들은 위펀더(WeFunder) 같이 연방에서 허가한 포털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연간 2,200달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 대상은 주식, 부채, 로열티, 사전 판매 제품 혹은 이 모든 것을 결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미국 3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지역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해 주 내에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미 증권관리협회는 업데이트 된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²³⁾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연방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기업의 대규모 매각과 풀뿌리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들도 웹 기반 포털에 대한 법률은 결코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에서는 라이선스가 있는 브로커-딜러만이 운영할 수 있게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누구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함), 이러한 법률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과된 잡스법은 사업에 필요한 법적 서류 작업을 상당히 줄였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연방에서 허가한 포털에 등록하기 전에 진행해야 할 간소화된 정보 공개 조항도 만들었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기업이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들은 풀뿌리 투자자들을 찾을 수 있으며 풀뿌리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금을 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투자 크라우드펀딩 평가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특별한 공모 수도 474건에서 680건으로 증가했으며 확보한 연간 총 투자금도 7,100만 달러에서 1억 9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투자자 수도 7만7,558명에서 14만7,4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²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10곳 중 6곳은 평균 27만 966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수치는 증가할 것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같은 개혁은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3억 3,000만 명 가운데 1,000명 당 한 명 미만 꼴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 기업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을 1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합니다.
- 풀뿌리 투자자들이 연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2,2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확대합니다.
- 기업과 투자자들이 풀뿌리 기회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을 개발합니다.

22) 펀데라, 뉴욕에 위치한 소기업 전문 금융 기관으로써, 북미에서 매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172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fundera.com/resources/crowdfunding-statistics> 참조 (2019년 10월 4일 접속).

23) 북미 증권관리협회는 업데이트 된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nasaa.org/industry-resources/securities-issuers/intrastate-crowdfunding-directory/> 참조.

24) 크라우드펀딩 캐피탈 자문, “2018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주 규정”, 2019년 1월 24일, <https://cdn.crowdfundinsider.com/wp-content/uploads/2019/02/CCA-2018-State-of-Regulation-Crowdfunding-Summary-FINAL.pdf> (2019년 10월 20일 접속).

- 풀뿌리 투자자들이 자기 주도 IRA와 솔로 401K를 통해 과세 유예 연금 저축을 지역 증권에 쉽고 저렴하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 지역, 주 포털 운영자들이 크라우드펀딩 공모 성공에 대한 성공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게 허가해 보다 실행 가능한 기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현재는 주 포털 운영자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크라우드펀딩은 한가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이용 가능한 제3자 보고서 없이는 풀뿌리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투자자 그룹과 투자 클럽은 참가자들이 해야 할 과제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투자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전문가를 두고 기업을 평가하고 펀드 내에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자산이 없는 사람은 기업 실패를 기업 성공으로 균형을 맞춘 다각화 풀에 투자하기 십상입니다.

Ⅳ. 지역사회 투자 기금의 중요성

투자 기금이란 투자자들이 돈을 맡겨 놓고 기금 관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금융 기관을 일컫습니다. 미국에만 약 1만 개 이상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단 십여 개 군데만이 신용 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개방돼 지역 증권의 포트폴리오에 특화돼 있습니다.²⁵⁾ 잡스법으로 인해 소기업들이 풀뿌리 투자자들에게 증권 발행이 용이해졌지만, 소기업이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법률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법 1940으로 인해 특히 신용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할 경우 투자 기금 출범 및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뮤추얼 펀드 설립 비용만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법률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법률 면제 조항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헤지 펀드” 면제는 공인된 투자자 100명 이하가 참여하면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인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지역 기업의 소규모 기금이 약 20개 정도 있습니다. 버몬트 커뮤니티 론 펀드(Vermont Community Loan Fund)와 뉴햄프셔 커뮤니티 론 펀드(New Hampshire Community Loan Fund), 마운틴 비즈웍스 펀드 오브 노스캐롤라이나(Mountain BizWorks Fund of North Carolina)가 초창기 선구자격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영리조직의 투자기업법률의 면제 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하에서 비영리조직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를 출범하고 적절한 대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중점을 두는 소수의 국가 비영리조직도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²⁶⁾ 가령, 루돌프 스타이너 재단은 RSF 사회투자기금(RSF Social Investment Fund)이라는 펀딩 매체를 만들고 풀뿌리 투자자들이 월도프 학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으며 기금을 최신식 식품 및 예술 프로그램 방향으로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칼버트 재단(Calvert Foundation)은 “지역 투자 증서”를 발행해 저소득 지역사회

25) 브라이언 비컨, 에이미 코르테스, 재니스 셰이드 & 마이클 H. 슈만, 지역사회 투자 기금: 지역사회 부, 자산 및 평등 구축 방법 (모노그래프, 파이어니어 벨리, MA: 솔리다코 파운데이션, 2020년 1월).

26) 슈만, 지역 자금, 지역 감정, 184-91.

회에서 지역 개발 금융 기관과 지역 개발 기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이 기금들 모두 지역적인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 및 지역에 투자를 할당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기금이 적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기업 기금 풀은 더욱 희소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증권의 가치 평가입니다. 기금은 포트폴리오의 소기업 대출 가치보다는 실패할 확률을 추측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지역 증권거래소 없이 지역 주식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전도유망한 새로운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반면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는 불신이 쌓이고 있고 클라우드펀딩의 대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음의 4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²⁷⁾

데보라 프리즈가 공동 창업한 보스턴 임팩트 이니셔티브(BII)는 “인종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지역 기반의 통합 자본 접근법”입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이 이니셔티브는 1,000만 달러 목표 중 현재 65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도체스터에 위치한 여성 및 소수민족 소유의 일반 도급회사인 마벤 컨스트럭션(Maven Construction)과 이동식 이발소 모바일 컷츠(Mobile Cuts), 보스턴에 위치한 근로자 소유 맥주회사 데모그러시 브루잉(Democracy Brewing)을 포함한 총 30개 벤처사에 33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기금의 가장 획기적인 특징 중 하나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최초의 손실을 흡수한다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금에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의 지역사회 대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역사회 투자 기금의 또 다른 사례는 이스트 베이 퍼머넌트 부동산 협동조합(EBPREC)으로써, 다중 주주 주택 협동조합인 이 기금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십여 가지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말하고 있는 취지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던 유색인종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권과 집합적 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지역사회 토지 신탁에 맡기고 투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영구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이주 위기에 처한 거주자들은 장기적으로 합당한 가격대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산 소유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으로 사유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익힐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기금의 세 번째 사례는 몬태나의 굿웍스 에버그린(Goodworks Evergreen)입니다. 이 기금의 설립자가 몬태나 주의 기업을 조사할 당시 각 기업의 소유주들이 은퇴하고 나면 약 10억 달러의 자산이 손실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굿웍스 에버그린은 몬태나 주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 첫 단계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최저생계임금을 지급하고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면서 최대 5개 기업을 인수, 관리 및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파이어니어 밸리 그로우 투자기금(Pioneer Valley Grows Investment Fund, PVGIF)으로써 웨스턴 매사추세츠 지역 현지 식량 시스템의 사회적 및 지역사회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사립학교, 비영리조직 등 투자기관 70곳이 지금까지 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동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은 기금 외에 사업 계획 강화와 자회사 기금 지원, 직원 훈련 같은 기술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기금의 연체율은 0이었습니다.

이 4가지 사례는 투자기업법률 내의 지역사회 구조를 거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비컨 변호사는 이 법률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15가지 다른 “준수” 모델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 중에서 극소수만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²⁸⁾ 그리고 비컨 변호사는 간단한 연방 개혁으로 지역사회의 기금 실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인근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기금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잡스법을 살펴보면 풀뿌리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에 주 내의 기업 및 투자자들과 관련된 기금을 만들고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V. 증권 개혁에 대한 캐나다 모델

미국인들이 파이낸싱을 현지화하는 여러 모델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캐나다에서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증권법 시스템은 미국의 것과 유사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옵션의 제약이 거의 없는 소수의 부유하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고가의 공시 명세서가 없으면 기업에 투자할 수 없는 공인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 나뉩니다. 클라우드펀딩으로 지역 투자 기회를 높였지만, 이를 활용하는 캐나다인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캐나다 법은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풀뿌리 투자 기금 규정을 만들 때 캐나다가 미국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앨버타와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역은 협동조합이 지역 투자를 활용하기 위해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근로자 대신 조직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부동산이며, 오클랜드의 이스트베이 퍼머넌트 부동산 협동조합과 앞서 언급했던 미네아폴리스의 노스이스트 주택협동조합의 법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 지역 두 곳에서 모든 종류의 지역 기업은 저가의 협동조합 구조를 통해 인수, 출범, 운영, 파이낸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바스코티아 지역에서 제공한 자유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1998년, 입법가들은 지역사회 경제개발 투자기금(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Funds, CEDIF) 법률을 제정해 공인 받지 않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확보해 지역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설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영리 목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최소 6명의 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노바스코티아 주민들은 과세 유예 퇴직 예금을 이 기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5년 동안 유지한 후에는 세액 공제 자격을 받게 됩니다.

27) 이 사례는 비컨 등의 오리지널 사례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보스턴 임팩트 이니셔티브와 이스트 베이 퍼머넌트 부동산 기업의 사례 연구는 에이미 코테스가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굿웍스 에버그린과 파이어니어 밸리 그로우 투자기금에 대한 연구도 코테스가 실시한 것입니다.

28) 비컨 외, 61-72.

100만 명가량의 시민이 살고 있는 노바스코티아는 시작부터 약 60가지 기금이 출범했으며 6,0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3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기금은 지역 경제 개발 형태로 지원됐으며 그 중 몇몇은 농가와 지역 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1인당 기금을 거둬들였다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금은 2만 개 이상일 것입니다.

노바스코티아가 CEDIF 법률을 통과시킨 한 가지 이유는 기존의 투자로 인해 지역 내에서 자금이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바 스코티아 사람들은 매년 PRSP(캐나다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에 6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 금액 중 단 2%만을 노바스코티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²⁹⁾

노바스코티아에서 가장 복잡한 풀뿌리 펀드는 린다 베스트가 운영하는 팜웍스(FarmWorks)입니다. 애나폴리스 밸리의 농가에서 성장하고 4H 프로그램에서 유년기를 보낸 베스트는 자신의 뿌리가 농업에 깊이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1960년대를 돌이켜보면 노바스코티아에만 농장이 1만 2,000곳이 있었으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60-70%가 그 곳에서 생산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은 농장은 4,000곳이 채 되지 않으며 유제품과 닭, 계란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식품의 10%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 인프라부터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남미,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에게 의존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현재, 팜웍스는 9번째 공모를 막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가와 식품 기업에 약4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으로 자원봉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노바스코티아 옆에는 뉴브런즈윅이라는 작은 지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의 지역 대표는 최근 지역 투자의 가치를 확인하고 50%의 지방 세액공제 정책을 제정했습니다.³⁰⁾ 자격 조건이 되는 지역 기업에 투자된 1,000달러 투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1달러마다 투자자의 지역 세금에서 50센트씩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시건 주에서도 포트스 코로나 구제 조치라는 명칭 하에 유사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결론 : 한국에서의 적용

한국의 지방화 지지자들은 투자 자본을 옮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기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5가지 제언입니다 :

- (1) 투자 패턴 분석 - 한국에서 대기업이 대부분의 투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 시장에 대한 정확한 편향 정도가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화 지지자는 정부가 데이터를 배포할 때 참여해 어떤 기업이 한국의 투자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2) 크라우드펀딩 확장 - 한국에서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입법화는 긍정적인 개발이지만, 단순한 증권 발행으로만 남는다면 전체적인 투자에서 극히 일부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화 지지자들은 기업

29) 슈만, 지역경제 솔루션, 183.

30)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finance/taxes/credit.html> (2020년 7월 22일 접속).

들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지역 투자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업을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뉴브런즈윅처럼 지역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역 투자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 (3) 지역 증권거래소 개발 -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서 사라진 기관은 지방 증권 시장, 즉, 지역 증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역 증권 유동성이 부재한 까닭에 지역 투자가 저조해졌습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이 제공하는 증권의 평가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에 기금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4) 인근 투자 기금의 합법화 - 한국은 노바 스코티아의 모델을 채택해 인근 지역의 연금 기금 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투자 기금 설립으로 지역 투자 세계를 확대해나갈 수 있습니다.
- (5) 자기 주도 허용 - 북미 지역에서 받은 또 다른 교훈은 자기 주도 연금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주도 IRA와 솔로 401(k)를 사용해 과세 유예 연금 기금을 지역 투자로 이전할 수 있으며 캐나다인들도 자기 주도 RRS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가격이 비싸고 노동 집약적이지만, 더 많은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도 스스로 이 같은 옵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핵심은 지역 투자에 이용 가능한 더 많은 기관과 도구가 개발될 때까지 지방화 임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뤄지더라도 미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는 비관주의자들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북미의 경험에서 빠르게 깨닫는다면 자본을 지역 기업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그로 발생하는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낙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서울 강서지역 시민자산화 사례

사람과 공간 나 상 윤

강서(등촌)지역 공유건물 '강서민중회관' 건립 추진계획

2020. 8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1.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



배경

- 임대료 비용의 과다로 사회운동/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유지 곤란
 - 인건비보다 부담이 큰 임대료 문제 해결 필요성(6년간 약 1억 8천만원)
 - * 은행권 대출금리 3-4% 수준, 재계약시 임대료 9% 인상(2019년부터는 5% 적용)
- 공간 임대계약 만료로 이전시 비용 부담 증대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보호기간 5년 (2019년부터 10년 적용)으로 이전 압박
 - 공들여 구축한 거점 손실 외 경제적 비용 추가(사람과공간의 경우 3천만원 필요)

목적

-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활동이 가능한 물질적 인프라 구축
- (가)강서민중회관 건립추진 과정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시민자산화·공유경제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사업모델 구현

* 공간이용 현황



기대효과

- ➔ 사무실 공유로 **협업 강화**
→ 협업공간, 플랫폼 역할
- ➔ 규모의 경제로 **효율적인 회의공간 사용**
→ 70-8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강의실 설치
- ➔ **문화예술 복합공간 확보**
→ 문화공간 설치
→ 청소년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접근성 보장
- ➔ **수익모델(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축**
→ 직영, 임대로 자체수익모델 구축 →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 ➔ **다양한 공동체 사업 활성화**
→ 공간의 안정화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 논의과정 소개

1)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자체 논의

- 2015년 12월 건물매각으로 건물주 변경
 - 이전요구 및 협상으로 5년간 사용 확정

2016년 정기총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정체성 확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민중회관 설립 제안

2017년 정기총회

(가)민중회관 설립추진 기획단 설치

- 민중회관 설립관련 기획(안) 마련
- 사례조사, 토지시세조사, 재정조달방안 모색

2018년 정기총회

(가)민중회관 설립추진위 구성 결의

- '사람과공간' 기금TF 구성
- 초청강좌 개최 : (사)나눔과미래 시민자산화사업팀
- 설명회 실시 : 강서아이쿱생협, 서울강서양천여성회전화 등
- 집담회 개최



2) 논의의 확장(2018)

- 2017년 하반기 강서아이쿱생협 · 빵과그림책협동조합
 -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으로 입주(공간공유)
- 2018년 추진위 준비모임 구성 및 운영

3) 강서 민중회관 추진위 결성식(2019)



4) 사례 조사 및 교육

마포 성미산 시민공간 나루

-2009년 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공유자산(구분소유)



광진주민연대 '공유공간 나눔'

-1994년 최초 상상
-2009년 논의 시작
-2010년 매입(12억)
규모 : 42평, 지하1, 지상3층,
대출 : 5억7천
-2017년 4월 건물 이전
매입 총 비용 : 39억
대출 : 23억



관악 FM
탐방 및 견학



시흥 빌드(BUILD)탐방 및 견학



(사)나눔과미래
전은호 시민자산화
사업팀장

초청교육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박영민 이사



(2) 2020년

- 내용 : 2020년 공동체공간 자산화 맞춤형 지원사업
- 기간 : 2020.4.10 ~11.05
- 지원 금액 : 29,798,100원
- 선정 단체 : 실행단계 : **강서민중회관추진위원회(3,000만원)**
계획.실행단계 : 용산 나눔의 집(2,000만원)
계획.실행단계 : 마포 함께주택협동조합(1,000만원)

<주요 사업계획>

- 공론장 개설
- 자금조달 및 중장기 수지분석 컨설팅
- 부동산 물건분석 및 설계(기초설계) 컨설팅
- 홍보물(애니메이션 제작과 법인 CI 및 홍보용품 디자인)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1) 2019년

- 내용 : 2019년 공동체공간 자산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 기간 : 2019.7.31 ~11.30
- 지원 금액 : 15,705,230원
- 사업 내용 : 사례 견학 및 교육, 주민설명회, 법인설립, 공간관련 컨설팅 등
- 선정 단체 : 해빗투게더협동조합, **강서민중회관추진위원회**



3.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소개

1) 참여단체

명칭	회원수	성격
강서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00여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0년 법인설립인가
빵과그림책협동조합	40여명	일반협동조합, 2016년 법인설립
평등사회노동교육원	800여명	사단법인, 2012년법인 설립 *2020년 4월 합류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300여명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2015년 설립 *2020년 총회에서 비영리법인전환 결의

*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공간

- 2020년 5월 5일 창립총회
- 2020년 8월 7일 설립인가(행정안전부)

4. 각종 컨설팅 결과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역기반건축사업)

1) 자산매입 주체로서 법인격 검토

법인형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법무법인 더함-사회적경제법센터 컨설팅

	1안(지분소유)	2안(구분소유)	3안(Vehicle)
장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각 합유자가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중대한 제약은 없음.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 자신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전유부분을 사용·처분할 수 있고, 해당 구분소유부분을 담보로 한 금융조달이 용이함.	구성원에 의한 개별적 처분이 불가하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됨. vehicle 명의로 금융조달이나 정책자금지원 등이 가능함.
단점	각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각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금융조달을 하기 어려움.	각 구분소유자에 의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음.	법인격별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상이함.

3안) 참여 주체들이 별도의 Vehicle을 설립하고 Vehicle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안

(판단)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Vehicle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바,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향후 자금 조달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위

* 법인형식 판단기준 : 설립목적 실현 적합성, 자금조달 용이성, 세금문제 해결 용이성

2) 부동산 물건조사 검토

어반 소사이어티 컨설팅

위 치	강서구 등촌 1동	강서구 등촌 2동	강서구 화곡 3동
사용승인	1993.10.26 /26년	1981.08.31 /38년	1991.02.06 /28년
대지면적	254.2㎡ / 76.9평	237.1㎡ / 71.7평	223.9㎡ / 67.7평
건축면적	122.08㎡ / 36.9평	145.2㎡ / 43.9평	123.16㎡ / 37.3평
연면적	554.74㎡ / 167.8평	251.97㎡ / 76.2평	512.96㎡ / 155.2평
건폐율	48.02% (법정 50%이하)	61.24% (법정 60%이하)	55.01% (법정 60%이하)
용적률	170.2% (법정 250% 이하)	95.96% (법정 200% 이하)	194.35% (법정 200% 이하)
층 수	지상4층 / 지하1층 (6층 가능)	지상2층 / 지하1층 (6층 가능)	지상4층 / 지하1층 (6층 가능)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예산가격	23억	16억	15.5억
공시지가	4,004,000원/㎡, 1,300만원/평(약 10.2억)	4,074,000원/㎡, 1,340만원/평(약 9.7억)	3,052,000원/㎡, 1,000만원/평(약 6.8억)
주차 /구조	4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옥탑)	0대 / 연와조(주택), 시멘트벽돌조(점포)	3대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4층)
	↓	↓	↓
예산 사업비	23억+5.9억=28.9억 취득세 별도	16.0+10.0 = 26.0억 취득세 별도	15.5+4.1 = 19.6억 취득세 별도
key word	중축 & 리모델링 좋은 교통인프라 외부환경과의 시너지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보행친화적)	신축 1층 수익시설에 유리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 마당의 장점	리모델링 좋은 대지조건 내유외강 가성비
정량평가(5점)	3.4	3.3	3.3

3) 조세 분석

[시뮬레이션] 설립 자본금 5억원, 건물 매입가격 25억원 인 경우

종류		조직형태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5년 미만	5년 이상
설립 시	등록세			6,000,000원	
	지방 교육세			1,200,000원	
취득 시	취득세			200,000,000원	100,000,000원
	지방 교육세			30,000,000원	10,000,000원
	농 어 촌 특 별 세			5,000,000원	5,000,000원
보유 시	재산세			토지: 과세표준(공시지가 * 70%) 토지 재산세율 0.2% ~ 0.4%(과세표준에 따라 상이) 건물: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70%) * 건물 재산세율 0.25%	
				총액(재산세 제외) 242,200,000원 122,200,000원 138,600,000원	

* 참고자료_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공동체 공간의 상(像)과 공간배치 계획

1) 상(像)

- 대지 : 70평 ~ 80평
- 건평 : 42평 ~ 48평
- 규모 : 지상 4층~5층 + 지하 1층

2) 공간배치

구분	배치	비고
옥상	루프탑 라운지, 텃밭 등	녹색건축물
5층	독립 사무실	임대
4층	소규모 독립 사무실 2-3개	
3층	공동사무실, 소회의실, 탕비실	테라스
2층	대회의실(중회의실 포함), 좌식방	풀딩 도어 설치
1층	카페, 공유주방, 빨래방 등	임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하	문화복합공간(강당, 전시, 연습실 등)	

6. 소요비용 산정과 재정조달 방안

1) 비용산정(25 ~ 27억원)

- ① 자산 매입비 : 20억 ~ 22억원
- ② 자산 취득시 조세 : 1억 5천만원(취득세, 등록세 등)
- ③ 리모델링 비용 : 3억원 내외
- ④ 기타 경비 : 5천만원
 - 대출비용, 대출부터 입주까지 이자비용 : 4~6개월 소요
 - 부가세
 - 채권 할인료 : 시가 표준액*3.1%*1.0613%
 - 부동산 중개비 : 0.99%
 - 명도비용 : 세입자 이주비용 등

7. 원리금 상환 및 수지전망

1) 예상 지출 시나리오

구분	① 20억, 3%	②22억, 2%	③16억, 3%	비고
담보대출 이자	5,000,000	3,670,000	4,000,000	서울시 사투기금 이자율 2%
개인차입 이자	500,000	0	340,000	①2억, 3% ③2억, 2%
원금상환	1,000,000	1,500,000	1,000,000	5년간 적립
공과금	500,000	500,000	500,000	전기, 수도, 가스 등
기기 렌탈비	500,000	500,000	500,000	복사기, 정수기, 커피머신, 인터넷 등
유지 보수비	500,000	500,000	500,000	승강기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
세금	500,000	500,000	500,000	재산세 등
청소	500,000	500,000	500,000	외주 위탁
인건비(활동비)	1,000,000	800,000	500,000	법인 직원 혹은 관리책임자
감가상각	1,000,000	500,000	500,000	
그 외	500,000	530,000	500,000	
총액	11,500,000	9,500,000	9,340,000	

2) 재정조달 방안

출자 : 조합원 출자 / 임대보증금

대출 : 정책금융, 금융권대출

차입 : 개인 차입

모금 : 클라우드 펀딩, 기부금

기타 : 재정사업

[현재(2020.8.01) 단체별 출자금 약정_5억 5천만원]

강서양천민중의집 2억 5천만원(현재 공간임대보증금 5천만원 포함)
강서아이쿱생협 1억 5천만원
빵과그림책협동조합 5천만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1억원

2) 예상 수입 시나리오 (공간임대 수익)

구분	현행	조정1(선호)	조정2	비고
A	200,000	200,000	200,000	증액 검토
B	100,000	100,000	100,000	
C	150,000	150,000	150,000	
D	100,000	100,000	100,000	
강서아이쿱소비자생협	400,000	1,000,000	1,200,000	
빵과그림책협동조합	200,000	300,000	400,000	
강서양천민중의집	1,537,300	1,000,000	1,200,000	
평등사회노동교육원		800,000	900,000	4층
기타		850,000	850,000	4층
소계	2,687,300	4,500,000	5,100,000	
일시적 대여	1,000,000	1,500,000	2,000,000	지하 및 2층 강의실 사용료
1층 임대료		3,000,000	4,000,000	영업공간(카페 등)
기타(후원)		500,000	1,000,000	
총계	3,687,300	9,500,000	12,000,000	

8. 추진 일정

- 조직별 논의
 - 2020년 1월~3월(단체별 총회 보고 및 승인)
- 법인설립(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과 출자금 마련
 - 5월5일 사협 창립총회 개최. 5월20일 행안부 접수, 8월 7일 설립인가
 -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부(8월-9월)
- 부동산 물건조사 및 재무분석
 - 2020년 9월~11월(1차)
 - 2021년 4월~5월(2차)
- 모금과 대출 추진
 - 2020년 9월~12월(1차)
 - 2021년 4월~6월(2차)
- 부동산 매입계약과 설계작업
 - 2020년 11월~12월(1차)
 - 2021년 5월~6월(2차)
- 리모델링 및 공간 인테리어
 - 2021년 2월~3월(1차), 7~8월(2차)



9. 어려운 점

법 른	조 세	자 금
- 공동소유, 자산매입, 모금 등 법률적 제약 - 자산소유 법률적 주체 선택의 어려움	- 법인설립, 자산취득 관련 조세 정보 부족 - 높은 조세비용 및 소모성 경비 비중 과다	- 정부 정책금융 지원 부족(과도한 부동산 비용) -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



법률/조세/자금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절실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 모델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20 전주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 모델

2020. 9. 4.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이경호

❖ Copyright(c) 2020 더함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더함

목차

1.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2.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3.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기준

1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시민자산화의 법적 이해

- ‘시민자산화’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간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
-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자산화의 주체가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처분이나 관리운영 및 사용수익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4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화주체의 자산 확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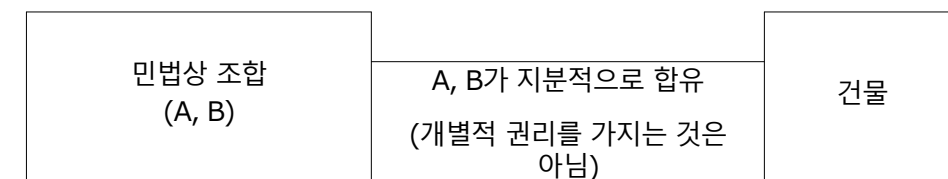
- 매수 또는 임차
 - 자금 조달 통한 부동산 매수 또는 임차
- 기부
 - 기부자로부터 부동산을 기부 받음
- 신탁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음

5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화주체의 자산 소유 형태 (건물의 경우)

- 참여주체들이 직접 자산을 공동으로 지분적으로 소유하는 형태
(합유 또는 총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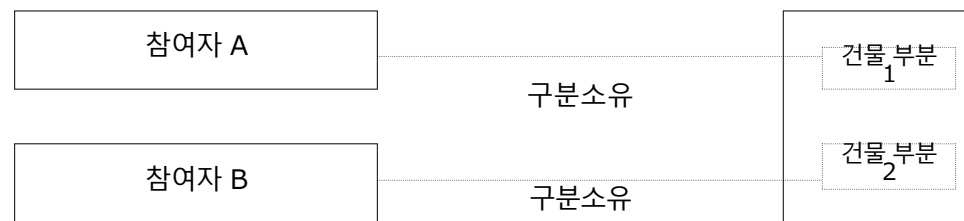
6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화주체의 자산 소유 형태 (건물의 경우)

- 참여주체들이 직접 자산의 각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형태

특히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



7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 소유 형태의 비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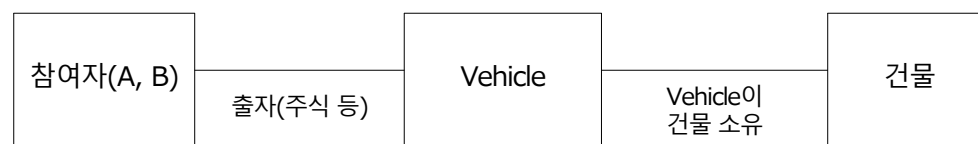
- **합유**
 - 민법상 조합은 별도 법인격이 아니어서 동업계약 해지의 방법으로 해체할 수 있는 등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음
 - 금융조달이나 재정지원이 용이하지 않음
- **구분소유**
 - 각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 부분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시민자산화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

9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화주체의 자산 소유 형태 (건물의 경우)

- 참여주체들이 별도의 Vehicle(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Vehicle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



8

시민자산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 소유 형태의 비교 검토

- **별도 Vehicle을 통한 간접소유**
 -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므로 법률관계 단순화
 - 법인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므로 법인 재산으로 채무 변제 책임
 - 현재 대부분의 자산화 주체들이 법인격 없이 활동하고 있음. 자산 매입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렵고, 소유권을 공동체 자체에 귀속시킬 수 없어 안정적인 자산화 어려움

10

시민자산화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 자산 소유 형태의 비교 검토

- 별도 Vehicle을 통한 간접소유
 - 시민자산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가 필수적이므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
 - 별도 Vehicle의 조직 모델별 특징을 검토하여 시민자산화에 적합한 조직 모델 설정이 필요함

11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조직 모델의 종류

- 영리법인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신탁

13

법무법인 더함

2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특성
 - 주주의 출자와 주식 발행으로 설립되는 상법상 회사
 - 공동기업의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
 -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가능
 - 민관 공동출자로 공공의 참여도 수월
- 주식회사의 한계
 - 자본출자에 따른 의결권 부여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어려움
 - 영리만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경도될 우려

14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일반)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특성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의 한계
 -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구성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어 통상적으로 영리법인으로 분류
 - 1인 1표제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1인 출자금 한도(30%) 제한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15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특성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설립 가능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

17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성원	조합원	주주
출자한도	총 출자지분의 30%	없음
지분거래 제한	총회 결의 필요	없음
출자상환	탈퇴 시 상환의무	없음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
기관구성	조합원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와 이사회
배당	이용배당: 출자배당에 선행	출자배당만 가능 배당률 제한 없음
	출자배당: 배당률 제한	

16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본질	사람의 집단	출연한 재산
사원	구성요소로 사원 필요	사원 부존재
의사결정	기관	사원총회 및 이사회
	특징	사원들에 의한 설립, 기관구성, 정관 작성과 변경 등 폭넓은 자율성 인정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관 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18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한계
 - 주무관청의 허가과 감독 등 자율성 확보 어려움
 - 사단법인은 1인 1표제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19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법인격	영리법인 성격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 인가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처리	다른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21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
 -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비영리법인이지만 사업조직으로 운영됨
- 사회적협동조합의 한계
 - 1인 1표제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1인 출자금 한도(30%) 제한 등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20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공익신탁

- 공익신탁의 특성
 -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이함
- 공익신탁의 한계
 -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등 자율성 확보 어려움

22

조직 모델별 특성과 한계

■ 조직 형태 결정시 주요 판단기준

- ① 법인의 목적
- ② 의사결정구조
- ③ 자금조달
- ④ 설립절차
- ⑤ 조세부담

23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① 법인의 목적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
 - 일반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공동체적, 공익적 가치 추구
- 비영리법인
 - 학술, 자선, 문화, 공동체 등 공공을 위한 목적
 - 이익배당의 금지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발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영위함

25

법무법인 더함

3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기준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① 법인의 목적

- 시민자산화에서 법인의 목적
 - 자산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시민의 자산으로 지키고 지역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 즉 영리는 주 목적이 아님
 - 조직 형태 자체가 내포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구조, 기관구성, 이익배당 등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이 좌우될 수 있음
 - 사업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합할 수 있음

26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② 의사결정구조

-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협동조합은 조합원총회
- 총회는 법인의 존립,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의결함
- 따라서 총회의 의사결정방식은 법인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의 기초는 의결권 부여방식에 있음

27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② 의사결정구조

- 시민자산화에서 의사결정구조
 -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 일차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선호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자산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으로 흐를 우려 있음
 - 사업의 세부 목적, 초기 참여자 범위, 자산 규모 등 고려하여 어떠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 필요

29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② 의사결정구조

- 주식회사
 - 1주 1의결권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효율적 경영 가능
 - 민주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 1인 1의결권
 -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
 - 신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28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③ 자금조달

- 주식회사
 - 우선주식, 상환주식 등의 종류주식으로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 가능
 - 익숙한 법인유형, 용이한 투자금 회수 등 외부 투자 원활
 - 회사채 발행 가능
 - 다른 조직 형태에 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원활

30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③ 자금조달

- 협동조합
 -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늘리는 것 외 직접적인 조달이 어려움. 다만, 법 개정으로 우선출자제도 도입됨
 - 외부로부터의 차입 역시 주식회사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음. 다만, 최근에 다양한 기금, 대출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지자체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단법인
 - 사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
 - 외부로부터의 조달은 금융기관 차입, 국가, 지자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31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③ 자금조달

- 시민자산화에서 자금조달
 - 자금의 규모, 차입 예상 금액, 상황에 대한 부담,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방식 선택
 - 자금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 유리
 - 그러나 다른 조직형태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금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상품 등장, 건물을 담보로 한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고려 가능

33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③ 자금조달

-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부동산업을 위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원칙적 금지. 단, 창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예를 들어 세어하우스
 -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부동산업에 대하여도 가능. 다만, 투자 한도 등 여러 제한이 있음
- 관련 제도들이 자주 변동되고 있으므로 조달 시점에서 확인 필요함

32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④ 설립절차

- 절차 개관
 - ✓ 사전 결정
 - 발기인 구성, 상호/본점주소/사업목적/출자금/임원 등 결정
 - 정관 작성
 - ✓ 창립총회
 - ✓ 설립신고 또는 인허가(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 ✓ 설립등기
 - 등기신청 시점으로부터 평균적으로 2-3일 소요

34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④ 설립절차

- 주식회사
 - 평균 1주일
-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
 - 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일반 협동조합 신고 : 평균 1개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평균 3개월

35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⑤ 조세 부담

- 취득세
 - 원칙은 취득가액의 4%이나,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과되어 8%
 - 지방교육세(취득가액 0.4%,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2%), 농어촌특별세 0.2%
 - 취득 후 건물 증축에 따라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8%(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8%,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동일)
 -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함이 있는 경우(서울시) 취득세액의 50% 감면

37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⑤ 조세 부담

- 법인설립 시 등록세
 -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3배 종과하여 0.12%)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0.2%)
 - 합계 최저세액 405,000원
 -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정함이 있는 경우(서울시), 등록세율 0.2%, 최저세액 43,000원

36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⑤ 조세 부담

- 재산세
 - 토지와 건물을 구분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0.2~0.4%
 -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세표준의 0.25%
- 임대료 수익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 ✓ 시민자산화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상당하므로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조세 부담을 필히 검토하여야 함

38

조직 형태 결정의 주요 판단 기준

- ✓ 시민자산화의 목적은 자산의 확보를 통해 공동체공간을 건립하여 지역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 및 방향성에 부합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선택하여야 함
- ✓ 사업의 목적,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의 소유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구조, 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원활한 자산화 진행을 위한 적절한 설립기간, 자산 취득 시는 물론 보유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인유형을 정하여야 함

39

자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책자금 활용

밴드파운데이션 김선영

자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책자금의 활용

(2020. 08)



법무법인 더함

감사합니다

1. 사회적경제공제기금 (1/4)

공제기금의 기능	사회적경제 손실방지기능	사회적기업의 부도 방지 및 국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회보장적 기능	다수의 취약계층 종사자의 일터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용 안정화 및 긴급 생계 안정 등 사회보장 기능수행
	사회적기업 자조 실현	공제부금 납부라는 자조적 노력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영세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신용력 및 담보취약으로 기존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경제 하부기능 수행

공제기금의 목적	상호부조정신 고양	경영안정 도모	정책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나감	• 긴급경영자금 등의 필요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움	• 공제기금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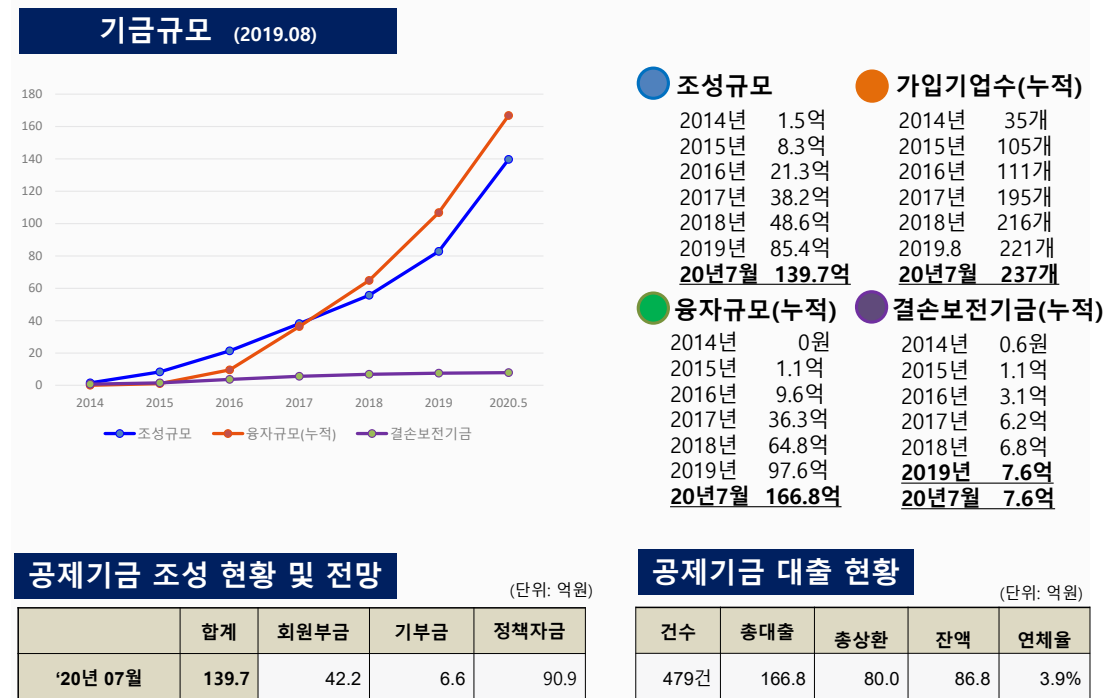
공제 가입 및 부금 현황 (2020.07)

- 가입대상: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
- 부금납입: 월 10만원 ~ 100만원 (10만원 단위), 3년/4년/5년
- 가입기업 : 237 개 (기업당 평균 가입금액 : 약 58만원)



1

1. 사회적경제공제기금 (2/4)



BAND FOUNDATION

2

1. 사회적경제공제기금 (4/4)

상품	(1) 우수 사회적경제	(2) 소셜프로젝트	(3) 협의체(네트워크)
대상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 우수 사회적경제 기준 부합 기업	2개 이상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하여 지역/부문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업종/부문 등 네트워크 ※공제기금 가입 후 신청 가능
용도 및 한도	최대 5억 ○ 시설자금: 총 소요자금 80%이내 ○ 운영자금: 매출액 50% 이내 ○ 신용대출한도: 최대 1억	최대 10억 (시민자산화 등 사회적 프로젝트 추진)	목돈으로 부금 일시납 가능 기본상품(부금의 5배 대출한도) 및 용도성 여신 상품 이용 가능
이자율	연 2.0% ~ 3.75% (납입 부금 규모/기간, 대출기간, 대출채권, 신용/담보 등 심사 평가에 따라 상이)		
상환기간	5년 (연장하여 최대 10년, 매년 평가)		상품에 따라 상이
처리기한	공제기금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최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비대면심사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대면심사 진행		
기타	예산 소진 시까지	프로젝트 참여하는 다수 기업의 공동 신청 가능	법인격 필수
신청접수	온라인 수시 접수 (접수처: sefund.or.kr 로그인 후 '대출·보험신청하기') 문의: 070 - 5099 - 1672		

※납입 부금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0.5%의 공제안정화기금 일시 납부 (대손보전 용도로 별도 적립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BAND FOUNDATION

4

1. 사회적경제공제기금 (3/4)

구분	(1) 부금내 대출	(2) 신용 대출	(3) 담보대출
대상	공제기금 가입 만 3개월 경과한 기업		
대출한도	납입한 부금 이내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 단, 2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10배 대출 가능 (예시: 현재까지 납입한 부금 누적액 200만원 * 10배 = 2,000만원)	납입 부금의 최대 5배
이자율	연 2%	연 2% ~ 3.75% (납입 부금 규모/기간, 담보가치 평가, 대출기간 등에 따라)	
상환기간	최대 6년		
진행절차	무심사 3일 이내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최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비대면심사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대면심사 진행	
기타		추천서 2부 (공제 가입 회원사 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천서)	부동산 이외 담보 가능 (예) 임대보증금, 차량 및 기계장치, 보증서, 매출채권 등
신청접수	온라인 수시 접수 (접수처: sefund.or.kr 로그인 후 '대출·보험신청하기') 문의: 070 - 5099 - 1672		

※ 대출 신청은 기금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능
※ 납입 부금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0.5%의 공제안정화기금 일시 납부 (대손보전 용도로 별도 적립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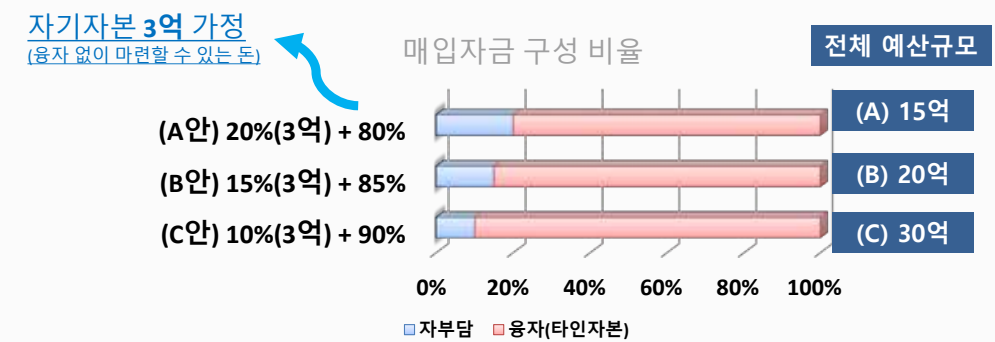
BAND FOUNDATION

3

[우리에게 적절한 매입 예산은 얼마일까요?]

중소기업 사무실/공장 매입 시, 통상적인 매입 예산

필요 자금(세금 별도) = 회사 자부담 20% + 은행대출 80%



- (예시) 자기자본 여력이 3억, 타인자본(이자율 3%) 가정
- (A) 자기자본 3억(20%) + 용자 12억(80%) = 15억(100%), 연이자 12억 x 3% = 3,600만원 (월 300만원)
- (B) 자기자본 3억(15%) + 용자 17억(85%) = 20억(100%), 연이자 17억 x 3% = 5,100만원 (월 425만원)
- (C) 자기자본 3억(10%) + 용자 27억(90%) = 30억(100%), 연이자 27억 x 3% = 8,100만원 (월 675만원)

BAND FOUNDATION

5

[예산범위 20억 = 건물 매입가 20억 알아보기?]



6

BAND FOUNDATION

[매입 소요 비용을 추산해봅시다.]

예시	구분	금액	비고
	건물가격	16억 원	
	세금(부가세)	3,000만 원	토지 부가세 (X), 건물 부가세 (O)
	세금(취득세)	7,360만 원	매입가격 16억 X 4.6% (중과세 약 9~10%)
	채권할인료 등	50만 원	(서울) 시가표준액*3.1%*1.0613%
	부동산 중개료	1,760만 원	16억 원 * 0.99%
	리모델링비	2억 4,000만 원	300만 원 * 80평
	리모델링비 부가세	2,400만 원	리모델링비 X 10%
	명도비용 등 부가비용	2,000만 원	
	합계	20억 570만 원	

비용절감 요소

- (1) 리모델링 : 노후화 체크, 사용할 용도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 (ex. 원룸 벽 철거 등)
- (2) 명도: 많이 비어있는 건물 (장사가 잘 안되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리스크 확인)
- (3) 취득세 (대도시 과밀억제지역의 설립 5년 이하 법인의 경우, 중과세 기본 취득세의 약 2.5배)
※ 사회적협동조합 등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검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장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7

BAND FOUNDATION

매입 후에는 최소한 "수입 = 비용"의 운영 구조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세요.

(1) 수입구조 예시 (통상적 임대 건물) 월 수입

층별	현황	면적(m²)	면적(평)	상가임대 효용비율	임대료	관리비
4F	근생	68	20.6	29.3%	55만원	10만원
3F	근생	68	20.6	36.2%	68만원	10만원
2F	근생	68	20.6	45.5%	86만원	10만원
1F	근생	73	22.1	100.0%	200만원	22만원
합계		277	83.9		409만원	52만원
공실률	10%			합계	360만원	48만원

m²당 임대료 시세: 28,000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수익률 = 2.44%
4,896만원/20억
(4,896만원 = 408만원*12월)

수입합계 408만원
- 비용 1212만원
(감가상각비는 당장 유출되는 현금성
지출은 아님에 따라, 제외하고 계산)
= 마이너스 804만원

(2) 비용구조 예시 (통상적 임대 건물) 월 지출

① 월 지출 : 원금상환X, 이자만 납부 시

항 목 (ver.1)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5,400만원/12)	450만원
합계	월 512만원

※ 건물관리비 : 공용전기, 전기/화재/승강기 안전관리, 보
험료, 청소/전화조/물탱크, 유지보수(충당금) 등
※ 재산세 :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기준, 과세표준에 따
라 달라짐

② 월 지출 : 원금상환 개시, 감가상각 반영

항 목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5,400만원 / 12개월)	450만원
융자원금 상환 (17억 * 50% / 10년 / 12개월)	700만원
감가상각비 (예시, 4억 / 25년 / 12개월)	133만원
합계	1,212만원 (1,345만원)

8

BAND FOUNDATION

운영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입 ↑ ↑

현재의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낸다.

- ② 임대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을 창출하면서 목적에도 맞는 활동을 찾는다.
(대관수입??, 마을카페 운영수입??)
- ③ 공공(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는다. (지불용의자는? 공공)
- ④ 회비, 기부금, 참가비 및 기타

비용 ↓ ↓

① 비용 절감 방안

- 매입 시, 자부담율을 높이고, 용자비중을 줄인다. (주민/시민 펀딩 등)
- 이자율을 낮춘다.

(예시1) 17억에 대해, 연 3% ⇒ 연 2%
연 5,400만원 ⇒ 연 3,400만원 (연 2,000만원 save)
(월 450만원) (월 285만원) (월 165만원 save)

(예시1) 17억에 대해, 연 3% ⇒ 연 1.5%
연 5,400만원 ⇒ 연 2,700만원 (연 2,700만원 save)
(월 450만원) (월 225만원) (월 225만원 save)

② 공공적인 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9

BAND FOUNDATION

매입 후에는 최소한 “수입 = 비용”의 운영 구조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세요.

이자율 2%

① 월 지출 : 원금상환X, 이자만 납부 시	
항 목 (ver.1)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3,400만원/12)	285만원
합계	월 347만원

월수입합계 408만원
- 월비용합계 347만원

= 월 61만원

② 월 지출 : 원금상환 개시, 감가상각 반영	
항 목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3,400만원 / 12개월)	285만원
융자원금 상환 (17억 * 50% / 10년 / 12개월)	700만원
감가상각비 (예시. 4억 / 25년 / 12개월)	133만원
합계	1,047만원 (1,345만원)

이자율 1.5%

① 월 지출 : 원금상환X, 이자만 납부 시	
항 목 (ver.1)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2,700만원/12)	225만원
합계	월 287만원

월수입합계 408만원
- 월비용합계 287만원

= 월 111만원

② 월 지출 : 원금상환 개시, 감가상각 반영	
항 목	금 액
건물관리비	52만원
재산세 (120만원/12)	10만원
이자비용 (2,700만원 / 12개월)	225만원
융자원금 상환 (17억 * 50% / 10년 / 12개월)	700만원
감가상각비 (예시. 4억 / 25년 / 12개월)	133만원
합계	987만원 (1,120만원)

BAND FOUNDATION

10

10년, 30년의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봅니다.

(1)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I. 수익		88,591,562	89,477,478	90,372,253	91,275,975	92,188,735	93,109,540
임대수입		88,591,562	89,477,478	90,372,253	91,275,975	92,188,735	93,109,540
관리비수입		0	0	0	0	0	0
자산매각이익		0	0	0	0	0	0
II. 비용		89,188,667	89,407,432	89,630,572	89,858,175	90,090,331	90,326,540
건물관리비		6,360,000	6,487,200	6,616,944	6,749,283	6,884,269	7,021,920
감가상각비		43,254,811	43,254,811	43,254,811	43,254,811	43,254,811	43,254,811
이자비용		34,995,600	34,995,600	34,995,600	34,995,600	34,995,600	34,995,600
재산세		4,578,256	4,669,821	4,763,217	4,858,481	4,955,651	5,054,784
융자수수료		0	0	0	0	0	0
III. 이익		(597,104)	70,046	741,681	1,417,800	2,098,404	2,782,999
법인세		(59,710)	7,005	74,168	141,780	209,840	278,299
IV. 당기순이익		(537,394)	63,042	667,513	1,276,020	1,888,564	2,504,700
V. 배당		0	0	0	0	0	0
VI. 이익잉여금		(537,394)	63,042	667,513	1,276,020	1,888,564	2,504,700
누적이익잉여금		(537,394)	(474,352)	193,161	1,469,181	3,357,745	5,865,445

(2)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I. 자산		2,599,462,606	2,599,525,648	2,600,193,161	2,601,469,181	2,603,357,745	2,605,865,445
현금 및 현금자산		86,233,151	129,351,004	173,473,328	218,004,158	263,147,533	308,800,000
건물		865,096,219	865,096,219	865,096,219	865,096,219	865,096,219	865,096,219
(감가상각누계액)		(43,254,811)	(86,509,622)	(129,764,433)	(173,019,244)	(216,274,055)	(259,528,866)
토지		1,691,388,047	1,691,388,047	1,691,388,047	1,691,388,047	1,691,388,047	1,691,388,047
II. 부채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장기차입금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2,080,000,000
보증금		0	0	0	0	0	0
III. 자본금		519,462,606	519,525,648	520,193,161	521,469,181	523,357,745	525,865,445
자본금		520,000,000	520,000,000	520,000,000	520,000,000	520,000,000	520,000,000
이익잉여금		(537,394)	(474,352)	193,161	1,469,181	3,357,745	5,865,445
부채와 자본		2,599,462,606	2,599,525,648	2,600,193,161	2,601,469,181	2,603,357,745	2,605,865,445

BAND FOUNDATION

11

(3)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1차년도	2차년도
1. 원금		2,600,000,000	2,600,000,000
차입금		2,080,000,000	2,080,000,000
출자금		520,000,000	520,000,000
2. 운영수입		88,591,562	88,591,562
임대수입		88,591,562	88,591,562
관리비수입		0	0
3. 자산매각		0	0
I. 현금유입		2,688,591,562	2,688,591,562
4. 사업비		2,556,484,266	2,556,484,266
부동산 취득		1,940,000,000	1,940,000,000
매입비용		186,484,266	186,484,266
리모델링		430,000,000	430,000,000
5. 운영비용		45,874,145	45,874,145
건물관리비		6,360,000	6,360,000
이자비용		34,995,600	34,995,600
재산세		4,578,256	4,578,256
융자수수료		0	0
법인세비용		(59,710)	(59,710)
6. 현금배당		0	0
7. 자산상환		0	0
차입금상환		0	0
II. 현금유출		2,602,358,411	2,602,358,411
총합		86,233,151	86,233,151

BAND FOUNDATION

비용을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정책용자를 활용합니다.

정책자금: 장려하는 정책분야를 육성,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공급
(예시. 사회적경제 조직 - 국정과제 우선순위)

중소벤처 진흥공단

- 금리 = 기준금리 ± 0.3~0.5% (시설자금 0.3% 우대, 최대 10년)
※ 19년 4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공단 직접대출 가능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기간 연장 없음
상반기 예산 소진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대상: 도시재생지 내의 부동산만 해당
-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80%
- 이자율: 담보 1.5% (감정평가액의 약 60~70%) + 신용 최대 3%
- 조건: 임대료 상한율 2.5~5%, 임대차보호법 명시, 임대기간 보장 등
- 공단 직접대출 가능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보증서 대출**로써, 1순위 자금처인 위의 정책용자기관 또는 민간은행 담보대출과 병행 가능 (자부담 부분에 활용)
- 2020년부터 3년 사업. 매년 상반기 공고
- 최대 5억, 이자율 2.5% + 보증료 0.5%
-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는 자부담(자본금) 확보 필요
- 1차 지원대상 선별 (서류심사 => 현장심사) => 2차 신보 평가(최종 금액 확정)

BAND FOUNDATION

12

사회적경제 정책자금공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공공기관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공급목표	20년 1분기 공급 규모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414	50	60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85	500	600	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	100	150	17
	신협	95	300	300	59
	새마을금고		10	100	10
		556.4	960	2,300	437
보증	신용보증기금	1,032	1,000	1,000	204
	지역신용보증재단	135	150	150	30
	기술보증기금		700	1,150	203
		1,167	1,850	2,300	437
투자	한국성장금융	141	200	225	3
	한국벤처투자	63	220	540	75
		204	420	765	78
합계		1,937	3,230	4,275	703(16.4%)집행

출처) 2020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20.03.31)

- 자금의 용도가 대부분 운영자금 위주
- 시설자금 상품: 중진공, HUG, 행안부-신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보 등

BAND FOUNDATION

13

I 나가며..

- 정보를 많이 모으기, 발품을 많이 팔기
- 계산기 잘 두드리기: 추정재무제표 만들기
(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편히 하기)
- 수익활동이 적으면, 용자 줄이고, 자부담 많이 만들기
- 수익활동이 활발하면, 적정 용자 활용하기
- 운영원칙 꼼꼼히 만들기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 정책자금 잘 활용하기



14

감사합니다.



www.sefund.or.kr
sefund@sefund.or.kr
 070-5099-1672



자산화 프로세스와 사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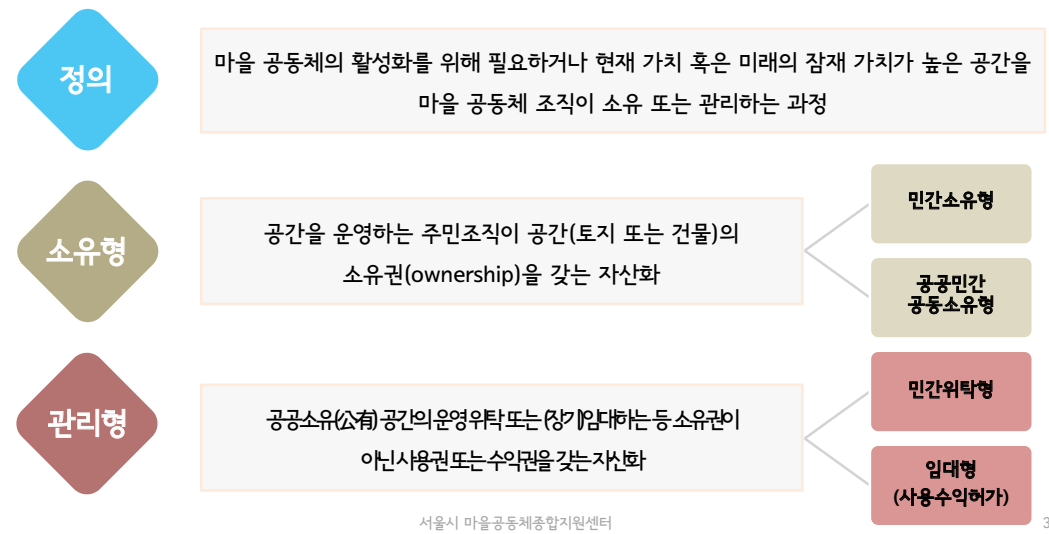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자산화 지원사례와 프로세스

2020. 0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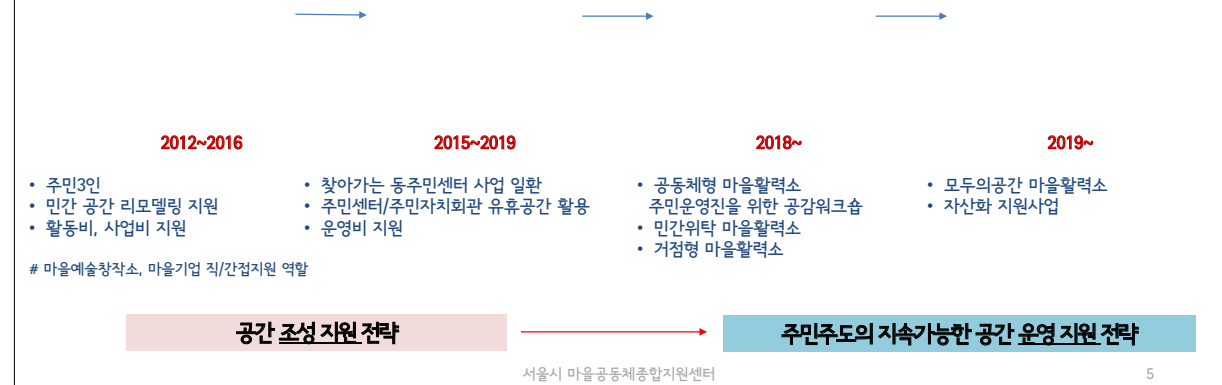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지영

마을에서 시도하는
자산화는 무엇일까?

자산화의 정의와 유형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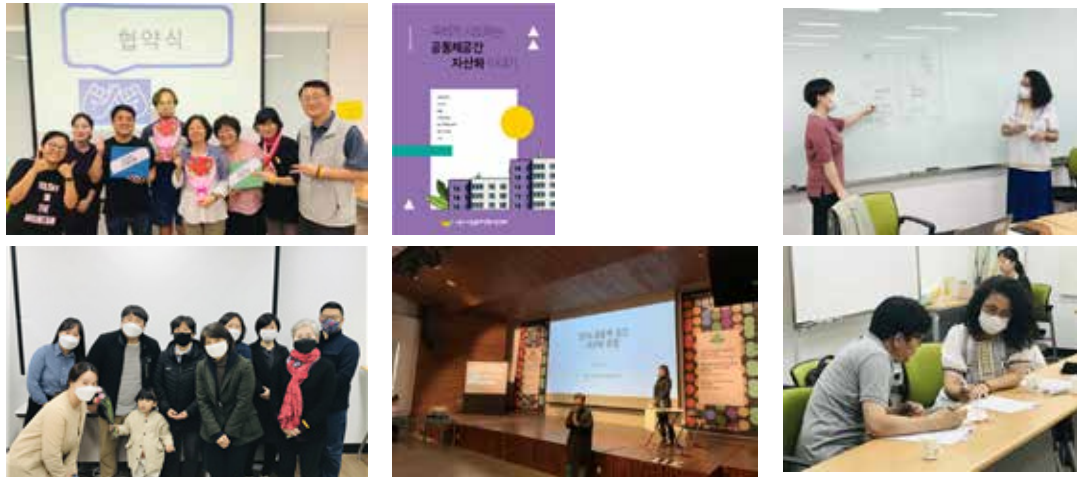


서울의 마을공동체는 왜 자산화를 고민하게 되었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산화 지원사업

1. 공모사업 : 맞춤형 지원
 - 마을 공동체공간 자산화 실행단계 · 계획단계 주민단체 지원(활동비, 컨설팅비 등)
 - 제안자격 : 자체 자산화 계획 또는 추진단위가 있는 주민단체
2. 현장 주체 간담회
 - 현장의 자산화 이슈와 수요 파악, 확대 간담회
3. 상시 상담 : 자산화 오픈상담실
 - 기초상담, 전문가 참여간담회(2020)
4. 포럼 및 공론장
 - 자산화 지원성과 공유, 정책 및 이슈포럼(2018~2020)
5. 자산화 자료집
 - 『우리가 시도하는 마을공동체공간 자산화 이야기』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산화 지원사업



7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례

2.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삼십육점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

- '16년 우리동네나무그늘 명도소송 / '18년 나눔과미래 리커머닝프로젝트 / (주)더커먼즈 설립
- 출자 콘서트, 모금전략 수립, 크라우드 펀딩(오마이컴퍼니 : 사회경제적 중심의 크라우드펀딩)
-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소액, 펀딩, 시민주주 등), 감각적인 캠페인
- 행안부 지역자산화 / 서울시 민간자산 클러스터 지원사업 선정(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9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례

1.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아이쿱, 빵과그림책협동조합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강서나눔돌봄센터)

- 마을과 만난 노동 / '14년부터 공유공간 운영 / 실제 공간 운영의 여러 경험과 신뢰
- 공간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수지구조 / 참여단체 3곳 (+2)이 자산화 시드머니 약정
- '19년 3월 자산화 추진위 구성 / 의사결정과 추진의 실행력 높음 / 구성원 및 임원진 참여 활발



자산화 맞춤형 지원 사례

3. 용산구 더커먼즈0099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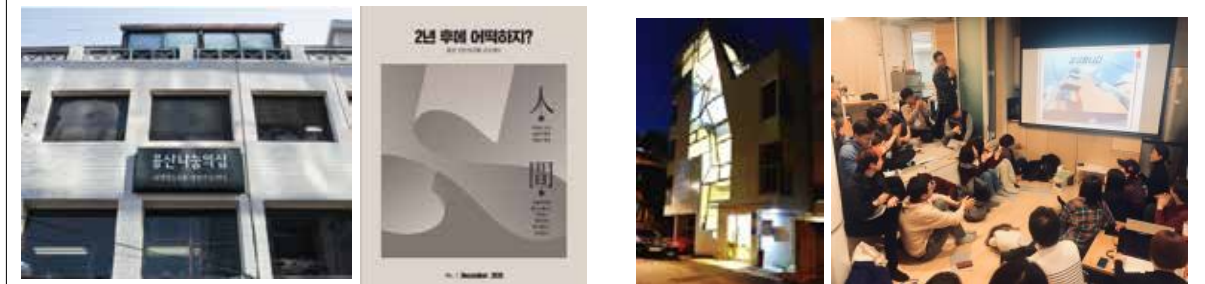
(용산나눔의집, 인사랑케어, 마을기록단 + α)

- 지역에서 ‘더불어사는 삶’을 위한 공간 자산화
- “마을이 돌봄”(가칭)

4. 마포구 함께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협동조합, 마포희망나눔)

- 사회주택과 마을공동체공간 자산화
- 인내자본으로서 정책기금 개선 방안 모색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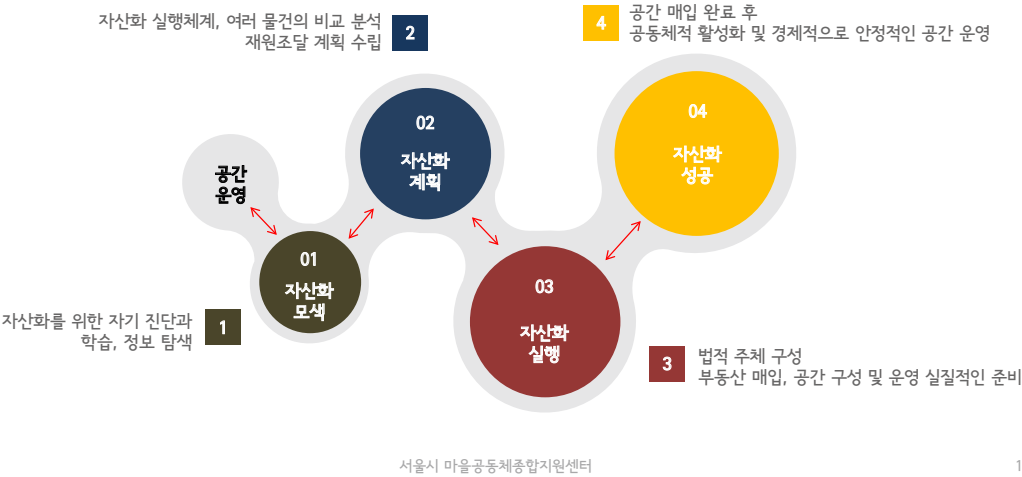
마을의 공동체공간 자산화 프로세스와 질문들

자산화 고려요소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3

자산화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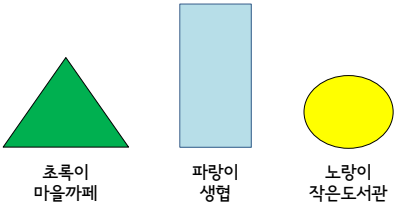
12

	모색	계획 수립	전략 실행	성공
조직	•자산화를 통해지키고자하는 가치와비전 •단체의 법적 형태 확인 •자산화를 추진할 주체 범위 구상 -> 자산 매입과 소유 구조, 운영 주체 구상	•자산화 실행 체계 만들기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 검토 •법인 형태별 검토와 내부 속의 -> 자산화 추진, 매입, 공간 운영 주체 충분한 법적 검토와 내부 속의	•법인 설립을 위한 내부 합의(법인 유형, 정관 운영규정 등) •법인 설립(신청, 심사, 인허가 등) -> 금융, 부동산의 법적 주체 구성	•매입한 자산의 법적 책임과 권리 주체이자 공동체공간의 운영자로서 활동, 운영 ->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노력
자원	•자기자본 및 조달가능 자원 확인 •단체·공간의 운영구조, 수지 분석 -> 대략의 자산화 규모, 자기진단	•자원조달계획 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성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작성 •자산화 추진 비용 추산 •투자제안서(IR) 작성 및 상담 -> 자산화 추진과정과 매입, 매입 후 운영을 위한 경제적 분석과 계획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 수립, 보완 •수지분석 및 추정재무제표 보완 •투용자 심사 및 조달처와 금액 확정 •일정별 자금조달계획표 작성 -> 매입, 이후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확보와 운용 준비	•물건 계약 및 매입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지출 관리와 상환 -> 10년 내 원리금 상환 또는 자금조달처 다변화
공간	•자산화 필요성 확인 및 선택 •소유형 또는 관리형 자산화 검토 •자산화 공간의 조건 생각해보기 -> 자산화방식, 공간의 상에 대해 함께 그려보기	•자산화 공간 조건 재확인과 속의 •지역 내 적절한 물건 탐색 •각 후보물건의 조건 분석 및 구상안 비교 -> 매입을 위한 부동산, 건축적 검토와 매입 물건 선정	•매입 물건 확정, 사업 일정 구체화 •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공간 개발방식, 설계 및 시공계획 -> 구체적인 장소,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간의 매입, 구성, 운영 준비	•공간 만들기(시공 및 내부 집기 배치) 및 시범운영 •사업과 공동체활동을 고려한 시설 유지 관리 -> 공간 활성화, 수익 유지와 자산가치 고려한 운영, 관리

자산화 모색단계

“우리가 지금까지 낸 월세랑 보증금만 해도 건물을 샀겠다.”

모양도 크기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함께
건물을 사고
운영할 수 있을까?



자산화 모색_자원

1 Key
: 대략의 자산화 규모, 자기진단

조직

자기자본 및 조달가능 자원 확인

- 보증금, 월세, 채무 등
- 조달가능한 내외부의 자원 확인(현금, 현물, 인력 등)

자원

단체·공간의 운영구조, 수지 분석

- 단체·공간의 수입과 지출 구조와 금액 분석
- 수입 : 출자금, 정기·일사회비, 기부금, 보조금, 수익사업 등
- 지출 : 임대료, 공과금, 사업운영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

공간

01
자산화
모색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7

자산화 모색_공간과 부동산

1 Key
: 매입할 공간의 조건과 상

조직

자산화 필요성 확인 및 선택

- 현재 공간의 불안정성(임대료 상승세, 재계약 여부 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자산화 선택

자원

소유형 또는 관리형 자산화 검토

- 소유형 자산화 : 현장주체가 공간의 소유권, 처분권, 사용권을 모두 가짐
- 관리형 자산화 : 공유지(公有地) 민간위탁 또는 임대 등을 통해 사용권을 가짐 (예 : 성마산마을회관,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등)

공간

자산화 공간의 조건 생각해보기

- 단체의 활동 기반이 되는 지역적 범위, 위치, 커뮤니티의 특성...
- 건물 층수, 면적, 지하공간과 옥상 활용 여부, 엘리베이터, 주차장, 남녀분리 및 장애인 화장실...
- 대중교통 편의성, 주변 상권, 공동체활동과 수익사업 ...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이런 공간의 가격

01
자산화
모색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16

자산화 모색_조직

1 Key
: 자산에 대한 조직의 공동체적 비전과 가치, 자산 매입과 소유 구조, 운영 주체

조직

자산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

- 조직과 활동의 가치, 비전
- 공동의 자산, 안정적인 공간 확보의 목적과 목표 재점검

자원

단체의 법적 형태 확인

- 주민단체 또는 법인 /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 사회적경제조직 등

공간

자산화를 추진할 주체 범위 구상

- 단독 또는 연합단체
- 조직 간의 비전, 지역 내에서의 관계와 협업의 경험

01
자산화
모색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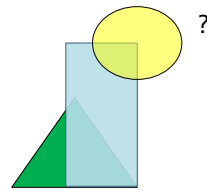
18

자산화 계획 수립 단계

“자산화를 같이 하자고 다함께 모였을 땐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다들 너무 바쁘고, 시간 내서 만나도 계속 몇달째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공동의 힘과 책임을 어떻게 모으고 나눌 수 있을까?



자산화 계획 수립_공간

2 Key
: 매입을 위한 부동산, 건축적 검토, 매입 물건 비교 분석

조직

자원

공간

자산화 공간 조건 재확인 및 숙의

- 연합단체로 추진하는 경우 각 단체 간 공간 조건과 운영안 논의
- 수익사업과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공간 조건
- 부동산 가격 범위와 탐색의 지역적 범위

지역 내 물건 탐색

- 앞서 설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물건 탐색
- 서류상의 정보 탐색, 방문하여 실제 물건의 위치와 현장감 확인

각 후보물건의 조건 분석 및 구상안 비교

- 3~4개의 후보물건 설정
- 가격, 물건의 구조, 연한, 접근성, 주변 커뮤니티와 상권, 매입 후 기존 세입자 이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보증금 등 조건 분석
- 후보물건에 대해 각 층 및 공간별 운영방안(공동체활동, 수익사업 등)구상
- 후보물건 간 순위를 매기고 그 결과에 대해 조직 안에서 숙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1

자산화 계획 수립_조직

2 Key
: 자산화 추진, 매입, 공간 운영의 법적주체로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내부 숙의

조직

자원

공간

자산화 실행 체계 만들기

- 자산화 추진 단위(의사결정, 실무) 구성
- 정기적인 논의와 숙의 구조(추진단위, 단체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과 숙의)
- 비용 설정(회의비, 전담 실무자 인건비, 사례 탐방, 교육, 컨설팅 등)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 검토

- 매입주체와 소유구조(합유, 구분소유, 별도법인 소유)
- 내부, 외부 자원조달 용이성
- 매입 이후 자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 권리관계 등 고려

법인 형태별 검토와 내부 숙의

- 조직의 가치와 활동에 적합한 법인격
- 법인형태별 자원조달(정책자금, 민간 금융상품),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 법인설립과 자산소유 절차, 세금 등 비용, 의결권 등 의사결정 구조
- 탈퇴 또는 해산시 자산 처분 등의 권리와 절차
- 단체 간 또는 단체 내부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과 내부 숙의

*영리법인(일반 협동조합(배당 허용), 주식회사 등)

*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사단·재단법인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

자산화 계획 수립_자원

2 Key
: 자산화 추진과정과 매입, 매입 후 운영을 위한 경제적 분석과 계획

조직

자원

공간

자원조달계획 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성

- 자원조달계획 수립(모금, 크라우드 펀딩, 대출, 투융자)
- 자산화를 위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비율 구성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작성

- 공동체활동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구조 고려 (출자금, 정가일시회비, 기부금, 보조금, 수익사업, 임대수입 등)

자산화추진 비용 추산

- 자산화 추진을 위한 실행비용(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수수료 등)
- 법인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수수료
- 물건 매입 및 가계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 수수료 등)
- 공간 구성비(설계비, 사공비, 집기류 설치)
- 금융비용(매입 후 공사기간 및 시범운영기간거치, 원리금상환기)
-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마케팅 및 홍보비용 등

투자제안서(서) 작성 및 상담: 자금의 성격 및 투융자기관, 조건 고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2

자산화 전략 실행 단계

“준비를 위한 검토와 숙의는 충분해.
이제 결정하고 실행할 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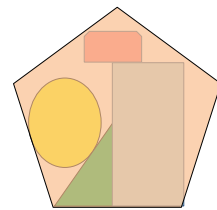
우리의 가치와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예)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소유와 운영을 위한 고민은 정관과 규정으로 잘 담자.

학교 옆 문구점이 있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진행하자.

마을과 지역사회에 자산화의 노력을 알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00기금, 00실험의 대출심사를 통해
매입비, 시공비, 운전자금 등 각종 비용의
자금조달표를 만들자.”

이제 진짜 부딪혀 보자.
법인, 자금, 부동산!



!

자산화 전략 실행_자원

Key
3 : 매입, 이후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확보와 운용 준비

조직

자원

공간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모금 또는 투융자 심사

- 출자금, 모금, 기부캠페인, 크라우드 펀딩 등 실행
- 정책자금, 민간자조자금, 실험 등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팩트 투자 심사
- 원활한 조달을 위해 앞단계의 분석 및 계획의 보완 필요할 수 있음

자금조달계획표 작성

- 자금 조달 정도와 투융자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산화 비용과 각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조달처와 금액, 일정 계획 수립

매입 이후 사업운영 계획

- 매입~본운영기까지 월별 프로세스, 투입 인력,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 등 계획
-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운영 계획, 건물의 하자과 개선사항 발견 및 보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5

자산화 전략 실행_조직, 공간과 부동산

Key
3 : 금융, 부동산의 법적 주체 구성 / 구체적인 장소,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간의 매입, 운영 준비

조직

자원

공간

법인 설립을 위한 내부 합의와 설립

- 법인 유형, 소유구조, 의사결정 구조와 정관, 운영규정 등
- 법인 설립(신청, 심사, 인허가 등)

매입 물건 확정, 사업 일정 구체화

- 계약을 위한 건물주, 중개인 등과 소통
- 매입비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일정 확인

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공동체활동, 수익사업(자체 비즈니스 또는 임대 수익)
- 시설 유지관리 계획(관리규정, 인력, 비용 등)

공간 개발방식과 설계 및 시공계획

- 공간개발 방식 결정(신축, 리모델링 등)
- 설계(참여디자인)와 시공계획 수립 및 사업일정 구체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4

자산화 성공 단계

“드디어 계약이다!” 우리... 잘 할 수 있겠지?
적어도 이자 낼 만큼은 벌 수 있겠지?
이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날 수 있을거야.”

행복한 상상.
함께의 힘으로
우리가 건물주 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6

3
화
행

04
자산화
성공

4
Key
: 매입이 끝이 아니다. 마을의 삶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점공간이자 자산으로 남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조직

자산화

공간

- 매입한 자산의 법적 책임과 권리주체이자 공동체공간의 운영자로서 활동, 운영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노력

- 공간 매입과 구성을 위한 각종 비용 지불 및 납부
-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지출 관리와 상환
-> 10년 내 원리금 상환 또는 자금조달처 다변화

- 공간 만들기(시공 및 내부 집기 배치) 및 운영
- 사업과 공동체활동을 고려한 시설 유지 관리
-> 공간 활성화, 수익 유지와 자산가치 고려한 운영, 관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7

4
Key
: 매입이 끝이 아니다. 마을의 삶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점공간이자 자산으로 남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조직

자산화

공간

- 매입한 자산의 법적 책임과 권리주체이자 공동체공간의 운영자로서 활동, 운영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노력

- 공간 매입과 구성을 위한 각종 비용 지불 및 납부
-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지출 관리와 상환
-> 10년 내 원리금 상환 또는 자금조달처 다변화

- 공간 만들기(시공 및 내부 집기 배치) 및 운영
- 사업과 공동체활동을 고려한 시설 유지 관리
-> 공간 활성화, 수익 유지와 자산가치 고려한 운영, 관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9

- 상시상담을 통해 현장 수요와 이슈 파악
- 마을현장 주체의 당사자성을 존중하며 자산화 추진 지원
- 자산화 고려요소 및 프로세스 개발
- 다양한 단계의 자산화 주체 네트워킹 및 피어 컨설팅
- 자산화 자문단을 통해 전문가 풀 구축
- 현장 맞춤형 자산화 정책 제안 및 공론장 운영

- 실제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의 다각화, 충분한 사업 기간, 지원 연속성 필요
- 공공재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계획 및 정보 공개 필요
- 자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기금 마련 필요

성과와 과제

98

99

CHAPTER 4

세션 2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 체계 만들기

- 로컬푸드 시스템 : 내 집 텃밭에서 생물지역까지 | 데이비드 홀름그렌
- 도시농업으로 행복도시 만들기 | 서울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은수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홍명희

세션 2

모두를 위한 먹거리 순환 체계 만들기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 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4:00~14:0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4:02~14:30 (28')	발제 1	로컬푸드 시스템 : 내 집 텃밭에서 생물지역까지 데이비드 홀름그렌 호주 영속농업 디자이너
14:30~14:50 (20')	발제 2	도시농업으로 행복도시 만들기 이 은 수 서울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14:50~15:10 (20')	발제 3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홍 명 희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사무국장
15:10~15:50 (40')	자유토론	퍼머컬처를 통한 지역 먹거리 체계의 실천과제 황 영 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적당히 벌어서 먹고 나누며 행복한 지역살이를 꿈꾸며! 박 현 정 서쪽숲에 네발요정이 내린 커피 대표 진주지역 공동체지원농업(CSA) 활동사례 소 희 주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이사장 전주시에 도시농업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심자 김 중 기 전주시농정총괄자문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로의 변화 김 아 영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회장
15:50~16:00 (10')	결과공유	결과공유

사회 및 좌장 | 한 동 승 전주대 교수

로컬푸드 시스템 : 내 집 텃밭에서 생물지역까지

David Holmgren 데이비드 홀름그렌

로컬푸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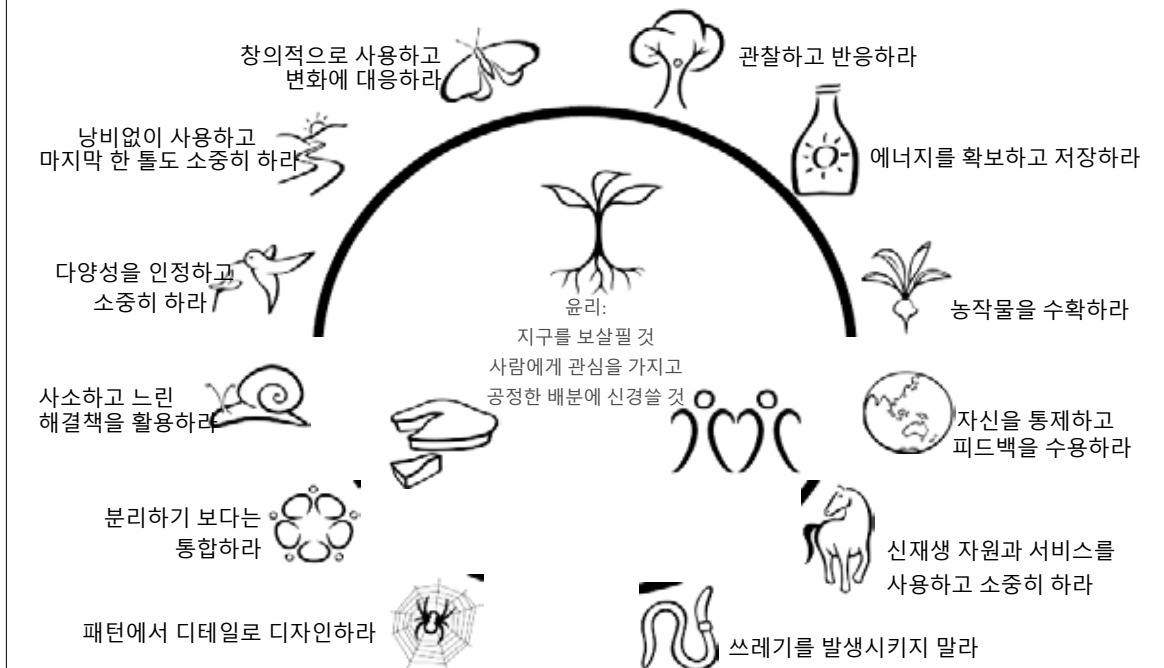
내 집 텃밭에서 생물지역까지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
2020년 9월, 전주시

데이비드 홀름그렌
영속농업 공동창시자

4/8/20 © 2007 2006 www.holmgren.com.au

영속농업의 윤리 및 설계 원칙



주류의 지속가능성과 비교한

영속농업, 변혁 그리고 RetroSuburbia



	영속농업, 변혁 그리고 RetroSuburbia	주류의 지속가능성
미래에 대한 관점	에너지 사용 감소와 역성장	기술적 안정성
목표	리질리언스 강화	충격의 최소화
전략	풀뿌리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평행시스템의 재건	기존 세계화된 시스템의 상위하달식 재건
과정	자체적 구성, 현실적, 문화적, 정신적	정책, 계획, 경제
주안점	생물적인 행동방식의 시스템	환경과 기술

영속농업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삶과 토지사용을 위한 설계시스템 and landuse

보편적 윤리와 설계 원칙에 기초한 universal ethics and principles

활동가, 설계자 및 유관기관들의 국제적 풀뿌리 운동 international movement of designers and organisations

환경적,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활동 & social crisis

www.holmgren.com.au

식품 안보, 건강, 보존을 위한 텃밭 경작



Meliiodora의 화단 경작



텃밭의 채소, 온실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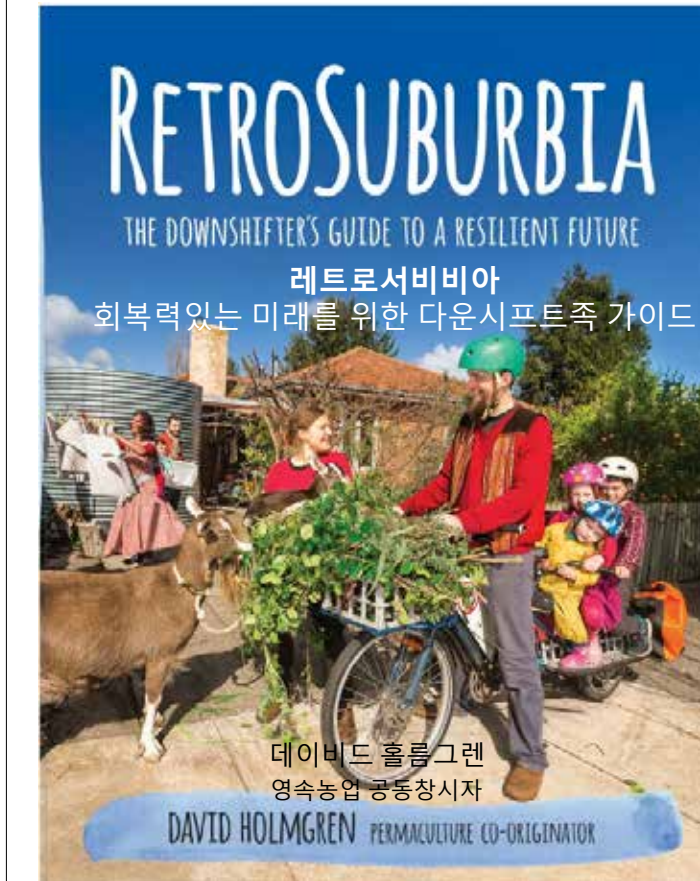
배 수확



감자: 텃밭의 주요 작물

© 2007 www.holmgren.com.au

5



레트로서비비아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다운시프트족 가이드

데이비드 홀름그렌
영속농업 공동창시자

DAVID HOLMGREN PERMACULTURE CO-ORIGINATOR



BUILT FIELD

건축



BIOLOGICAL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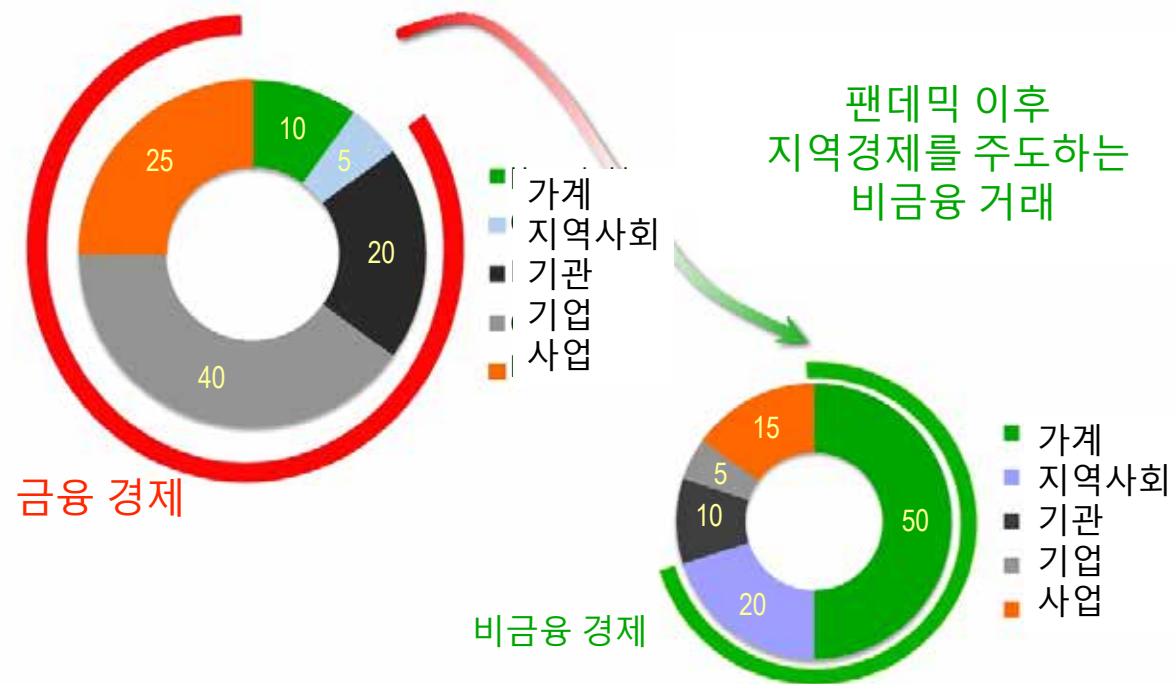
생물



BEHAVIOURAL FIELD

행동방식

팬데믹 이전의 세계경제를 주도한 금융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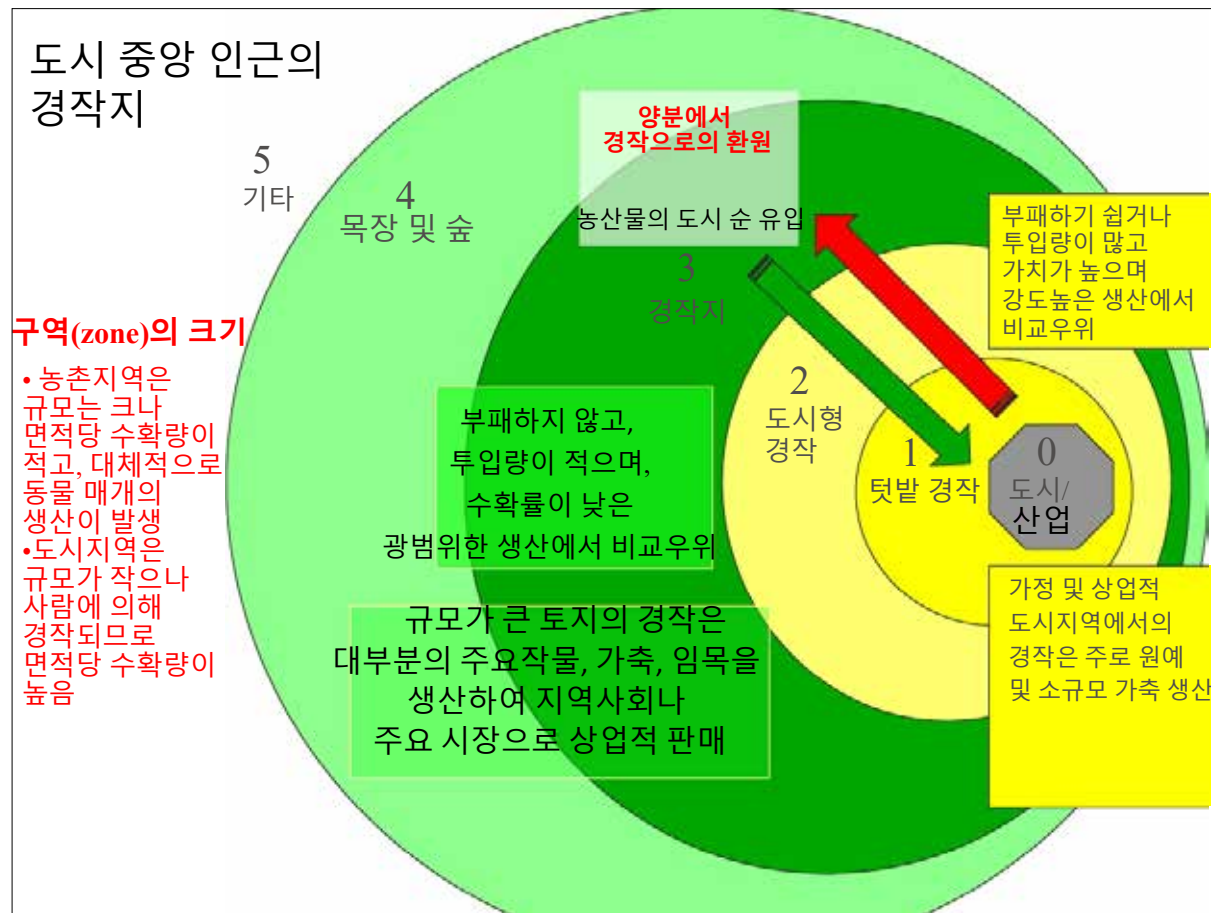


© 2014 www.holmgren.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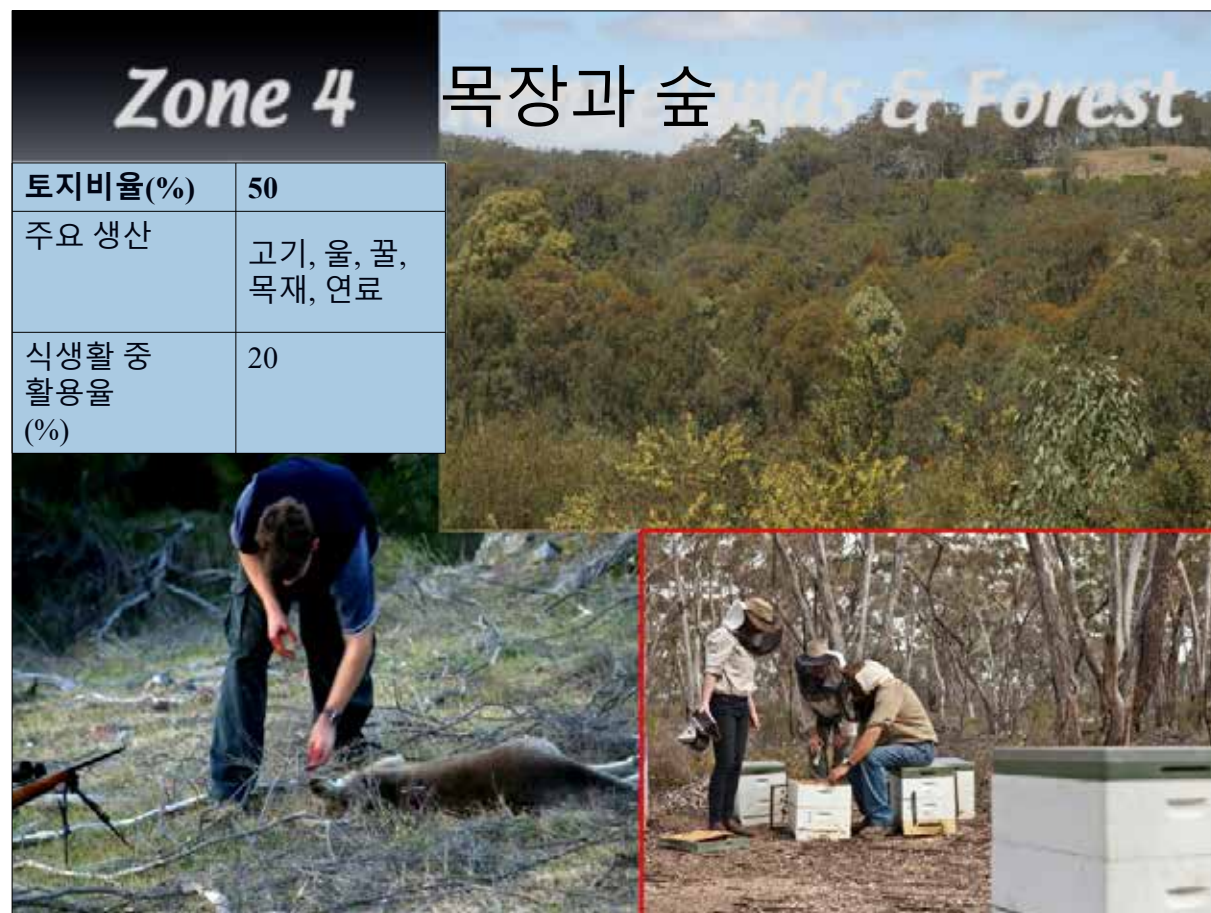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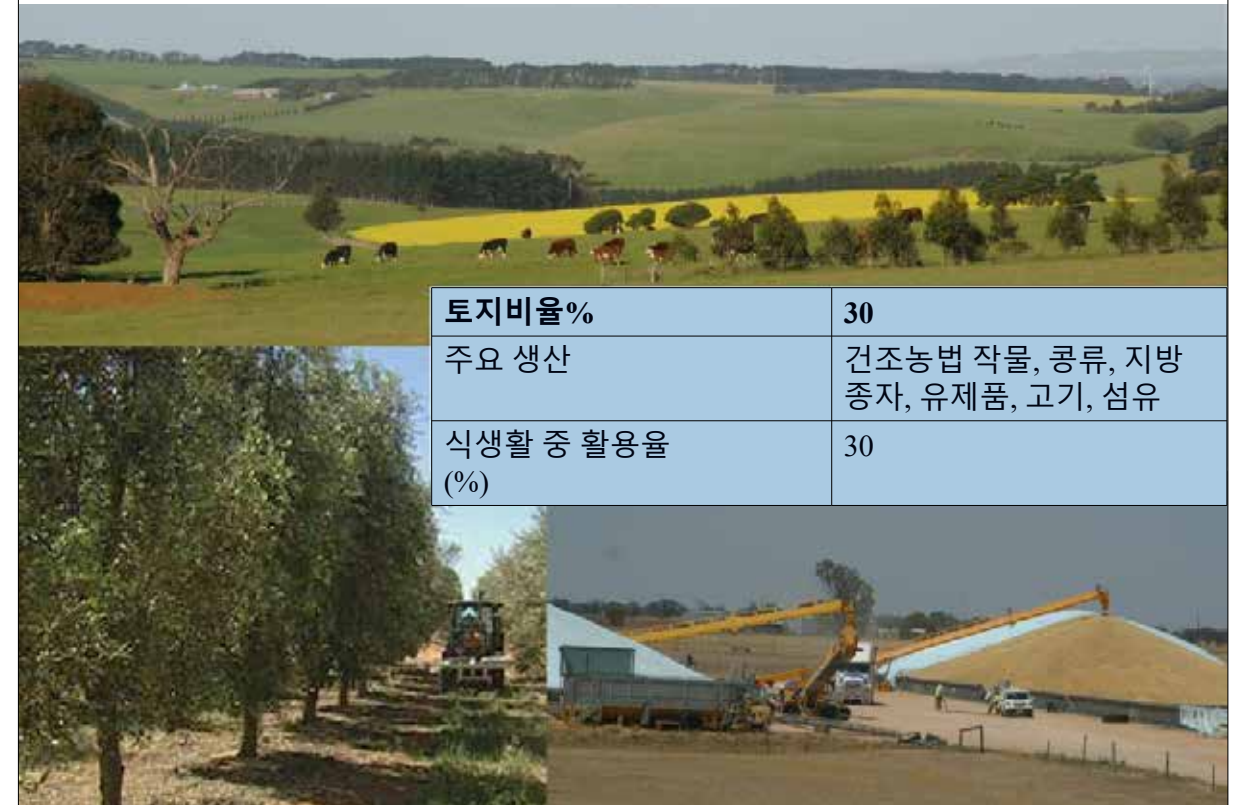
6

왜 교외지역인가?





Zone 3 농촌의 농업



Zone 2 도시형 농업



Zone 1 텃밭 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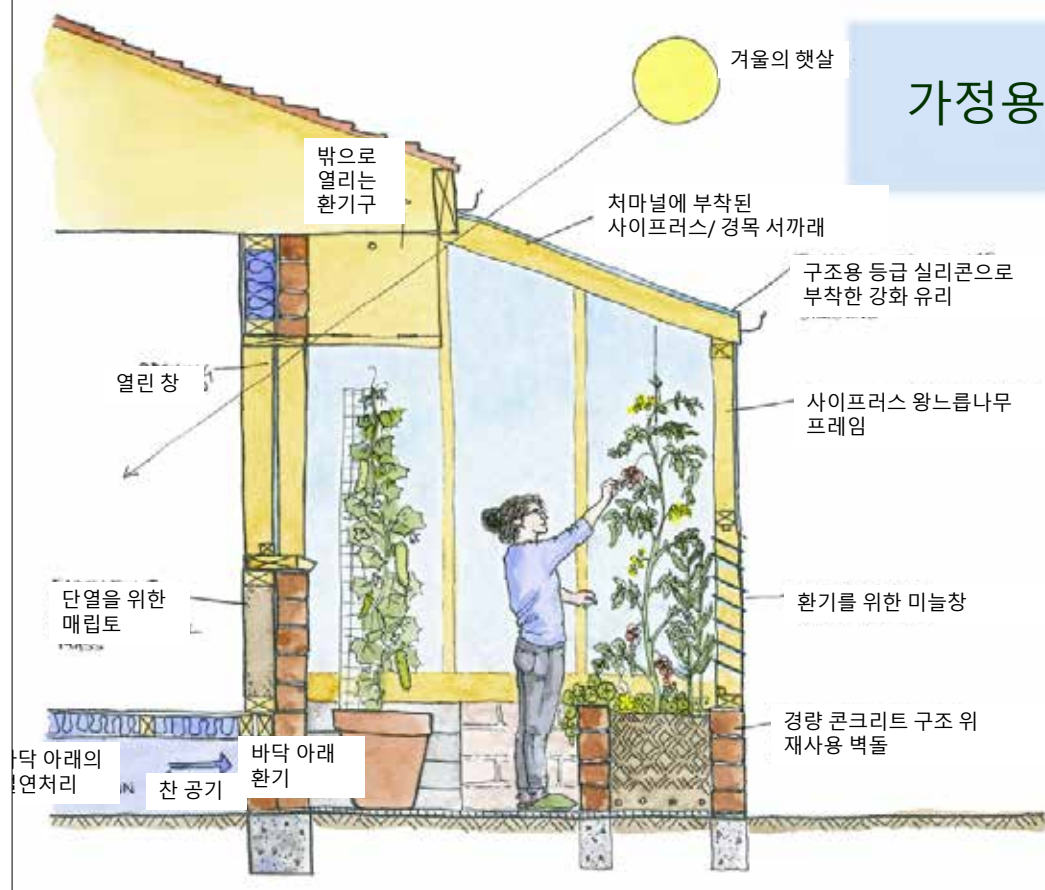
토지비율%	5
주요 생산	채소, 과일, 알류, 고기
식생활 중 활용율 (%)	20



‘The Plummery’ 멜버른 부지 271m² / 텃밭 115m²



가정용 온실



Zone 0 도시 및 산업지구

토지비율%	2
주요 생산	버섯, 생선, 채소/새싹, 유산균
식생활 중 활용율 (%)	10



도시형 숲:장애요인과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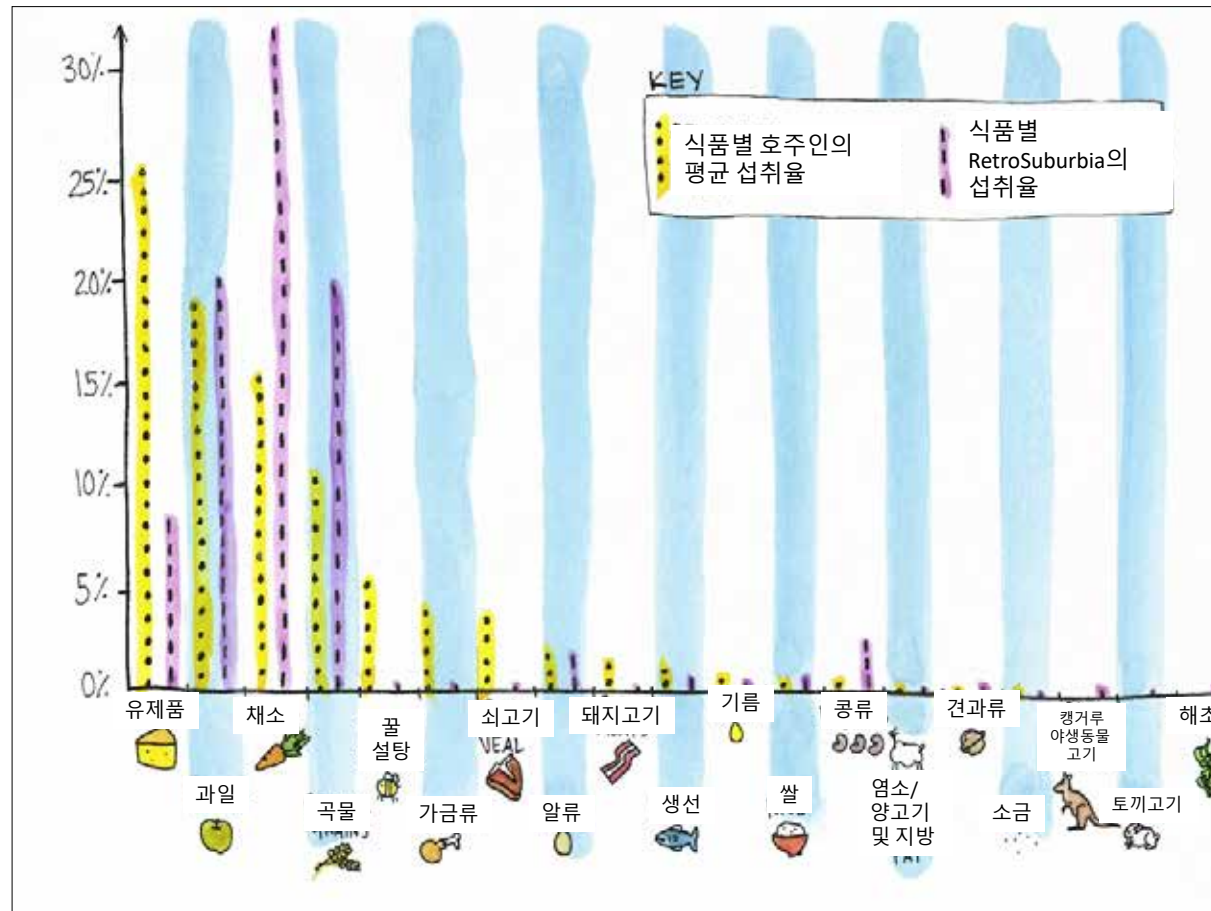


미래의 경작 지역

지역	규모 (%)	전형적인 생산품	섭취율 (%)
0.도시형	2	생선, 녹색채소, 새싹, 버섯, 유산균	10
1.텃밭 경작	5	채소, 과일, 알류, 고기, 꿀	20
2.도시형 경작	5	주요 작물, 유제품, 알류	20
3.농촌형 경작	30	건조농법 수확곡물, 콩류, 유지종자, 견과류, 임목, 유제품, 고기, 섬유	30
4.목장&숲	58	고기, 꿀, 약초 (+ 통나무, 연료, 울)	20

RetroSuburbia 방식의 식사





자료 출처



www.holmgren.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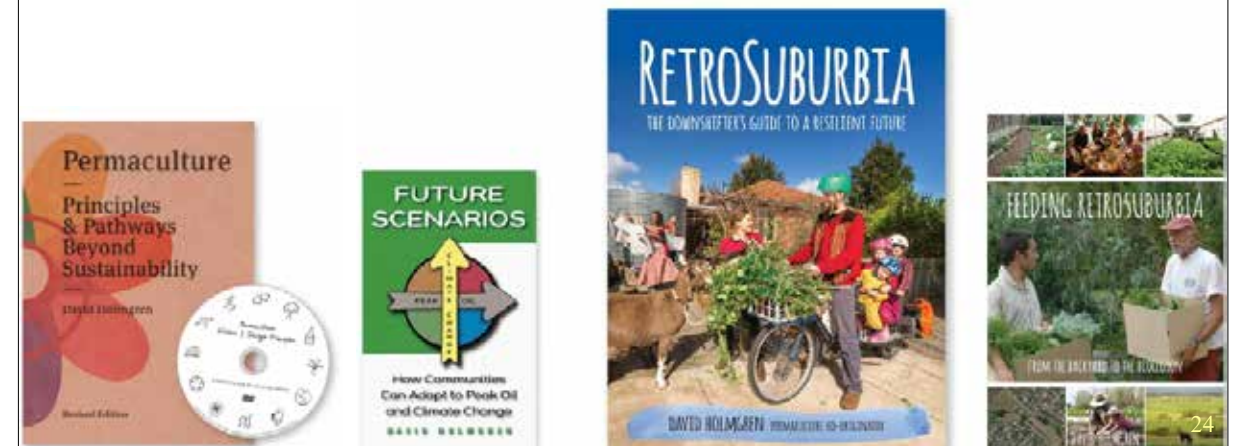
www.retrosuburbia.com

영속농업 : 지속가능성 이상의 원칙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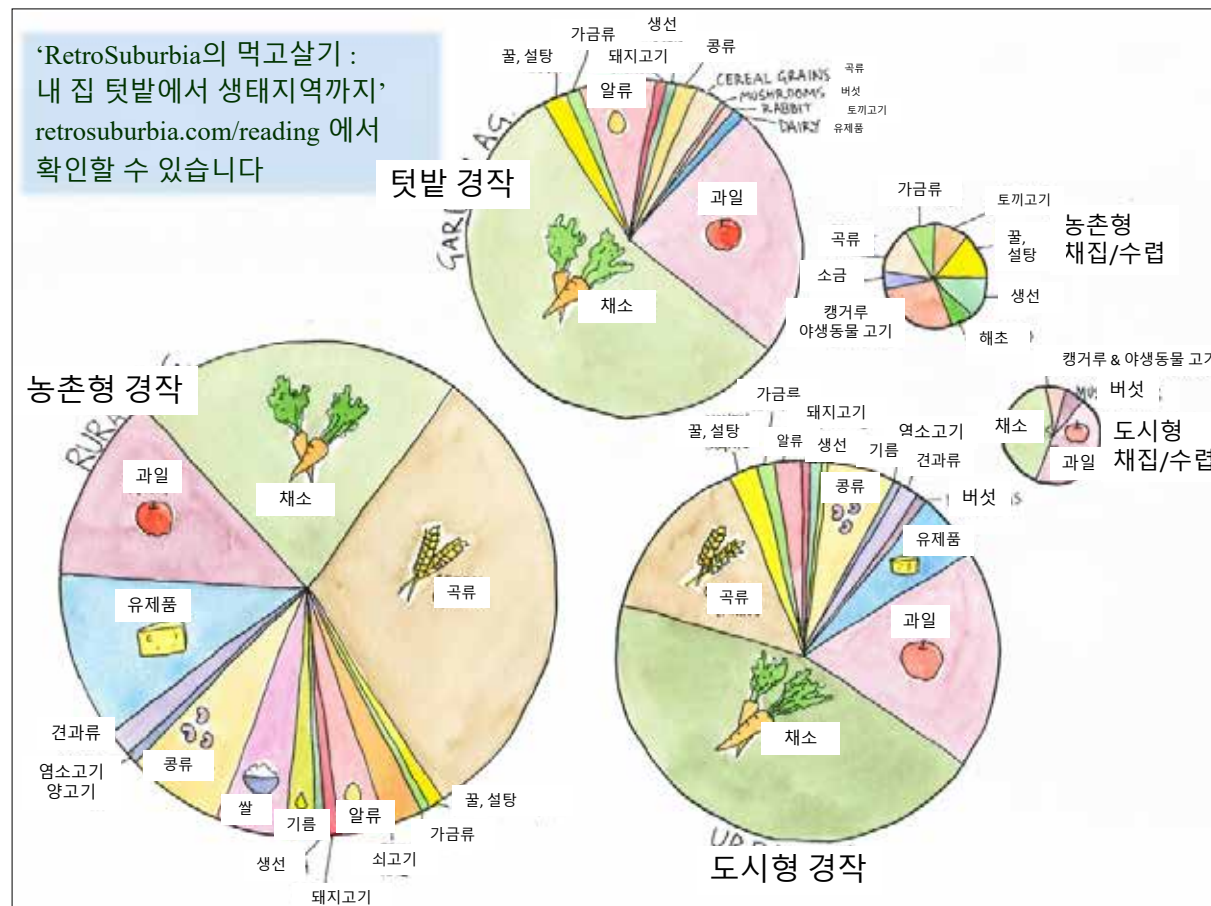
미래 시나리오 : 지역사회가 석유생산 정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

RetroSuburbia: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한 다운시프트족 가이드

RetroSuburbia의 먹고살기 : 내 집 텃밭에서 생태지역까지



‘RetroSuburbia의 먹고살기 : 내 집 텃밭에서 생태지역까지’
retrosuburbia.com/readin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으로 행복도시 만들기

서울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은수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도시농업으로 행복도시 만들기

지평 이은수
010-9057-4668
lafine777@hanmail.net



목 차

- 1 행복의 경제학 도시농업 배경
- 2 도시농업의 핵심내용
- 3 도시농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 4 도시농업 활동사례
- 5 도시농업 정책제안

1. 도시농업 배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토지, 벽면, 베란다, 옥상, 하늘, 지하)

농업의 다원적 가치실현
(환경, 생태보전, 전통문화, 먹거리)



1. 도시농업 배경



도시농부 특징

생활 속의 환경운동가

전업농이 아닌 여가생활자

흙을 살리는 전도사

먹거리 생산자

풀 뿌리 모임의 주최자

나눔을 실천



텃밭 가꾸기, 원예, 조경, 양봉, 곤충등 도시를 경작하는 행위자

2. 도시농업의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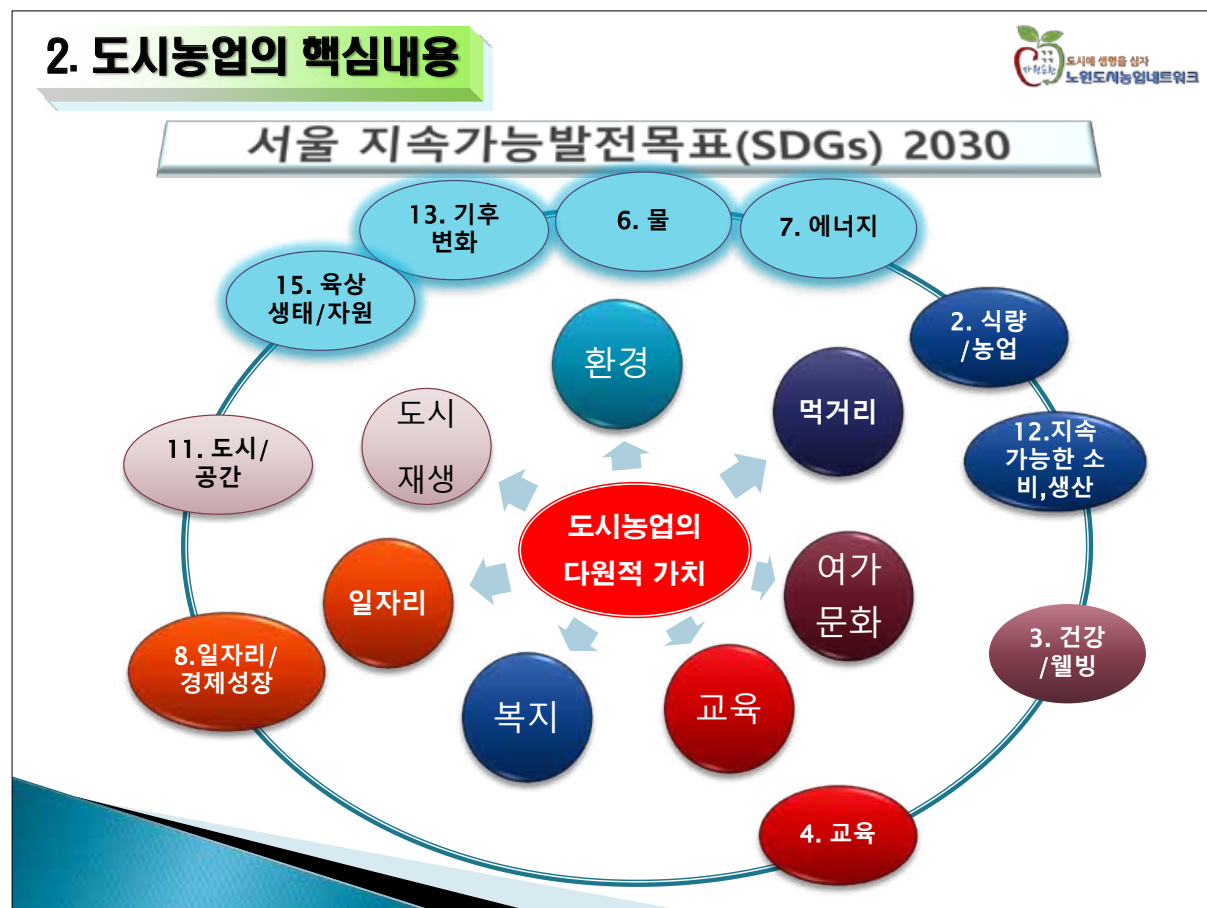
도시에 생명을 심자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세대들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발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를 공생과 협력의 관계로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며, 물량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 물질보다 인간 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누리며,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며, 자원의 사용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포용적인 발전을 지향한다



3. 도시농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도시에 생명을 심자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부 선언문

대도시를 중심으로 온 나라에 퍼지는 도시농업은 사람들의 경작본능을 일깨우며 확산되고 있다.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도시농부들은 도시농업운동의 출발에서부터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시농부는

- 화석의 콘크리트와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
-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텃밭을 만들어 간다.
- 버려지는 유기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 빗물의 이용,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한다.
- 꿀벌을 기르며, 풀과 곤충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의 미래를 일꾼다.
- 텃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농부학교를 통해 시민교육의 장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도시농부들의 실험과 도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 텃밭은

- 문화적, 사회적, 세대 간 다양성을 담고 이웃이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 자연체험,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 토종종자 보존의 공간이다.
- 도시와 농촌 농업을 잇는 다리이다.
- 자연과 공생하는 인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공정한 가격,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준다.
- 환경교육, 공동학습, 교환, 공유의 장소이며,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더 많은 공동체 텃밭, 더 많은 경작 공간, 더 많은 도시농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자라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가 밝으며, 인류의 근본인 먹거리와 농(農)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희망의 씨앗인 이 텃밭들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도시가 우리의 텃밭이다
도시를 경작하라**

몇년간의 논의해 시민단체들이 완성

3. 도시농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도시에 생명을 심자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지구를 살리는 도시농부 행동

생태적 순환의 회복을 위해 자가 퇴비 만들기를 실천 하십시오. 도시에는 버려지는 유기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발효시켜 흙으로 돌려주세요.

에너지 고투입, 자본 중심의 도시농업을 반대합니다. 흙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도시농업은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식물공장과 그 변종형태의 스마트 팜이 도시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실현해 갑시다. 친환경 방제, 토양관리, 농기구 등 도시농업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공유, 확산하도록 합니다.

생물종다양성을 갖는 텃밭을 가꾸어 갑시다. 토종, 꿀벌, 허브, 꽃이 어우러지는 텃밭을 만들어 갑시다.

텃밭을 공유공간으로 이웃이 함께하는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유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유 공간으로 이웃과 공동체화 함께 갑시다.

도시농업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을 줄입니다. 플라스틱 상자, 텃밭, 비닐 멀칭 각종 농자재를 자연물을 활용한 재료로 대체해 나 갑시다.

관정에 의한 지하수와 수돗물의 사용을 줄이고 빗물을 이용합니다. 지하수와 물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빗물을 적극 이용하여 물을 아끼도록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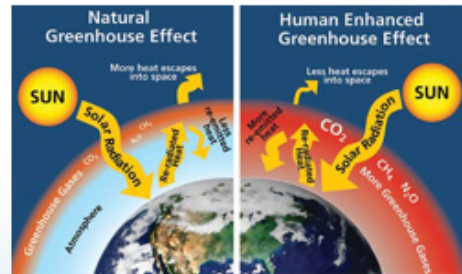
생태적 순환의 회복을 위해 자가 퇴비 만들기를 실천 하십시오. 도시에는 버려지는 유기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발효시켜 흙으로 돌려주세요.

4. 도시농업 활동사례 [녹색커튼]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발생

- 덩굴식물 4m 성장시 1㎡ 나무가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함



온실효과에 대한 설명



학교에 설치된 녹색커튼

CO_2 흡수 (3.5kg) X 그린 커튼 면적 (m²) = 연간 CO_2 흡수량

도심 학교 2개반 면적 4층에 녹색커튼을 심으면 폭 18m x 높이 14m = 252㎡의 면적이 생기고 위 식에 따라 882kg의 CO_2 를 흡수하게 된다.

4. 도시농업 활동사례 [빗물활용]



빗물 문화운동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

“빗물은 자원이다”를 실천하며 빗물을 심고(점투), 모으고, 활용하는 시민문화운동



4. 도시농업 활동사례 [파이프 팜]



[파이프 팜] pvc파이프에 홈을 파고 양면을 막아 화분을 거치하는 방식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 벽면 사례

4. 도시농업 활동사례 [유기성 폐자원활용]



아파트 유휴공간에 텃밭정원(커뮤니티가든) 조성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소멸장치로 8~90% 감량하고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 + 빗물(20톤)받아 텃밭정원에서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 진행



음식폐기물은 2상 복합 바이오처리 장치에는 반응조로 투입하게 되고, 반응조 내에 목질바이오칩과 혼합되고 투입 후 발효반응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24시간 이내 90%이상 무게감량이 이루어진다. 약 7~10일 후에 반응조가 차 올라오면 누적 투입된 음식폐기물과 목질바이오칩의 혼합물은 숙성조로 넘기게 되고 여기서 4~5일간 혼합되며 숙성이 이루어지고 부숙이 완료된 퇴비로 생산되게 된다.

4. 도시농업 활동사례 [유기성 폐자원활용]



아파트 유휴공간에 텃밭정원(커뮤니티가든) 조성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소멸장치로 8~90% 감량하고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 +
빗물(20톤)받아 텃밭정원에서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 진행

<변동주공3단지 '자원 순환형 생태환경 텃밭학교' 사례>

대상지 : 강북구 변동주공3단지(1,292세대)중 개별30구획+공동체텃밭 혼용
목적 : **빗물, 음식물 퇴비**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생태텃밭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거 커뮤니티를 형성

▶ (빗물 활용) 도시농업에 필요한 급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하되,
설치비용은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2,000만원 범위에서 설치비용 90% 지원)

▶ (음식물퇴비 활용)음식물퇴비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활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와 퇴비 공급의 문제를 동시 해결

신개념의 자원 순환형 생태텃밭

5. 도시농업 정책제안



도시농부 양성

도시농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는 건강한 시민양성이 필요함
도시농부학교, 전문가과정, 도시농업관리사로 발전시켜 시민활동가 자원 확보

공원, 숲 활용

야산이나 공원,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지 않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약용식물, 허브활용으로 도시농업 영역확대

지붕, 벽면 활용

넝쿨식물을 이용해 벽면과 지붕을 덮어 도심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줄이는 녹색커튼 확대

텃밭정원 확대

채소중심의 텃밭을 벗어나 꽃과 나무, 채소가 어울리는 텃밭정원(커뮤니티
가든)으로 개별경작과 공동경작을 혼합해 공동체활동 교육을 진행

자원순환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자체 감량(80~90%) 하는 발효, 소멸장치로 부
산물 퇴비활용해 텃밭정원을 가꾸고 먹거리 생산하는 자원순환모델 제안

4. 도시농업 활동사례 [일자리창출]



2019년 천수텃밭 연못활용 “아쿠아포닉스” 도입
버섯 폐배지 ➡ 곤충먹이 ➡ 곤충 분변토 ➡
지렁이, 동애등애 사육 ➡ 물고기 먹이 ➡
물고기 똥 ➡ 채소거름 (자원순환 스토리텔링)
즐거고, 재미있고, 가치있는 “FUN한 도시농업”

2020년 “도시농업 숲에서 길을 찾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
미세먼지, 도심 열섬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가 “도시농업관리사”
나만의 주특기를 찾아 특화시켜야 한다

도시농업으로 일자리 창출

천수텃밭을 세계적인 도시농업 체험장으로 육성
노원구의 도시농업 관련시설을 결합시켜 투어코스 개발



도시농업을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

“도시에 생명을 심자”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덮힌 구조물(도시)
꽃과 나무, 풀을 심고 가꾸 생명을 살리는 운동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홍명희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운동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홍명희 사무국장
kcfm063@hanmail.net

목 차

- 1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 배경
- 3 도 · 농 생명공동체의 목표 및 기대효과
- 2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핵심내용
- 4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 5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정책제안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1.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 배경

농업의 세계화 (교통의 발달, 이동속도 빠름)

지역농업의 붕괴

(값싼 수입농산물 유입, 농민들의 생계유지 어려움, 농가부채 증가, 젊은층 영농기피, 농민들의 노령화, 여성 고령농민 위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먹거리

(다량의 농약, 비료, 성장호르몬, 방부제, 유전자조작 농산물-식품안전 위협)

생태위기 심각

(코로나-19등의 바이러스-팬데믹,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위기,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인과율을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을 증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박 신화

행복의 가치

(만족 없는 무한욕망 추구, 남의 기준에 의한 비교우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 ▶ 국경 봉쇄 세계식량 공급망 위험요인 증대
(식량공급망 차질, 수입원자재 이동 제한, 외국인 농업노동자 감소, 자급률이 낮은 식량확보의 취약성)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시급
("1.5℃"와 "탈탄소")
- ▶ 행복의 가치 변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 남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 보람을 느끼는 일, 개성 극대화, 적절한 삶)
- ▶ 산업의 변화 (완판의 시대, 다품목 소량의 꾸준한 소비, 전문성)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1.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 배경

공동체적 삶 지향

- 가톨릭농민회
- 우리농 생활공동체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하는 운동

- 생명농업 실천 :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나와 자연과 하나되는 농사, 지역생태계를 살리고, 공동체적으로 협동하는 농업
- 도시생활자와 함께 하는 농업, 도농 공동체 운동

범국민적으로 함께 하는 운동

- 교회운동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 생활공동체
- 국내외 민중세력들과 연대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세계 교회와 협력

자립적이고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각국의 고유한 농업이 다양하게 공존
- 식량, 에너지, 종자, 문화주권을 바로 세워 보전

“안”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협동,
생명의 특성(다양성,
순환성, 관계성) 증대

“밖” -생명을 해치는
일체의 요소들과
치열하게 대결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2.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핵심내용

도 · 농 생명공동체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연대와 공생을 위한 도 · 농 공동체운동이다. 농민과 도시생활자가 연대와 책임을 통해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자연생태위기를 극복하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농업과 밥상살림을 지킴으로써 생명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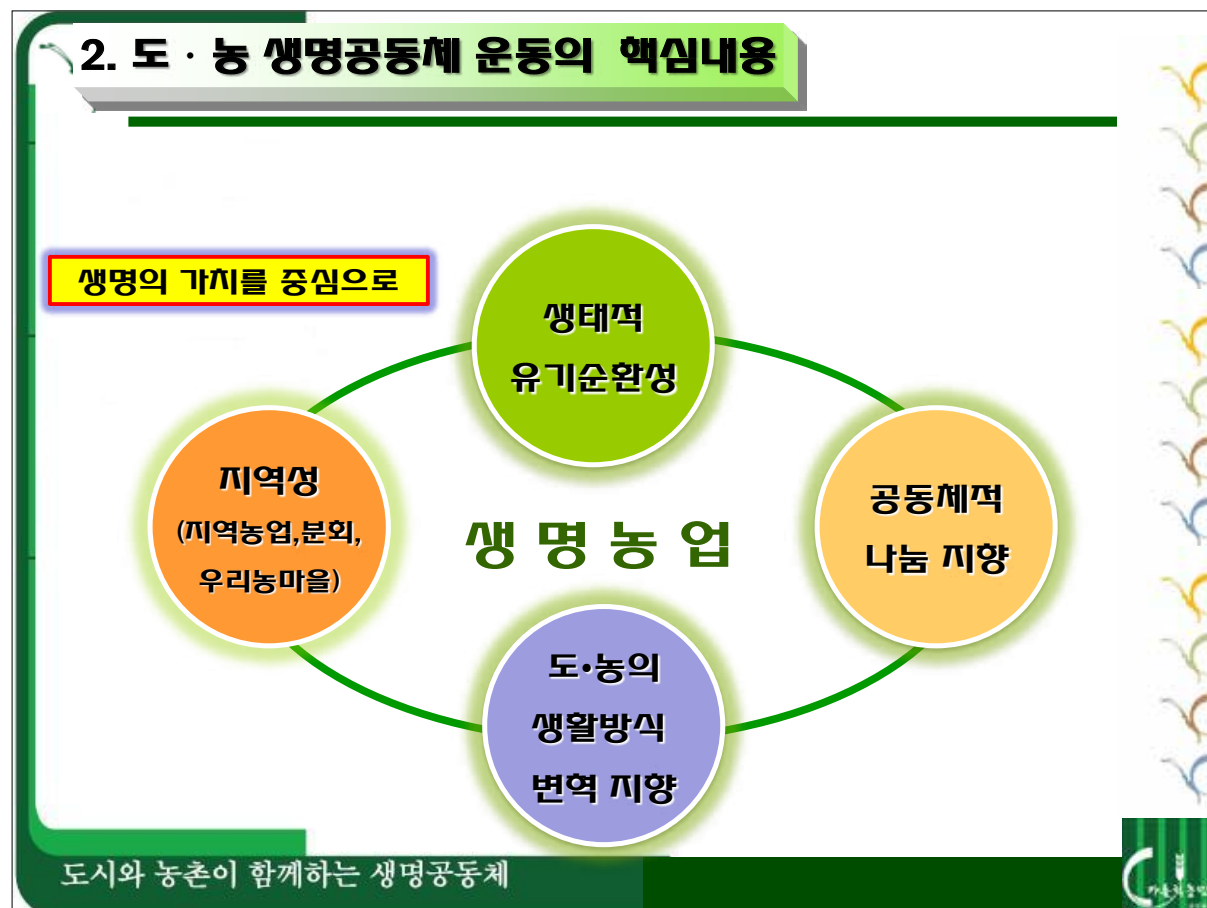
생명가치관의 확립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순환의 실천
자연의 순환원리에 맞춘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 → 생명의 가치	*생산체계 : 건강한 흙, 생산과정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농업, 자연 본래의 생산력 중시 *생산기반 : 조직문화, 마을공동체, 지역에서 가족 중심, 중소농 중심의 생산공동체 구성 *유통 : 가치의 효율적 이동, 소통의 조정, 재생산 가능한 생산비 보장 *소비 : 가치를 구입, 생활공동체, 결연의 확산
생태적 생활과 생산양식의 창출	공동체적 삶의 실천
지역 내 완결적 순환구조를 가진 생활공동체	연대와 협동 : 농촌생활공동체+도시생활공동체 = “함께 나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3.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목표 및 기대효과

주요활동	목표 및 기대효과	실천방법	현황	시행정책
창조질서 보전 운동 생태회복 운동 전개	1. 창조질서를 깨닫고 피조물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생태사도직 실현 2.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소박하고 생태적인 가치관 형성	1.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교육, 강론, 피조물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하는 생태사도직 실현 2. “즐거움 불편운동” 각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실천 - 비닐 줄이기,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물 아끼기, 자원재활용 사례 등	1. 전 북 지 역 96 개 성 당 20 만명 신자 수 보유 2. 각 교 구 우리농 본부와 네트워크 형성 (15개 교구)	1. 농 민 주 일 제 정 (25회째) 2. 환경상 제정(7회째) 3. 다자녀가정 지원제도 (4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쌀 공급)
가톨릭 농민회 생명농업 실천, 지지활동	우리 농 촌 을 지키 고 지속가능 하도록 하 는 농사방법 실천	1.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을 재고, 안전한 먹거리 구축사업 2. 농민들의 권익보호 및 개선사업 3. 국민건강 수호사업 4. 땅 과 생 명 을 살 리 는 생명농업 실현과 교육사업 5. 농 촌 공 소 를 중 심 으 로 운동의 확대를 위한 조직사업	1. 9개 분회로 핵심 공동체 조직 2. 전북 각 지 역 에 산재회원 3. 농촌본당의 적극적인 협력 가능	1. 가족농 사랑기금 (500만원 선 영농 자금 지급-후 물 품상환) 2. 청년농부 지원제 도 3. 분회활동 회의비 지원(공동체 지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3. 도 · 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목표 및 기대효과

주요활동	목표 및 기대효과	실천방법	현황	시행정책
도 시 본 당 중 심 의 ‘우 리 농 생활공 동 체’ 조직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태계 회복 목적	1. 우리 농 생 명 특 강 , 교육과 행사, 조직, 연구 사업 2. 생산지 답사 및 농사체 형의 장 마련 3. 성당 나눔터 개설 - 활동가조직 - 생명농산물 및 제철농산물 나눔의 거점 기능	16개 성당에 우리농 나눔터 운영	1. 쌀 선수금 제도 시행-년 유기백미 25톤 이상 선 구매 하여 공급 2. 이익금의 활용- 본당 이 익금으로 기금 조성=제철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생 산지방문 3. 생활공동체 회의비 지원
우리농 직매장 운영	1. 도농 직거래, 안전한 우리농산물 보급 2. 가족농(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사업 3.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 가능한 체계 구축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생산관리 2. 유통사업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물품의 신속한 공급	1. 전북가농영농조합법인(에비 사회적 기업 선정) 2. 인터넷 쇼핑몰 구축 준비 중	1. 전주시 보조비 지원 : 사업 개발비 지원(쇼핑몰 구축용도) 2. 전라북도 보조비 지원 : 물류창고 신축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생태적 가치관 형성)

즐거워 불편 실시

<환경상 제정 및 시상, 공동체 별 일상활동 실천사례 장려>



- * 자원 재활용
- * 아나바다 장터
- * 도시텃밭 공동경작 활용
- * 물 아끼기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가족농, 소농, 청년농부 장려)

쌀 지킴이 선수금 제도, 가족농 사랑기금, 청년농부 지원제도

<도시공동체에서 기금을 만들어 목적에 맞게 사용>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다양한 홍보 행사)

농민주일 제정, 도농 한마당잔치 등 기념행사 실시

<가치를 알리는 기념행사, 우리농 나눔터 설치, 도농 직거래장터, 홍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농촌생활공동체 활동)

가톨릭농민회 분회활동 지원

<9개 농민회 분회, 농지 축복식, 연수, 월례회의 등 일상적 활동 지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도시생활공동체 활동)

우리농 생활공동체 조직 및 지원, 각종 활동

<16개 생활공동체 조직, 직거래, 생명농업 현장체험, 환경지킴이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5.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정책제안

공동체 육성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생명공동체 운동에 대한 교육과 먹거리 나눔터 주기적으로 진행, 운동의 주체 확립,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생명농업 공감대 확산

환경운동가 양성(개인)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즐거운 불편 실천”을 광범위하게 확산
다양한 시상제도 도입으로 동기부여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동력확보

먹거리 연대 강화

– 민간에서 하고 있는 생명 나눔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적인 체계와 연계 (학교급식센터, 전주푸드센터 등)
– 다양한 농업지지 효과,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가족농, 소농지원정책

가족농 사랑기금 예시(선 기금 지원 후 농산물 상환제도)
청년농부 지원기금 예시
농민들에게 다양한 출하의 자리 마련의 효과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4. 도·농 생명공동체 운동의 활동사례 (직매장 거점 활동)

도농 직거래, 안전한 농산물 공급, 가족농(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사업

<물류사업, 생명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농산물 공급>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생명의 밥상을 차리자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퍼머컬처를 통한 지역 먹거리 체계의 실천과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황영모**

1. 반성과 성찰, ‘체계전환’ 이 시대정신

-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 객관화를 시도하여 무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 자연에 대한 인간 지배를 정당화한 ‘오류’ → ‘경제학은 왜 자연의 무한함을 전제로 했는가’
- ‘개발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문명’은 경제적 소득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심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여 현대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
-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와 에너지’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세계화된 분업체계에 편입된 구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삶터(지역사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 지구적 한계에 대응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산, 소비, 농업’ 등 사회적/경제적 시스템을 (생태중심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시대정신
- ‘체계전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의 변화를 의미 → 지역과 공동체 단위로 각자 삶을 꾸리고 실험하는 커뮤니티에서의 실천적 사회규범 확립이 관건

2. 체계전환으로서 지역 먹거리 체계

- 관행적인 글로벌 먹거리 체계는 먹거리를 둘러싼 거리, 환경, 지역사회, 지역경제, 소비자 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른바 ‘먹거리 황무지’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
- 산업적 규모로 농생명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여 양산되어 공급되는 먹거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글로벌 먹거리 체계가 강제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시대적 과제
- 먹거리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농과 지역주민을 중시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먹거리 체계로의 ‘관계’를 재구조화는 지역적 대응전략이 지역 먹거리 체계
- ‘어떻게 생산해서 누구를 먹일 것인가, 사회적 격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산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위한 복합적인 대응전략이 중요
- 지역 먹거리 체계는 ‘지역생산, 지역가공, 지역유통, 지역소비, 순환이용, 접근성 강화, 사회인식, 영양/관리, 실행체계’ 등에 관한 것으로 체계전환을 전제하고 있음

3. 퍼머컬처와 지역 먹거리 체계

- 퍼머컬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관계를 모방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먹거리,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론적 사고방식과 설계 원리’를 의미¹⁾
- 퍼머컬처는 ‘의존적인 소비자에서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발상/기법/방식을 포함’하며, 특정 분야를 넘어 ‘개인/가정/지역사회가 설계/수립/관리/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법과 철학을 의미
- 구체적으로 퍼머컬처는 ‘자연 시스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농업적 생산시스템의 모색 과정, 이를 통해 먹거리와 물, 보금자리, 모든 필요한 것을 지속/재생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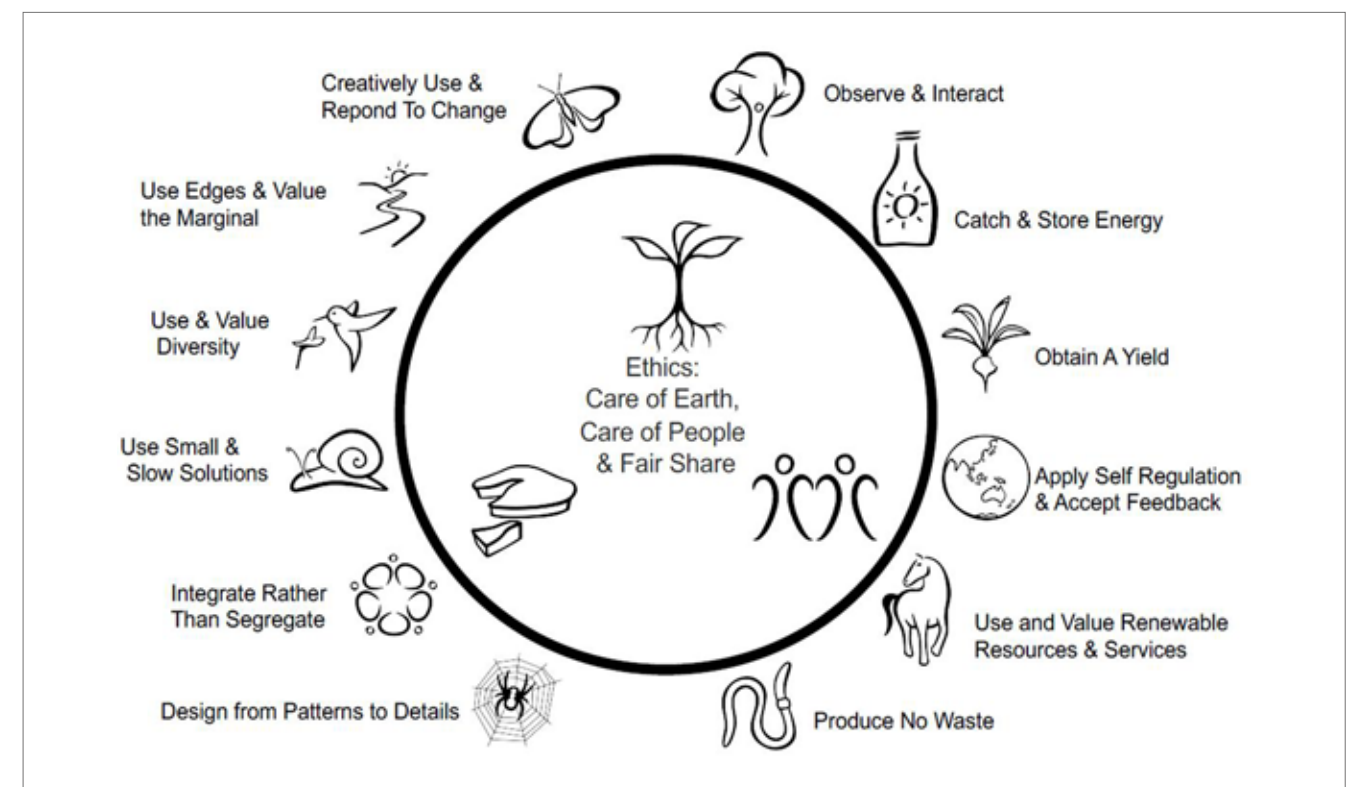
1) 데이비드홀그렌, 『퍼머컬처-지속가능성을 넘어서는 원리와 경로』, 2014

삶의 디자인 방법 중 하나(Geoff Lawton)

- 퍼머컬처는 지역 먹거리 체계의 순환적 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며, ‘체감하지 못하는 현재위기, 다가오지 않은 미래위기’에 대한 회복력(레질리언스)으로서 ‘사회적 역량과 기술’로서 의미를 가짐
- 지역사회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생산과 소비, 사회적 관계를 재구조화해나가는 방식에 갇히지 않고,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체계전환’을 위해서는 작동방식(체계)으로서의 퍼머컬처의 원리의 채택과 적용이 중요한 시점

4. 지역사회의 대응방향과 실천과제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의 생산구조, 소비구조, 유통구조, 사회인식 등의 재구조화를 위한 지향점은 분명히 하면서 퍼머컬처 원칙을 적용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함
 - 퍼머컬처의 3가지 윤리적 원칙 “땅을 보살피라, 사람을 보살피라, 공정하게 분배하라”
 - 퍼머컬처의 원리와 고려사항 : ①관찰하고 상호작용하라, ②에너지를 붙잡아 저장하라, ③수확(소출)을 얻으라, ④자기 규율을 확립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라, ⑤재생가능한 자원과 용역을 사용하고 소중히 여기라, ⑥쓰레기를 만들지 말라, ⑦패턴에서 시작해 세부 사항으로 설계해가라, ⑧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라, ⑨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⑩다양성을 활용하고 소중히 여기라, ⑪가장자리를 활용하고 주변부를 소중히 여기라, ⑫창조적으로 변화를 활용하고 그에 반응하라
 - 퍼머컬처의 적용 영역 : 도구와 기술(재생가능 에너지, 적정기술, 자전거 교통, 재활용 순환), 문화와 교육(행동연구, 장소읽기, 대안교육, 참여문화), 재정과 경제(윤리적 투자, 윤리적 소비, 지역화폐), 토지사용과 관리(협동조합, 생태마을, 갈등해결), 토지와 자연관리(유기농업, 숲가꾸기, 토종종자), 건축과 환경(생명건축, 흙건축, 패시브하우스), 건강과 웰빙(정신과 육체의 건강, 시민사회 의식)



- 첫째, 먹거리 시민(food citizen) 육성을 위한 실천과제 :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해력(食解力)’을 가진 활동주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역량강화(조직·단체, 활동가, 일반시민, 학생, 관계자, 연구자 등)
- 둘째, 도시-농촌의 공생(共生)을 위한 연대와 융합 방안 : 전주시가 가진 자원(도시와 농촌의 공존)의 융합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 (커뮤니티키친과 연계한 도시농업,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돌봄, 찾아가는 학교농장 등 도시재생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
- 셋째, 퍼머컬처 원리가 적용한 농업·농촌·먹거리 영역의 정책사업 리뉴얼 : 대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확산(전주푸드 토종종자 먹거리 생산, 전주푸드 음식폐기물 자원화, 퍼머컬처 도시농부 육성 등)
- 넷째, 전주푸드 관련 지역 먹거리 관련 주체 참여 먹거리 민회(民會) : 먹거리 관련 공동행동의 목적과 목표의 합의·설정, 실천과제의 도출, 실행결과의 평가와 개선 등

적당히 벌어서 먹고 나누며 행복한 지역살이를 꿈꾸며!

서쪽숲에 네발요정이 내린 커피 **박현정**

〈공간을 매개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먹거리와 생활 협력 사례〉

제가 일하는 공간인 ‘서쪽숲에 네발요정이 내린 커피’ 카페는 2013년 9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만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연 카페지요.

카페를 열게 된 이유는 지역에 공영시장을 만들면서 몇 개의 공간이 생겼는데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카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마을은 시골의 작은학교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려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는데도 부모들은 자녀를 중학교부터는 도시로 보내 다니게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 보자고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워 대학을 가도 아이들의 미래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모들이 해마다 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와 삶을 나눌 공간이 필요했는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마침 우리 카페가 좋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카페는 20평에 나무가 인테리어의 주된 재료로 꾸며졌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삼삼오오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할 공간이 필요했고 당시 마을에 카페도 없던 시절이라 도시로 나가지 않고서도 커피와 차를 마실 공간, 학부모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공간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 정도의 소박한 바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농사 짓거나 직장에 다니므로 낮 시간에 집이 비어 있기는 도시나 마찬가지로인데 택배나 물건 등을 보관해 줄 공간이나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것을 주고 받도록 맡아 줄 공간이 지역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물건을 받아주고 전해주는 공간으로 쓰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 가장 많고 절실했던 품목이 농산물, 즉 먹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지역민이 지은 1차 농산물 외에도 2차 가공품 등 시장이나 유통에서 다 해결하지 못 하거나 상품가치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보관하고 전해주는 공간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 밖에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쓰지 않게 되는 학용품, 옷, 가방, 책들도 주요 물품들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료 나눔도 하고 약간의 비용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2년 전부터는 물건보관료를 몇 백 원씩 받아(원하는 사람만 줍니다) 길고양이 사료비에 보태는 등 나눔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이 자주 오가니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홍보처로 카페가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든 모임이든 다양한 행사, 활동, 이야기들을 책, 신문, 포스터, 리플렛, 지도 등으로 제작하고 이를 카페에 가져다 전시하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가끔 카페에 와서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먼 곳에서 오는 손님은 이 마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카페는 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지만 제가 속한 협동조합원들이 주요거점으로 이용합니다. 이 협동조합원들은 예술공연, 미술, 전시 등을 삶 속에서 일궈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체적으로 이 카페에서 강연, 공연, 영화상영, 전시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최근 2번(1년에 한 번 씩) 시골카페에서의 댄스파티를 기획해서 열심히 놀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즐거웠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제 슬슬 도시에서 청년들이 귀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직장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각자 가진 기술과 재주들을 펼쳐보기 위해 또는 부업으로 홈페이지 빵 류, 액세서리류를 만들어 카페에서 가게 속 작은 가게 형태로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모두 처음부터 사업자로 나서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시장을 파악하고 경험해보는 것이죠.

아! 물론 우리 카페는 규모는 작지만 지역주민, 청년, 학생 등 7명의 크고 작은 생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카페가 늘어나면서 조금 불안해지기는 합니다만.. 조금이나마 몇 분들에게나마 실재적인 도움이 되는 곳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리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물질과 관련된 것 외에도 지역의 아이들은 놀다가 들어 와 물을 얻어먹고 가기도 하고 버스를 빌려가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기금이 필요한 경우 카페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도 하고요.

3년 넘게 이어졌던 주민들의 자발적 세월호 집회나 촛불시위를 할 때엔 카페 앞 광장에서 주민들이 모일 때 전기, 비품 등을 지원하는 배후기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공장식 축사, 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이 하나로 단결해야만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때 특별한 단체나 특정 인물이 아닌 주민 모두의 구심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데 자연스레 이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하며 힘을 보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면서 지난 7년 동안의 카페를 살짝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페를 처음엔 단순한 물리적인 만남의 장소로 꿈꾸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점차 다양한 형태의 만남과 나눔의 장, 즉 사랑방이 되어 있더군요. 이런 모습이 있기에 이런 귀한 자리에도 초대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히 일하고 별에서 나누며 행복한 지역살이에 함께 하는 카페가 되도록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지구가 허락해준다면 말이지요.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 공동체지원농업(CSA) 활동사례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소희주**

○ 진주텃밭은?

-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지역 소비자를 통해 유통하는 로컬푸드 협동조합
- 생산자조합원 220명, 소비자조합원 2100명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생협
-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로 나누는 사회적기업(7년차)
- 직매장 2개소, 농산물꾸러미, 온라인판매 운영 중

○ CSA사업의 목표 : 진주시민과 지역농민들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구현

○ 세부목표

1. 소비자 조합원 확보를 통해 지역농민을 책임지는 소비자단 구축 확대
2. 소비자 조합원 중 월 10만원이상 꾸준히 소비하는 핵심소비자단 구축
3. 생산자조합원의 친환경 생산에 도움
4. 직매장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를 도모
5. 토종, 생태농업의 복원에 기여

○ 사업내용

1. 생산자위원회

- : 220명 생산자의 정기회의 년4회/ 8명의 생산자위원회 년6회 진행
- : 생산에 도움되는 친환경농법 교육/ 무제초제를 위한 제초매트 보급/ 생산자의 권리 교육 등
- : 생산자 동아리 운영 - 토종동아리, 온새미로 농법 동아리, 복합영농 동아리

2. 소비자위원회

- : 모니터링, 생산지방문, 소비자사업 기획 등 진행
- : 나눔위원회 - 매월 진행되는 나눔사업에 동참 및 기획
- : 마을학교위원회 - 주말을 이용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동체와 도모하여 진행함.

3. 토종종자 복원

- : 토종동아리 운영
- : 토종 종자나눔 : 모종을 키워서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나눔 진행
- : “금산면을 토종꽃마을로” 만들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종꽃모종 나눔을 2차례 진행함. (박하, 분꽃, 해바라기, 홍화...)

4. 도시농부 만들기

- 생태농업학교 운영 : 자연재배 전문 농민으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배우고 함께 지어보는 실습형 학교. 월1회 진행.
- 도심형 생태텃밭 분양
 - 12가구 1가구당 10평씩 분양.
 - 4무농업(제조제, 화학비료, 화학농약, 비닐)을 실천해야 함.
 - 수확물의 10%는 나눔으로 기부.
 - 농사지도 생산자를 통해 영농교육 등을 받으면서 텃밭농사 진행 중

5. 먹거리 나눔활동

- 매월 15일은 진주텃밭 나눔의 날.(이날 일어나는 매출의 5%는 나눔통장에 적립)
- 월1회 나눔먹거리 포장 및 배송
- 기획나눔 - 세월호 가족, 수재민, 코로나로 힘든 지역예술인 등께 과일간식꾸러미 발송
- 정기나눔 - 경남지역 위안부할머니4명, 진주지역 홀몸어르신6명, 지역아동센터2곳, 중증장애인가정 2곳, 저소득가정 2곳을 지정하여 매월 먹거리나눔 진행

6. 제로웨이스트 매장 만들기 소비자실천단 운영

- 대한민국 1호 녹색실천매장 실험 중. (비닐사용, 플라스틱 사용 안하는 매장)
- 소비자들이 통과 봉투를 들고와서 장보는 매장을 전환
- 소비자단 교육 및 실천 후 모니터 진행
- 소비자의 의식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무포장 장보기 이후 오히려 매출이 증가함.

7. 생산자 소비자 교류활동 및 소비자 체험활동 꾸준히 진행

- 우리밀체험, 수제소세지 체험, 목장체험 등 생산자와 함께하는 체험 진행
- 제철농산물 이용 요리수업, 천연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수업 진행

8. 먹거리 강사단 양성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강사단 양성 후 협약어린이집, 협약단체, 마을모임 등에 지역먹거리 강사로 파견

진주텃밭의 CSA활동은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은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서로를 책임져 갈 때 가능해집니다.

전주시에 도시농업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심자

전주시농정총괄자문관 **김중기**

1. 들어가며

- 식량위기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 식량위기가 환경위기, 에너지 위기와 함께 시한폭탄처럼 우리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더욱이 작금의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생활문화 전반에 위생과 건강은 물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깊숙하게 심어놓고 있다. 특히, 지역화된 먹거리 체계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다.

- 우리나라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율은 2018년 기준 3%, 식량자급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정자들의 식량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낮고,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역시 극히 낮은 상황에서 농민들은 여전히 힘든 농사를 하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화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고,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전개방식에 대해 지역사회 관점에서 매우 미지근한 상황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도시농업 전개 양상과 한계

- 최근 들어 우리나라 도시농업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다. 도시농업 활동 참여자 수 증가와 더불어 그 면적도 크게 증가했으며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야기 하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 그 배경에는 도시민들이 고밀도 도시구조의 생활문화 환경 속에서 도시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고, 1980년대 이후 도시에 농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있었으며, 이를 수용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제정된 도시농업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꾸준히 늘면서 진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 도시농업은 주말농장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1994년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주말농원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도시농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지금도 여전히 주말농장과 같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자투리 토지나 건물의 벽면, 베란다, 옥상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도시농업 형태인 것이다. 대부분 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여가시간 활용이 목적이다.

- 도시민의 도시농업 활동 수요에 비해 농적 공간으로 활용할 재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농업 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 이에는 도시농업 관련 법과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도시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상황적 한계로 도시민들의 자발적 자원 활용이 어려운 가운데, 현재 도시농업의 전체적인 전개양상에 주민들은 도시농업을 텃밭 정도를 단순히 재배하거나 도신주변의 주말농장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부에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가 많아서 텃밭이 있는 농적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이나 지원조직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는 것도 도시농업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배나 관리·운영 방식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분양을 받는 형태인데다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도시농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질적 변화를 꾀해야 할 때이다.
- 데이비드 홀름그랜 박사께서 말씀하신 퍼머컬처 개념이나 푸드시스템의 지역화 복원 개념을 지금의 우리나라 도시농업 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농업활동가들의 사회인식은 물론 우리나라 푸드시스템의 재구조화를 향한 정책지원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농업 전개상황도 이에 맞추어 바꾸어낼 수 있는 활동주체 육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비드 홀름그랜 박사의 발표내용은 우리나라 도시농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가치로서 수용하기에 충분한 시사점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3. 전주시의 도시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 전주시는 구도심 및 신시가지로 대표되는 고밀도 도심부가 형성되어 환경문제 등 도시화의 폐해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가 분출되고 있다. 반면, 교외의 농촌과의 접경지역에 저밀도의 농촌도시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불규칙한 형상의 농지가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 이러한 도시구조를 이루고 있는 전주시는 도시라는 장소성과 농업·농촌의 의미가 결합되어 도시농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된다. 도시와 농업이 조화로운 도시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도시농업의 한계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 전주시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활동공간 확대(현재 43개소)를 모색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핵심주체로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현재 42명)에도 힘을 기울여 왔다.
- 전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활동을 실천할 다양한 공간 조성, 도시농업 활동을 선도할 핵심거점으로서의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이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유인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전주시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공간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고,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전주시 푸드플랜 정책,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과 깊숙하게 연계한 실행체계를 만들어내야 진정한 의미의 도시농업의 미래지향적 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

-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농민회와 같은 생명공동체 운동단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 활동체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지역복지·공동체 주체들과 연계되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작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도시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사업·예산, 추진체계 등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주시가 갖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시민 중심의 자족적 생활농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문제, 도시민과 농업인의 수요가 결합되는 공간이자 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즉, 도시민의 생활농업과 농업인의 생업농업이 강하게 연계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그림 참조).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로의 변화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김아영**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회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치·사회·외교·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주제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 우리들의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변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먹거리는 그 중심에 있다.

지난 8월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내용을 보면 교육, 오락·문화 등의 지출이 줄어든 반면, 교통, 식료품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료품, 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0.1% 증가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홍명희(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 사무국장님이 발제해 주신 것처럼 먹거리를 매개로 일상의 변화를 만들고 한발 더 나아가 협동과 연대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꾸준히 진행해 온 먹거리 운동은 사회 변화와 함께 진화해 왔다.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유기농 농업운동이 먹거리 운동을 이끌었다. 주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유기농업의 가치를 교육하며 생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 주도의 직거래 운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00년대에는 생협 운동이 먹거리 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지지하는 한다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맺기를 통해 ‘도농상생’을 도모했다. 2000년대 이후는 로컬푸드 운동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원주, 청주 등에서 학교급식운동, 로컬푸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러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먹거리 운동의 변화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이 변화했고 시민들의 실천 영역이 확장되었다.

먼저 정부 먹거리 정책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푸드플랜’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공급과 이용의 순환 체계가 실행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 지역민이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15년에 ‘전주푸드 2025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 의하면 전주시는 5년마다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게 되며 또한 민·관 합동 협의체인 ‘전주시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변화는 시민들에 의해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 영역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에 맞춰졌던 초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확장하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전체 세대의 약 3%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단순한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나눔과 연대,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 활용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여 시민뿐 아니라 국가와 기업, 언론 등이 기후행동에 나서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에서 민·관 거버넌스로 진행되고 있는 ‘TURN블러’ 운동도 먹거리를 매개로 확장되는 실천 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주의 객리단길에 있는 카페 업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TURN블러’ 운동은 1회용 플라스틱 범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컵을 제작해서 카페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설적이게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넓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지역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이분법적인 역할 구분이 아니라 ‘공급’과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참여자이자 실천가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CHAPTER 5

세션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

- 프레스턴, 영국 및 해외의 Community Wealth 축적 사례 | 매튜 브라운
-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 삼육대학교 정선철
-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 (사)어반베이스캠프회 정수경

세션 3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 정책

- 민선 7기 우리 시의 주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의 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 전환 유도

■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내 용
16:10~16:12 (2')	개회	개회인사, 발제 및 패널 소개 내빈소개, 세션 진행방법 안내
16:12~16:40 (28')	발제 1	프레스턴, 영국 및 해외의 Community Wealth 축적 사례 매튜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시의회 의장
16:40~17:00 (20')	발제 2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정 선 철 삼육대학교 교수
17:00~17:20 (20')	발제 3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정 수 경 (사)어반베이스캠프 대표이사
17:20~18:00 (40')	자유토론	영국 프레스턴 모델의 교훈과 가능성 김 정 후 런던대학교 UCL 펠로우 교수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재생 추진전략 윤 병 훈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허 문 경 전주대 연구교수
18:00~18:10 (10')	결과공유	결과공유 <헬레나노르베리-호지 대표와의 대화>

사회 및 좌장 | 정 건 화 한신대 교수

, 영국 및 해외의 Community Wealth 축적 사례

매튜 브라운



2008년 금융 위기 및 긴축정책의 영향

- 금융시장 구제금융에 대규모 공공자금 투입
- 긴축 정책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재정적 압박 지속 (일부 일자리 증가 및 완만한 성장)
- 투자 및 생산성 취약 & 은행권 기업 대출 제한적
- 생활 수준 개선 조짐 없고, 불평등의 지속적 심화
- 21세기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실패했으나 대안없이 유지
- 현재 거시경제적 솔루션은 기형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할 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음

프레스턴시, 구조적 실패로 인해 £7억 규모의 도시재생프로그램 철회 (2011년)

프레스턴에서 상식적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적 경제 (1)

- 지역경제전략센터(CLES)와 프레스턴의 앵커기관 전략: 프레스턴 및 랭커셔의 지역기반 기관들은 커뮤니티를 위해 로컬 업체와 거래를 늘리며 **연간 약 £10억 파운드** 지출, **인소싱 장려**
- 지자체 연기금, 계약(City Deal)을 통해 학생 기숙사, 호텔, 사무실 등에 **1억 파운드 지역 기반 투자**. 랭커셔주 기금으로 확대 고려
-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 센트럴랭커셔대학(UCLan), 프레스턴 협동조합 개발네트워크 간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소유협동조합 확대
- 복서부 커뮤니티은행 설립, 신용 조합 및 CDFI 펀드(Lancashire Moneyline) 지원

프레스턴에서 상식적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적 경제 (2)

- 프레스턴 시의회, 프레스턴을 영국 최초의 **생활임금 보장 지역(Living Wage Places)**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과 협력
- 주요 도시 개발 사업의 지자체 소유 및 지자체 기업 활용을 경제 전략으로 홍보
- 주택 공급 수단(housing delivery vehicle) 마련 및 지역 공공부지의 주거공간 개발 활용 가능성 타진
- 지역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 및 노동자 활용을 장려하는 **도시계획 정책** (공기업 및 민간기업 모두 포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 CWB 정책 개선으로 **지역 토지 신탁 지원, 앵커기관 고용 목표 설정 및 지역/커뮤니티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민주적 기업 지원

공공은행 및 커뮤니티 은행

복서부 커뮤니티 은행

직원 상주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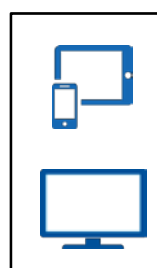
- 지점장 (대출 결정권자)
- 지역 이해도 높음

위성 지점



- 직원 상주 지점의 서비스 대부분 이용 가능
- 콜센터 영상 연결
- 영업시간 확대

디지털 채널



- 웹, 모바일, 태블릿 통합 서비스

대여 금고



- 대여금고 서비스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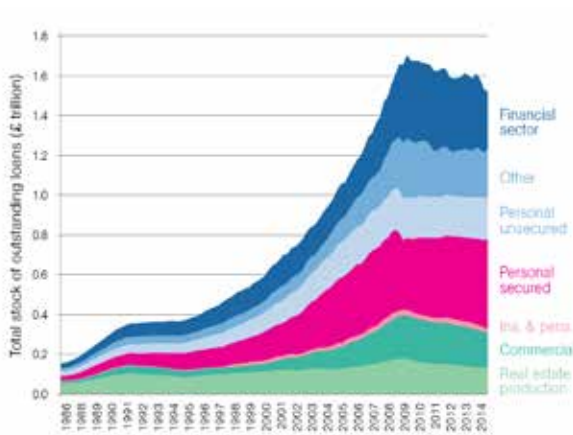
예금 구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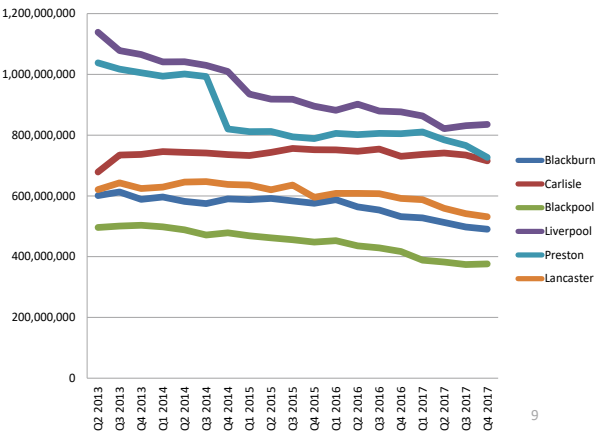
- 효율적 기능
- 단순/투명한 수수료 £5 (개인) / £10 (기업)

주요 대출자 동향

4대 은행 재무재표 기반 통계



SME 대출 - 북서부



9



연기금 투자 사례 - 프레스턴 학생 기숙사(Friargate Court)



투자 사례 (앨라배마 연기금 - 퇴직관리제도)



연기금 투자 사례 - 프레스턴 파크 호텔(Park Hotel)





프레스턴의 종업원소유기업(Employee Owned Business)





랭커셔 파트타임 소득 중위값

파트타임 소득 수준 - 2011

파트타임 소득 수준 - 2018

프레스턴	£143.60	프레스턴	£212.10
번리(Burnley)	£149.10	번리(Burnley)	£178.30
출리(Chorley)	£141.20	출리(Chorley)	£189.40
필드(Fylde)	£161.80	필드(Fylde)	£192.80
하인드번(Hyndburn)	£138.20	하인드번(Hyndburn)	£174.20
랭커스터(Lancaster)	£140.00	랭커스터(Lancaster)	£188.10
펜들(Pendle)	£154.60	펜들(Pendle)	£179.20
리블밸리(Ribble Valley)	#	리블밸리(Ribble Valley)	£169.30
로센데일(Rossendale)	£117.20	로센데일(Rossendale)	£189.90
사우스리블(South Ribble)	£128.40	사우스리블(South Ribble)	£177.20
웨스트랭커셔(West Lancs)	£142.80	웨스트랭커셔(West Lancs)	£163.60
와이어(Wyre)	£140.70	와이어(Wyre)	£156.70
노스웨스트(North West)	£152.60	노스웨스트(North West)	£185.20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153.00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18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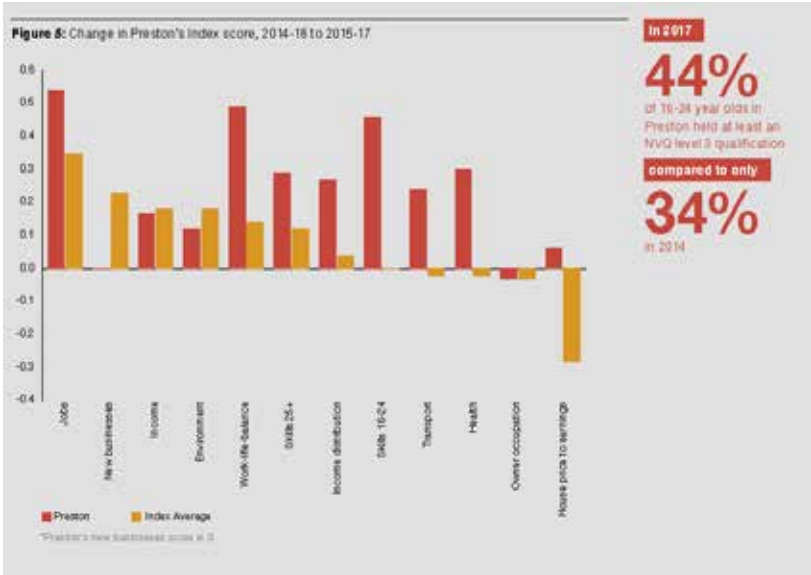


Economic policy

Preston named as most most improved city in UK

Labour-run council with localist economic policies tops Good Growth for Cities index

프레스턴, 영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로 선정



영국의 Community Wealth 구축 사례

CARILLION/CAPITA 파산 사태 이후 가능한
인소싱 (예: 이즐링턴 & 헤링게이 위원회,
랭커셔 경찰대)

웨일스 의회, 웨일스개발은행 규제 준수
위해 웨일스 커뮤니티뱅크 설립

플리머스 및 옥스포드, 협동조합경제 규모
2배 확대 약속
노스에어셔(NORTH AYRSHIRE), 종업원 소유
기업 장려
TRADEMARK BELFAST, 북아일랜드에
종업원협동조합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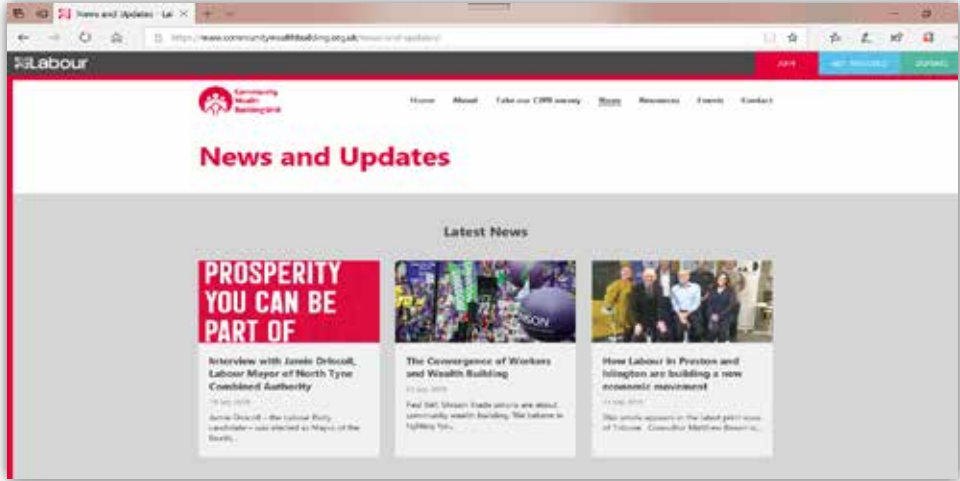
해크니 및 버밍엄, 지자체 소유 에너지 기업
설립 계획 선언

런던 의회, 커뮤니티 토지 신탁 확대 지원 및
사회적 주택/저소득층 주택에 공적 연금
투자 고려

국민건강보험(NHS) 장기계획 및
지역기반대학위원회(Civic Universities
Commission), 병원 및 대학의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적



영국 및 해외에서 Community Wealth 축적 사례



해외 Community Wealth 구축 사례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 정선철

1. 왜 지금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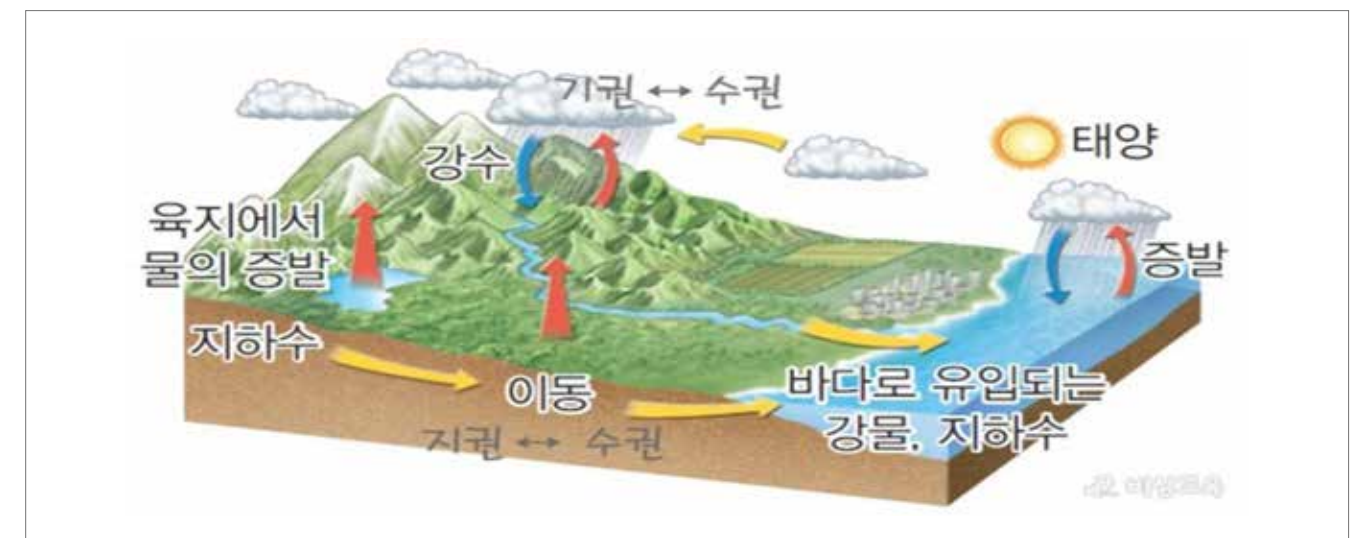
(1) 자연의 파괴와 역습 : 인간의 생존 · 생활의 라이프라인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로

나는 왜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생활할 수 있을까. 적절한 기후와 공기·물·식량·에너지·자원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코하마시립대 사사키 이치로 명예교수(필자의 지도교수)는 이 인간의 생존과 사회 유지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포괄하여 라이프라인(Life-line, 생명선)이라 지칭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공급이 멈추면 물·식량 생산도 어렵듯이, 이 라이프라인은 그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상호의존성이 있어 종합적인 확보가 필요불가결하다. 둘째 이 라이프라인 물자는 자연생태계가 제1차 생산자로 인간은 이를 필요한 물자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기능을 건강하게 이용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기본전제가 된다(사사키 이치로, 2002).

이 인류의 생존기반인 자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137억년전 우주 탄생(빅뱅) 이후, 늦둥이로 46억년전에 태어난 지구는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와 중력 덕분에 수증기를 우주에 빼앗기지 않고 바다를 만든다. 그 결과 지구표면은 바다 71%, 육지 29%로 이뤄져 육지는 마치 바다에 떠있는 부도(浮島)와 같아, 우리는 지구(地球)를 ‘물의 행성’ (水球) 혹은 ‘바다의 행성’ (海球)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바다에서 38억년전에 생명이 태어나 다양한 생물종으로 진화해온 가운데 인류는 600만년전 지구의 새식구로 탄생한다.

〈그림1〉 지구계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자료: 비상학습백과)



한편 지구는 태양광과 지구 내부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외권·지권·수권·대기권·생물권의 상호작용으로 물·공기·식량·에너지·자원을 생산하고 기후를 안정시켜 지구의 생명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자체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우주 원소의 화학적 결합과 분해 과정임을 생각할 때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을 낳고(탄생) 기르고(생활) 돌아가게(죽음)하는 생명의 어머니인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사회-자연의 올바른 상호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연생태계는 빙하나 운석 충돌 등의 자연기인 혹은 인간기인에 의해 파괴되기도 한다.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다른 동물과 유사한 수렵채집생활을 하다가 1만년전에 농업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이는 지구의 환경용량 범위내였다(유발 하라리, 2019). 그 후 300여년의 짧은 산업문명 속에 세계의 모든 지역을 하나의 경제연관으로 묶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인구폭발과 도시팽창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의 물·식량·에너지·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대량으로 채집·생산·소비·폐기하면서 다른 생물의 서식지 파괴에서 기후이변과 물순환 교란에까지 이르는 소위 인류세(Anthropocene)라 지칭되는 것처럼 지구환경 자체를 비가역적으로 파괴해 오고 있다.

이 인류의 자연에 대한 배은망덕(背恩忘德)한 결과가 ‘자연의 역습’의 초래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2020.8.9일 현재 확진자 2천만명, 사망자 73만명)과 기후재난(동아시아 수해·유럽 폭염·미국 허리케인·시베리아 고온), 경제파탄(세계경제의 역성장)의 3중의 타격 속에 생존과 생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류세의 전조(前兆)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자연재난은 이제부터일지 모른다. 감염병과 물·식량·에너지·자원 부족으로 많은 인간이 안타깝게 희생될 수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의 임계점을 넘은 비가역적인 파괴는 수복 불가능한 플랜 B가 없는 인류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 생명이 있어야 자유도 행복도 가능하다, 인간의 생존과 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인류가 대오각성하여 자연재생에 전력을 다할 때이다.

(2) 도시의 안전보장과 지속가능도시 : 안전한 사회만들기는 지역(Local)에서부터

인간의 생존위협이 감염병, 기후재난, 식량·에너지 부족 등 라이프라인 문제로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에 비해 도시는 세계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해 기후이변의 주범인 동시에 과밀구조(3밀-밀폐·밀집·밀집)로 전염병과 기상재난뿐 아니라 물·식량·에너지·자원의 외부의존으로 위기에 가장 취약하다.

종래의 발상에서 보면 ‘안전보장’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각적인 억제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존위협인 라이프라인 위기에 대해 종래의 국가적 안전보장 틀로서 대응할 수 있을까. 군사적인 무력수단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은커녕 경감조차 불가능하다. 오히려 코로나 역설로 세계 각지의 지역분쟁 ‘전염병 휴전’을 하고 있다. 관건은 밀뿌리에서부터의 문제해결, 즉 자연재생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다. 유엔이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을 제창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중앙정부 주도로 가능할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농촌·산촌·어촌·도시 등 각각의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사회적인 현안은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의 획

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책이 불가결한 이유이다. 또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언택트(untact)의 비대면 사회를 넘어 마을·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재편하고 관계를 재형성하는 로컬택트(Local tact)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는 로컬에서부터”라는 표현처럼, 현장의 지역이 결정·추진·책임지고 내외 도시간에 협력하는 상향식 방식의 지역분권적인 글로컬(Glocal) 추진시스템이 필요하다(제러미 리프킨, 2020).

도시·지자체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는 그곳에 사는 모든 시민의 생존과 생활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일이다. 따라서 라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도시 안전보장’(Urban security)과 이를 구현하는 지속가능도시의 재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그 위에 문화·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행복정책’의 경우에도 그 핵심을 ①생존기반 확보 ②생활의 질 향상, ③인생의 의미와 가치 추구라는 3대 요소로 대별할 때, 이 시민의 생존안보를 확보하는 지속가능도시의 재구축은 행복정책의 제1순위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린뉴딜 : 지속가능도시 재구축의 마지막 기회(Last Chance)가 될 수도

돌이켜보면 20세기 공해방지 운동에서부터 시작해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지구온난화방지협약, 그리고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등을 통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수십년 동안 노력해 왔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생존과 생계의 위기를 체험하면서 광범위한 사람들이 자연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생태문명으로 대전환의 좋은 기회인 것이다(최재천, 2020).

실제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행동을 위한 비정부기구 운영체계(NAZCA)에 따르면 ‘IPCC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하여 2050년까지 전지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에 120개 국가, 449개 도시, 995개 기업 등이 호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2020.6)에 이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20.7)가 발족하여 탄소중립의 공동목표를 향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래 300년간 파괴되어 온 자연을 탄소중립을 기점으로 10분의 1의 기간(30년)에 압축적인 속도로 재생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기후·자연재생에 필요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재·서비스의 전환수요를 새로운 환경산업과 일자리 창출(공정한 전환 및 안전망 포함)로 연계해 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생존과 생계 위기를 돌파하고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그린뉴딜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U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지구의 본격적인 자연역습을 막고 인간의 생존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의 성패는 지속가능도시 만들기에 달려있다. 도시가 산업혁명 이래의 대량생산·소비·폐기 거점을 졸업하고 지구 공통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지키고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21세기 도시의 질적 고도화가 시급하다.

2.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추진방안

이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 여기에서는 과거 추진사례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위기관리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활용한 계획수립과 이를 시민·기업·행정의 지역의 힘을 결집한 추진방식을 살펴본다.

(1) 안다 :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위기관리 정보의 제공

코로나19로 자연재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지구환경 문제는 거대하고 복잡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거나 걱정애 그치는 수준이 많다. 따라서 라이프라인 관련 세계 동향과 나의 생활을 잇는 위기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이를 내 문제로 여겨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나의 생활, 그리고 우리 도시 성립과 지구환경과의 연관 정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생활하기 위해, 나아가 우리 도시 전체가 기능하기 위해 매일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물·식량·자원·에너지가 운반 소비되어,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온실가스·폐기물·폐수)이 배출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도시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지구순환계로 흘러들어 지구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도시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나의 생활, 그리고 우리 도시의 성립과 지구환경과의 연관정보를 누구나 시시각각 볼 수 있게 한다.

②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나와 우리 도시의 생존·생활위기 정보

이러한 나의 생활과 우리 도시의 기능은 지구환경 파괴로 라이프라인 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기후이변이 심해질 경우의 태풍·홍수 및 침수·산사태·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자원·식량 부족과 가격급등 혹은 수입중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도시기능은 연쇄적으로 어떠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 이러한 정보를 마을(동)별로 상세한 자연재해 및 라이프라인 위험지도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표 1〉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자원의 최대 활용

구분	태양	바람	땅	물(하천)	산림	도시농업	사용후 자원	기대효과
	일조시간	평균풍속	면적	연간강수량 하천연장	임목 축척	경지면적	폐기물	
에너지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발전	지열	소수력 발전	목질 바이오	농업바이오	유기계 바이오	에너지 자급 CO2 삭감
자원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목재·퇴비		유기계 퇴비화 광물계: 재자원화	자원순환 폐기물 감소
식량				수산물	버섯·꿀 열매·사료	곡물·야채 과일·식육		식량 자급
물				빗물·중수도	그린댐	그린댐	하수이용	폐수 감소
자연 생태계				영양순환	영양순환			자연생태계 기 능 향상
				토사운반	토양생성	토양보호		
				자연정화	자연정화			
				기후안정	기후안정	기후안정		

③ 위기관리 : 지속가능도시 전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 정보

이러한 위기를 경감 예방하는 지속가능도시로 전환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은 어느 정도인가. 나아가 이러한 자원을 최신의 환경 및 디지털 기술과 접목할 때 어느 정도 자급률을 올리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가.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햇빛지도, 풍력지도에 추가하여 다양한 자연자원의 분포, 그리고 인적자원, 사회경제자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구 차원의 정보를 나의 생활과 우리 도시에 맞게 재가공한 ‘생활정보’로 제공할 경우 사람들에게 큰 설득력을 주어 시민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성북구의 라이프라인 정책연구(정선철·정건화, 201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데이터 정비 및 정보제공 수준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뉴딜계획에서 데이터 댐 사업을 강조하듯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상정보, 미세먼지 정보에 라이프라인 정보를 종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로서 제공하는 작업을 지속가능도시 만들기의 기본 인프라로서 정비해야 한다.

(2) 계획을 세운다 : 위기를 도약으로 역전시키는 목표 제시와 통합모델의 설계

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역전시켜, 시민의 생존·생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새 도시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수치목표로서 IPCC가 제시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점으로 도시의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도시내 자연의 재생을 통해 흡수량을 늘려 궁극적으로 지구 대기순환 내에 온실가스를 유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예시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 즉 자연·지형, 사회경제적 집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정책수단을 조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개별분야의 칸막이를 넘어 전 분야를 연계한 ‘통합모델’의 설계가 중요하다.

① 재생에너지 전환

우선 그린뉴딜의 중점인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 첫째 각종 건물에 단열재를 사용하고, 각종 가전제품 등을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 둘째 도시의 특성상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 바이오에너지의 도입과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수소도시, 그리고 열·전기를 상호융통하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을 도모한다. 그린뉴딜 사업의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계량기 보급을 활용한 친환경 주택만들기도 중요하다.

② 자원의 완전순환

불필요한 제품은 처음부터 유통을 줄이고, 내구년수를 높여 오래 쓰고,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소재별로 분해하여 재자원화 혹은 연료화하는 자원순환도시를 형성한다, 동시에 물건을 공유해 쓰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배출량도 줄이는 공유경제의 확산이 중요하다.

③ 빗물 이용 및 물순환의 회복

지역에 내린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에 빗물을 저장하여 잡용수로 사용한다. 스마트상하수도, 투수블럭, 비오톱을 늘리고 하천 재생을 통한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한다.

④ 도시숲 및 녹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도시내에 자연을 최대한 재생하여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린다. 먼저 도시숲을 재생하여 바람의 길은 복원하고 지역기온을 낮춘 시원한 도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열섬 현상과 폭염을 방지하고 냉방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⑤ 도시농업의 확산

도시의 빗물, 음식쓰레기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늘려 먹거리 제공과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표 2〉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추진 방향(자료 : 사사키 이치로(1997, 2002) 수정 작성)

1. 지속가능도시	2. 신산업 · 고용의 창출
○ 도시녹화, 자연재생	○ 자연재생 산업
○ 에너지 효율화·재생에너지, 수소, 스마트그리드	○ 에너지 기기·소재 산업
○ 친환경도시농업과 도농직거래	○ 도시농업 및 도농직거래 사업
○ 빗물·중수도·하수 재이용, 스마트 상하수도	○ 물순환 산업
○ 자원순환, 공유경제	○ 자원순환 산업
○ 직주근접, 교통·물류량의 적정화 (마을을 기본단위로 한 도시구조의 혁신)	○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종래 제조공정의 효율화)
○ 스마트시티(Smarat·City) 구축 원격근무·교육·의료, 안전관리	○ 디지털·비대면산업정보 서비스업
○ 도시·마을계획 수립~추진~평가 (Global~Regional~Community 연관)	○ 정책연구개발 사업
3. 인접 농림수산지역과 협력	
○ 산림·농지·해양생태계 재생과 농림어업 부흥을 위한 협력사업(잠재식생 수준)	
○ 식량·에너지 등 라이프라인 물자의 직거래 구매·출자	
4. 도시규모의 적정화	
○ 환경용량 : 자연·지형적인 환경용량 이내로 도시규모의 재적정화(질×양)	
○ 전국 균형발전: 전국 각 지역의 자연자원 활용과 자립적인 균형발전	
5. 국제협력	
○ 국제적 공평성(세계 평균치) + 세대간 공평성	
○ 공통기후권(Bioregion)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도시간 협력	

⑥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로 전환

이상과 같은 에너지 전환과 도시숲 확충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고, 나아가 많은 시간·에너지 낭비의 근원이 되는 직주원격형 도시구조 자체를 바꾼다. 원래 이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은 가장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코로나의 역설로 일(재택·지역거점 근무), 소비(온라인 쇼핑·택배), 교육(온오프라인), 의료(원격의료·웨어러블기기)에 걸친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먼 이동이 줄고 집과 마을에서 보내는 시민들의 생활시간이 늘면서 지역이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재부상하는 로컬렉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잠만 자는 집과 마을 수준을 넘어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웃·동네 사람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스포츠·건강복지 활동을 생활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생활 필요를 마을에서 채울 수 있어 마을살이(Community Life)가 가능한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 전체에서는 업무기능의 일극집중을 피하고, 이를 각 부도심 혹은 지역거점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심부에도 주택을 재도입하여,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가지거나, 집에 가까운 곳에 직장을 가지는 직주근접도시로 전환한다.

⑦ 교통·물류의 적정화

이렇게 되면 시민 대다수가 도보·자전거·대중교통으로 통학·통근하는 도시로 바뀌고, 교통·물류량도 대폭 삭감될 것이다. 여기에 친환경 전기 수소차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삭감하고 무엇보다 에너지·시간 낭비를 줄이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다.

⑧ 도시·지방정부간 협력

이상의 자기 도시내에서 온실가스 삭감의 솔루션범과 동시에 지구환경 문제 특성상 국내외 도시간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는 이웃 농산어촌의 토지·물·사람을 뺏어오는 일을 멈춰야 한다. 도시는 콤팩트한 고밀도 도시를 지향하고, 오히려 인접 농산어촌의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자연재생에 협력하고, 식량·에너지의 구매를 통해 공생발전해야 한다. 둘째 국내의 ‘탄소중립 지자체 실천연대’ 등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교류 및 분권적 제도개선에 공동 노력한다. 셋째 국제적으로는 공동환경권에 속한 동북아시아를 필두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의 도시들과 국제공평성 및 세대간 공평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⑨ 환경용량에 맞게 도시규모의 재적정화

이번 코로나19로 거대 과밀도시는 감염병에 취약함을 알게 됐고, 나아가 장래의 기상재난 및 라이프라인 위기에도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도시팽창과 대규모화가 경쟁력이 아닌 오히려 부담과 약점이 될 수 있다. 과밀도 과소도 아닌 적소 규모의 도시가 바람직하다. 환경용량(Eco Capocity)에 맞는 도시 규모의 재적정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합하여 추진해 갈 때 2050년에는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탈바꿈될 것이다.

(3) 실천한다 : 시민·기업·행정의 지역의 힘과 지혜를 모은 추진시스템

한편 이러한 사업추진에는 막대한 인력·자금·기술·시설장비가 필요하다. 초기단계에는 정부주도의 마중물 사업으로 재정투자 및 유인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재정관계뿐 아니라, 사업기간 30년의 호흡이 긴 본격 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의 활력 즉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기업·행정 3부문의 지역력을 결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시민부문이 수요를 창출하고 금융부분이 투자하고 기업부분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행정부분은 이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지원형 행정시스템에 걸친 선순환 구조가 그것이다.

① 시민부문 : 가계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수요 창출

경제회복의 제1단계의 관건은 가계소비의 회복이다. 하지만 현재 집집마다 물건은 가득하고경제위기 속에 소득 감소, 실업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는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도 시민(가계)부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입주체(소비자로서 실수요 창출), 투자주체(예저금 출자), 근로주체(고용)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관건은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가계의 위기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이 도래하거나 라이프라인의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가정은 최저한 살아남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일하고 교육받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디지털 기기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그린 뉴딜사업으로 지원하는 가전제품 교체, 스마트 계량기, 그린리모델링, 태양광 설치, 전기 수소차 구매 등도 중요하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격차 시정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둘째는 최근 에너지협동조합, 자원순환 마을기업, 도시농업·도농직거래 사회적기업 등이 확산하고 있다. 마을·지역 단위에서 공동출자·공동근로·지역재투자 방식의 사회적경제 사업이다.

가계가 자기 가정의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상기 제품의 구매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출자하여 상응한 배당을 받고, 나아가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취업하는 3중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행동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대다수의 시민과 가정에서 함께 할 때, 수많은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투자와 산업을 촉발할 것이다.

② 금융기관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 투자처 발굴 및 투자

지속가능도시와 그린뉴딜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그 조달은 최대의 난관이다. 현재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자금을 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건전한 투자처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그린스완 보고서에서 보듯이 이미 국내외 많은 금융기관이 화석에너지 좌초자산에서 투자를 회수하여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뉴딜펀드가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금융 시스템을 해당 도시로 구체화하여 지역 소재 금융기관들이 새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 및 위험의 분산·보증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③ 기업부문 : 지역순환형 산업·일자리 창출

상기의 가계부문의 신수요, 금융부문의 신투자를 바탕으로 역내의 많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첫째 산업단지의 그린·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기존 제조공정의 생산시스템을 고도화 시킨다. 자원·에너지의 순환사용 및 스마트팩토리, 미세먼지 방지 숲 조성 등을 확산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산업, 디지털 비대면산업 등의 육성이다. 지속가능도시 재구축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산업(태양광발전·지열발전·바이오발전·풍력발전·수소연료전지·스마트그리드 기기), 자원순환·신소재산업, 도시농업산업, 자연재생산업(하천·도시숲 재생) 등의 환경산업. 그리고 건강의료·교육 등의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산업을 육성하여, 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에너지·식량 등의 자급률을 대폭적으로 올려, 역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역내에 재투자되는 지역순환형 경제 형성에 기여하면서, 도시의 안전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④ 행정부문 :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지원형 행정으로 전환

행정은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도시 재구축 계획 및 각종 기준, 유인책을 정비하여 현장의 가계·금융·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상호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먼저 뉴딜사업에서 제시하는 그린리모델링과 지능형정부처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공건물 및 차량, 장비시설 등의 그린·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조달의 확충을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인 판로 확대를 돕고 지역순환형 경제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경우 기존의 지역기업이 적은 베드타운의 특성상 새 지역토착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두가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해당 지자체 단독의 노력이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공공조달 목표를 세워,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동시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통해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다. 하지만 1개 자치구에 한정할 경우, 인구 50여만명에 지역기업의 업종·숫자도 한정되어 공공조달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둘째로 이웃한 4개구가 협력하여 180여만명의 공동시장과 4개구의 다양한 기업을 모아 규모 의 경제 이점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4구 사회적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북4구 사회 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개최하여 4개구 공공기관과 기업 담당자들의 현장상담 및 구매활동을 공동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웃 지자체간에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 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정선철·정진화,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라이프라인 정책 연구 -서울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호』 '2015.

佐々木一郎, 『21世紀の都市高度化戦略』, 『経済と貿易 174号』 '横浜市立大学 '1997.

佐々木一郎, 『統合沿岸域管理の枠組み設計－沿岸大都市の新たな発展方向』, 『横浜市立大学紀要9号』 '横 浜市立大学, 2002.

제러미 리프킨 저, 안진환 역, 『글로벌 그린뉴딜』, 민음사, 2020.

유발 하라리 저, 조현욱 역, 『사피엔스』, 김영사, 2019.

최재천 외,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관계부처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 '24) 발전계획』, 2020.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사)어반베이스캠프 정수경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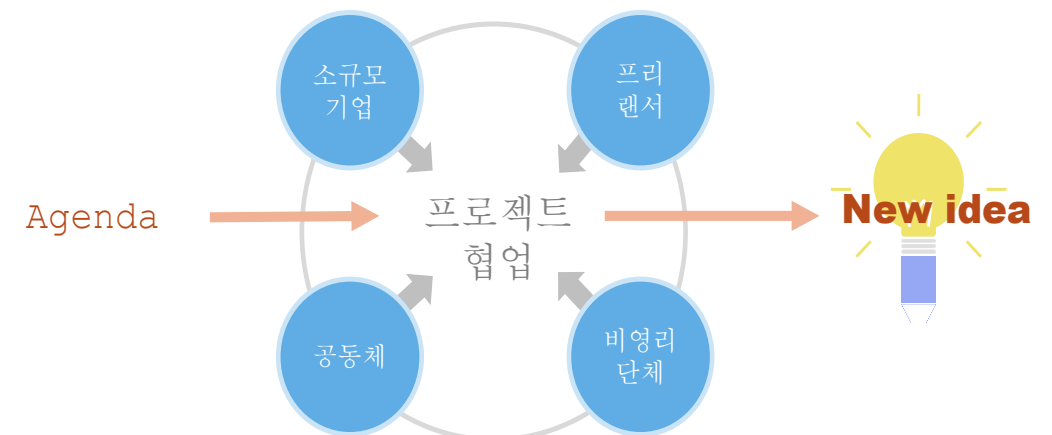
〈제안〉

〔사〕어반베이스캠프 대표이사 정수경

1. 제안의 배경

소규모 기업 등의 협업 증가

- 공익,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규모 기업, 프리랜서, 공동체 등의 증가
 - 각 단체나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관이 뚜렷함
-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역의 과제를 해결



1. 제안의 배경

But 수많은 소규모기업들이 3년 이내 폐업

- 협업의 기회는 한정
- 생계에 대한 불안감과 가치관의 상실로 창업에 대한 의욕 상실
-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 위축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규모기업과
어떻게 해야 함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3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신생 소규모기업의 생각

전주시에 없는 것은?

멘토나 선배님

- 보다 앞서 창업한 멘토나 선배님이 부재하여, 동일한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됨
- 공익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 없어, 동일한 문제 제기와 활동이 반복됨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행정절차 등을 문의할 수 없음

지역플랫폼의 부재

- 협업이나 사회적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 동료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
-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 보조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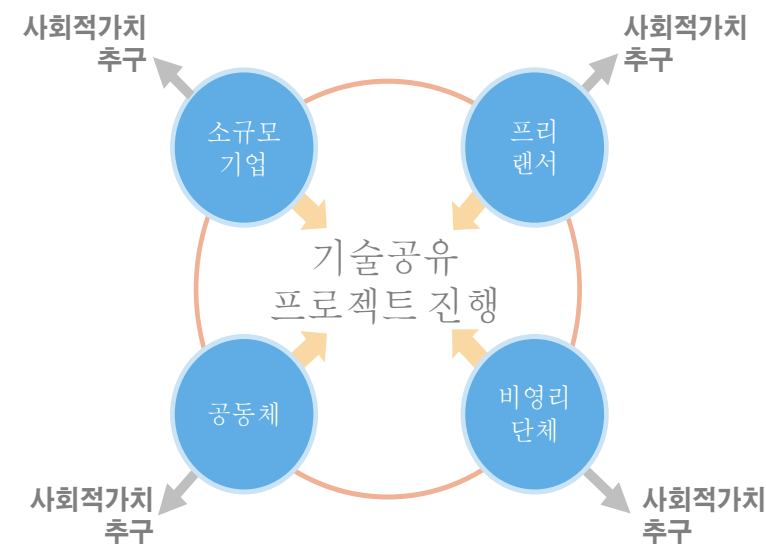
보조금에만 너무 의존, 다른 투자방식 필요

- 보조금 외에 임팩트 투자 방식 도입

5

1. 제안의 배경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규모기업과
어떻게 해야 함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4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신생 소규모기업의 생각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나 프로젝트

추구하는 가치관이 같은 기업

- 협업 제안자가 함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

역할이 명확히 있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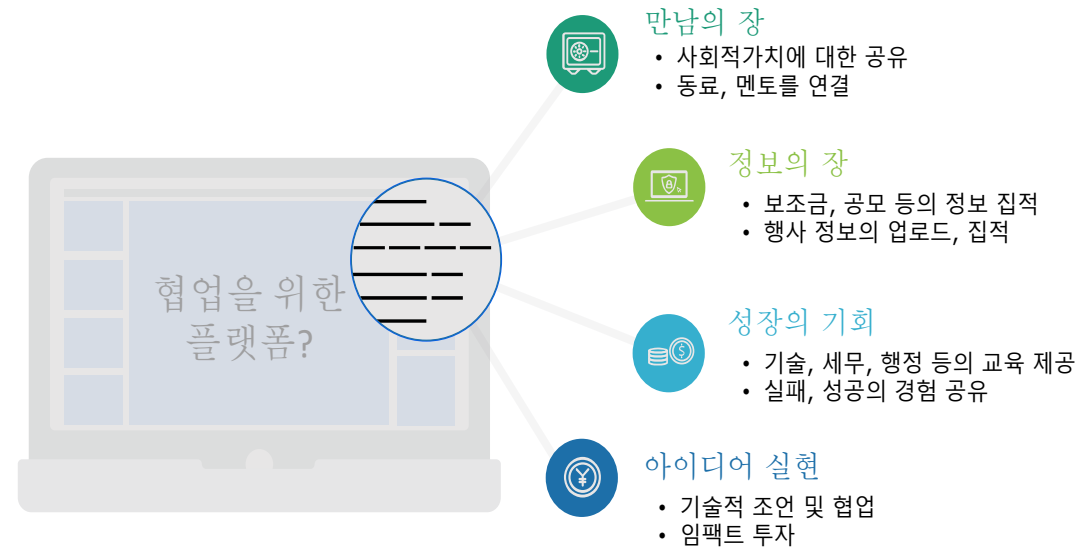
- 스스로가 할 일이 명확한 프로젝트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분할되는 프로젝트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배울 수 있는 기업

-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선배 기업
-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기업

6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신생 소규모기업의 생각



7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중간지원조직 및 공공기관의 생각

과제

전주시에는 사람이 없다

- 협업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이 적음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때까지 협업하였더라도 그 후의 해당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

행정간 칸막이가 없는 플랫폼 필요

- 각 부서에서 창업, 보조금, 공모 등의 정보를 업로드하지만 통합 플랫폼의 부재로 정보수집이 어려움
- 민간의 영역에서 플랫폼을 운영하여 각 부서, 중간지원조직, 민간을 연결해주는 것이 지역사회에 좀더 빠르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9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중간지원조직 및 공공기관의 생각

함께하고 싶은 단체 및 기업

신념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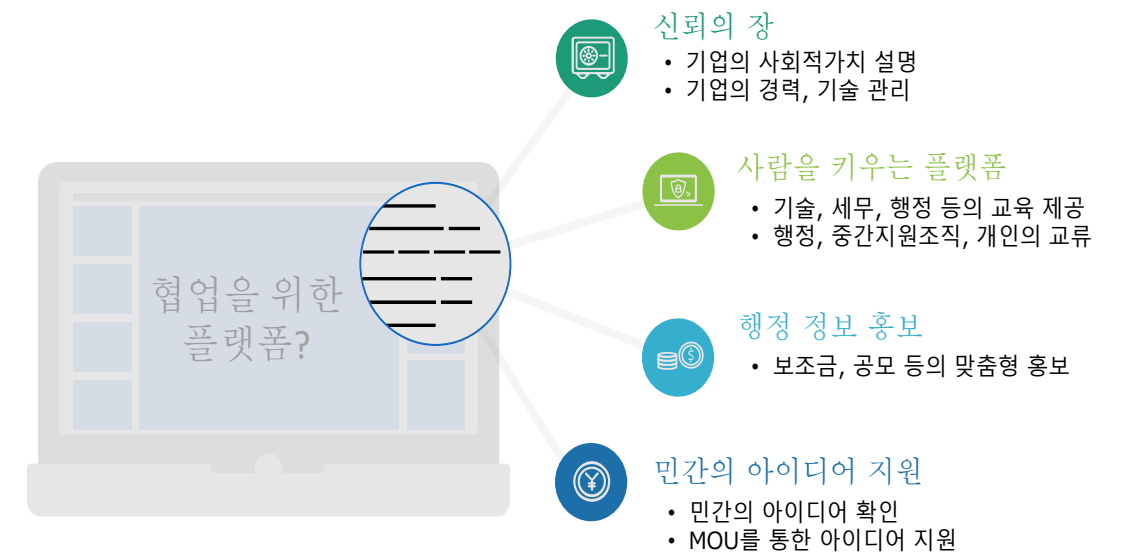
- 경험이 적더라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 기업
-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협업이 가능
- 가치관이 일치하는 단체 및 기업

신뢰를 주는 기업

-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
- 협업의 가치를 아는 기업
- 기술력을 가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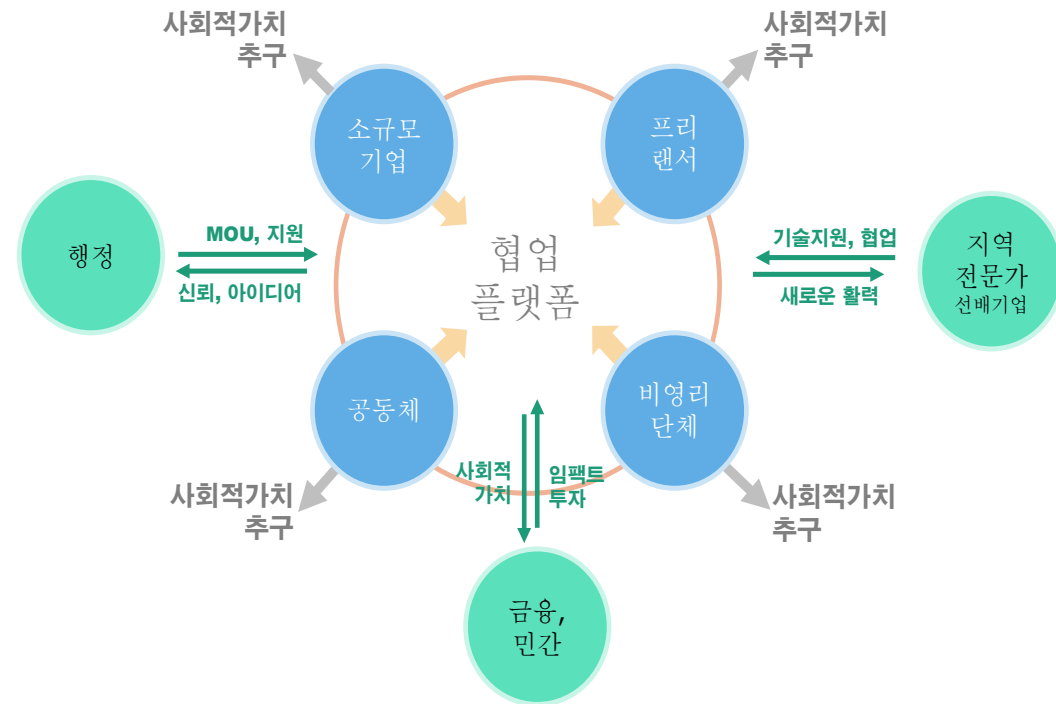
8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중간지원조직 및 공공기관의 생각



10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11

3. 어반베이스캠프

어반베이스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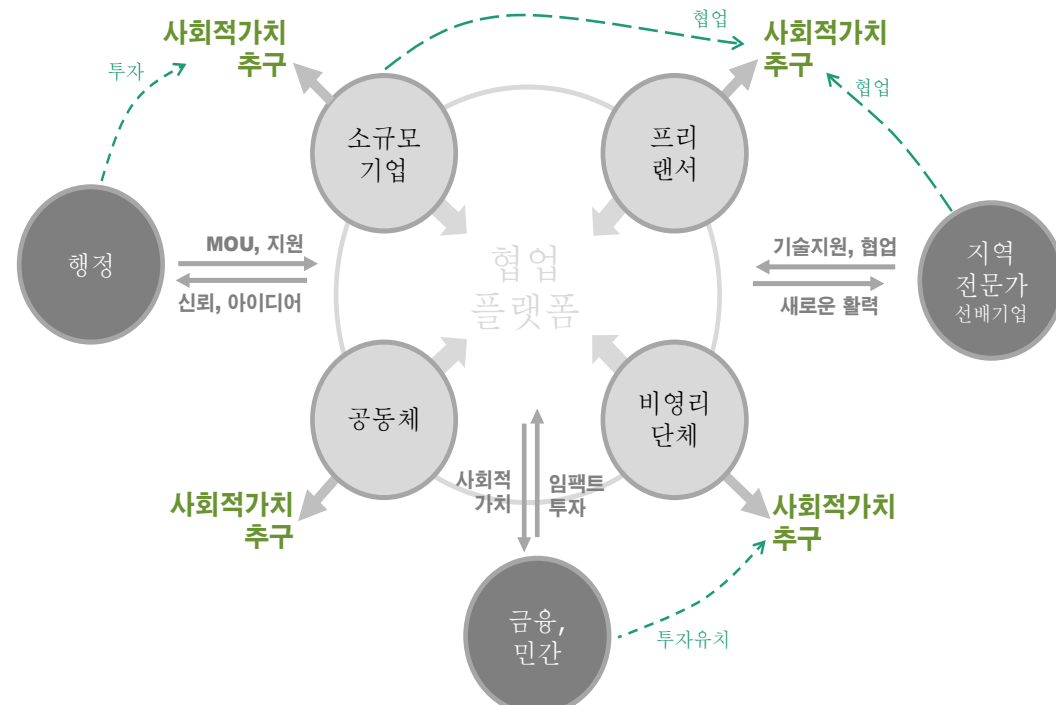
도시문제를 고민하는 소규모기업, 단체, 개인을 위한 공유사무실로 시작

1. 공유공간 조성 → 2. 사단법인 등록 → 3. 온라인 플랫폼 준비 중

- 지역의 소규모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플랫폼
 - 프로젝트 참여로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할 기회 제공
 - 아이디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관련이슈, 기술, 지식, 세무 등의 배움의 기회 제공
- 민관의 협업을 유도하는 플랫폼
 - 지역의 전문가, 대기업 등의 참여 유도
 - 행정, 중간지원조직과의 MOU
 - 상호간의 신뢰를 키워주는 플랫폼
- 누구나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플랫폼

13

2. 인터뷰를 통한 사업모델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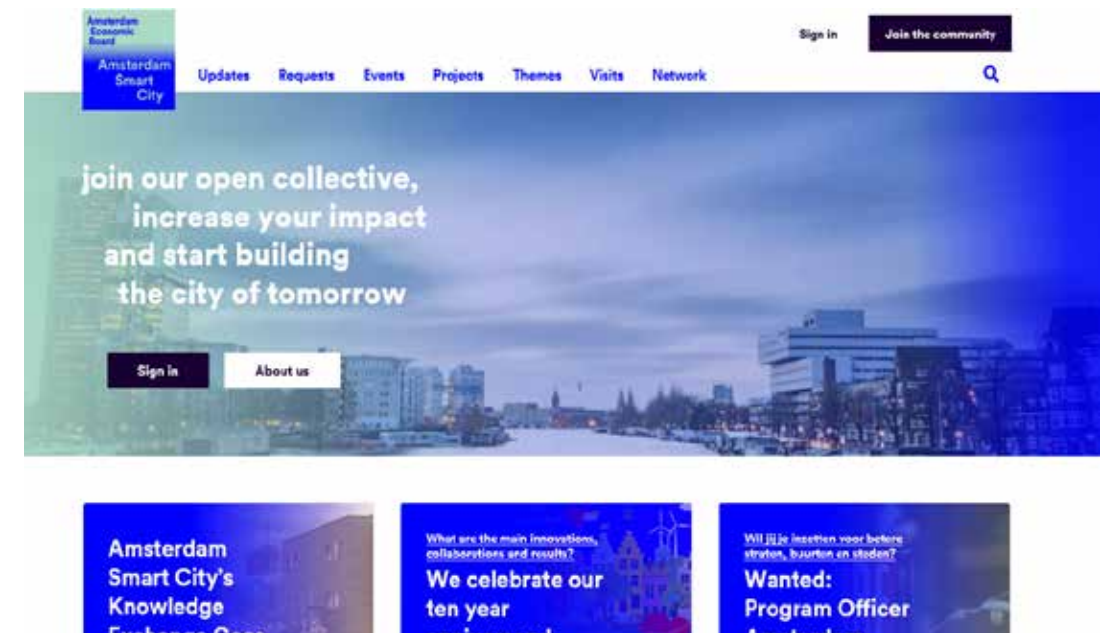


12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를 위한 소통형 플랫폼

-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사회혁신 프로젝트 연결
- 아이디어, 요청, 이벤트, 프로젝트, 네트워크 정보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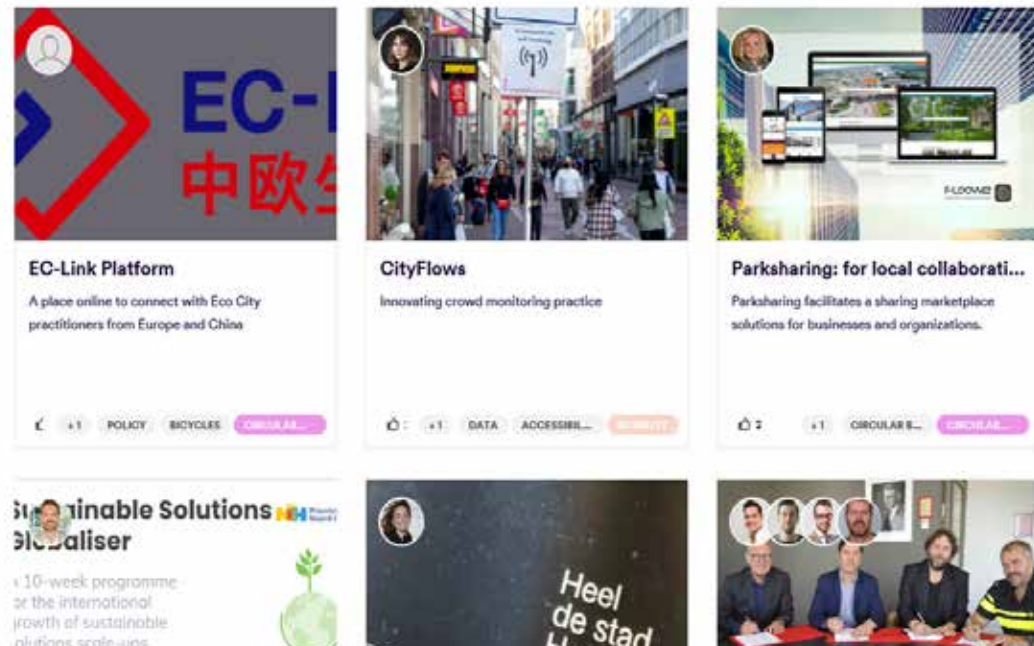


14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카테고리: project

기업, 개인 등의 아이디어에 협업하고 싶은 전문가, 시민이 신청해 프로젝트 그룹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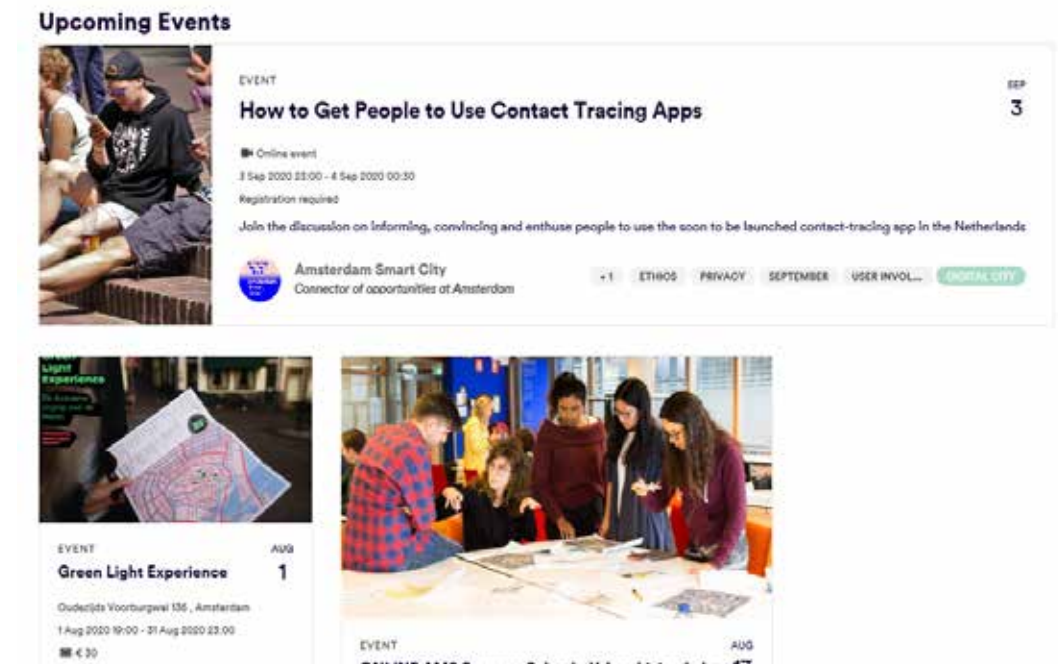


15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카테고리: event

모임의 주제가 스마트시티에 관련이 있다면 누구나 모임정보를 업로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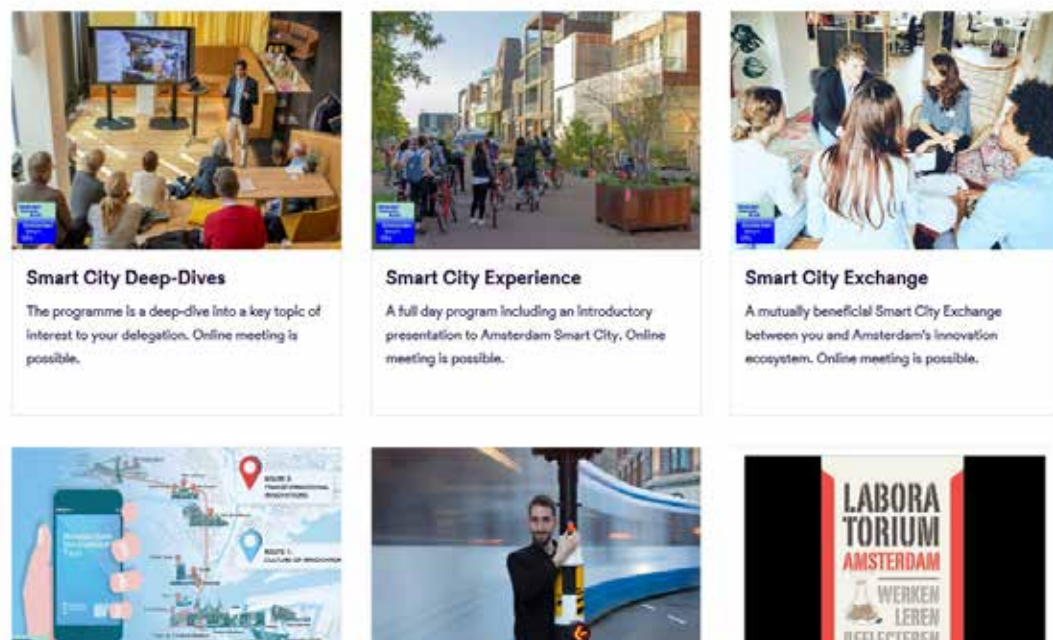


17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카테고리: visit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를 통해 성장한 프로그램, 기업의 소개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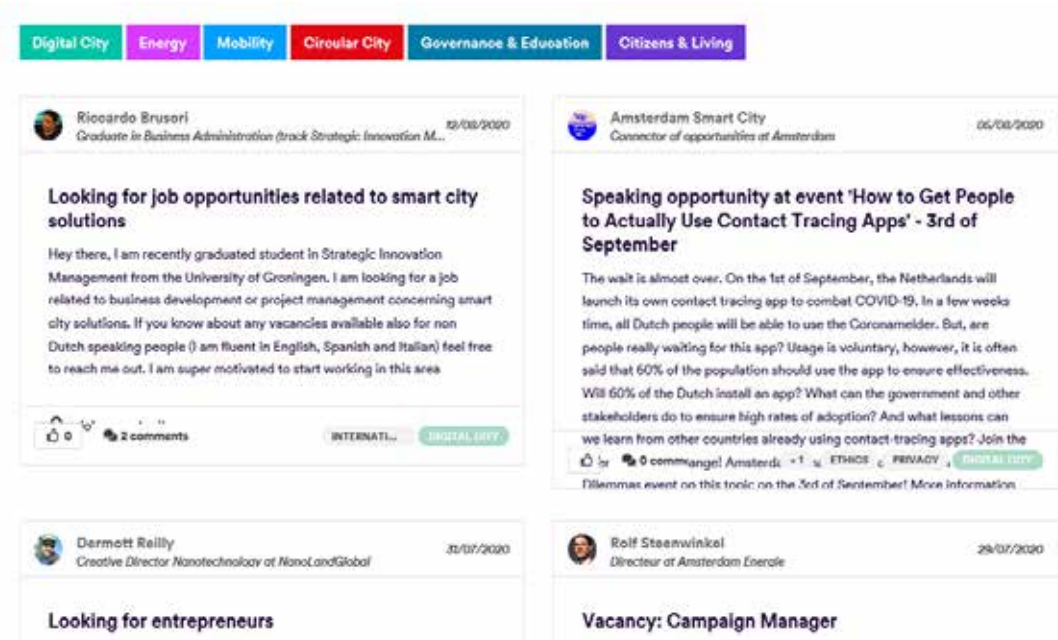


16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카테고리: request

스마트시티에 관한 설문조사, 간단한 질문 등을 SNS식으로 업로드



18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성과

다양한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진행으로 소규모 기업의 성장

- 플랫폼 회원 6,900명,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
- 90개의 파트너사가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시민 등과 함께하는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
- 소규모기업의 성장 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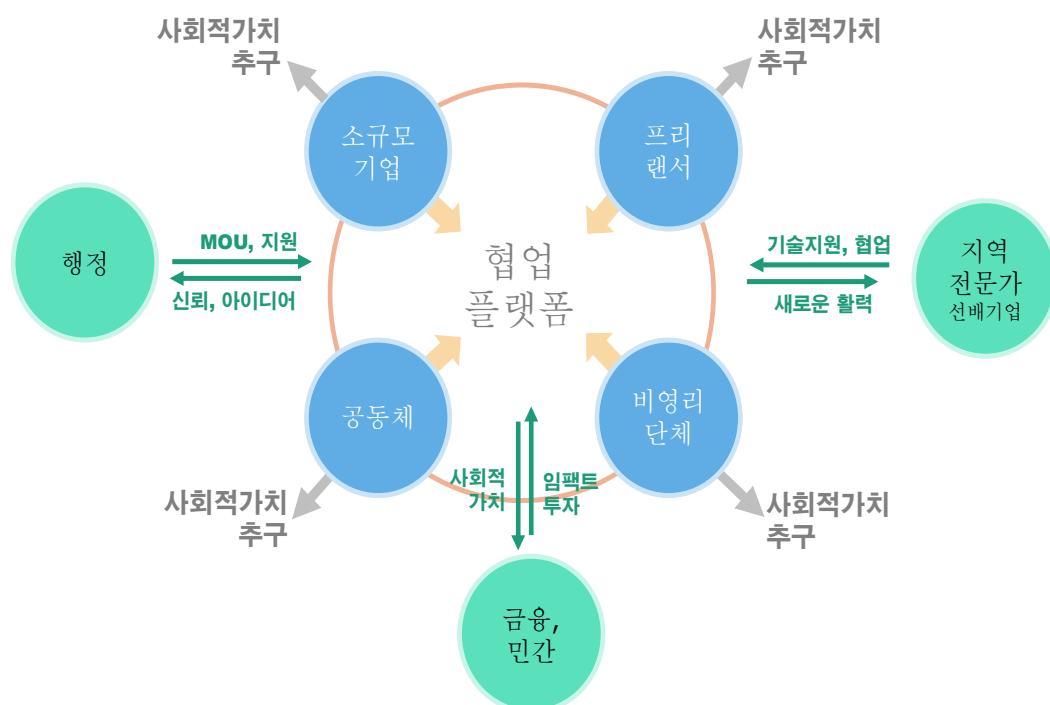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 및 가치 실현

- 가치 실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모임의 활성화
- 스마트시티에 관한 다양한 규모의 모임 개최로 관심 및 공론 활성화
-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시스템 구축
-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공유로 정책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의미를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19

5. 마치며



20

영국 프레스턴 모델의 교훈과 가능성

런던대학 문화경제학과 박사 김정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쇠퇴와 직면했다. 특히, 새로운 경제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도시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산업도시들은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혁명의 출발지인 영국의 경우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셰필드 등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이론적 담론과 실천적 대안이 등장했고, 영국을 넘어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했다. 적어도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쇠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외형적 도시의 발전과는 별개로 사회경제적 불균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시의 전반적인 쇠퇴는 극복되었지만 이것이 곧 대다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부의 편중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은 굳건히 남아있다. 그 결과 성공한 도시재생이 곧 시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과 직면했다.

인구 14만 명의 전형적인 소규모 산업도시인 프레스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프레스턴 또한 20세기에 유사한 조건의 주변 산업도시들이 직면한 쇠퇴와 동일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한 접근 방식은 달랐다. 단순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도시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시 말해, 성장 과정이 중요하고, 성장 과정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나아가 성장을 통해 발생한 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곧 시민들의 복지, 건강, 안전, 행복과 직결된다. 이것이 ‘프레스턴 모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과연 프레스턴 모델은 다른 도시에 접목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노력과 접근이 필요한가? 특히, 프레스턴 모델 성공의 핵심이 민관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본 발제를 통하여 프레스턴 모델이 전하는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재생 추진전략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윤 병 훈**

1. 최근 이슈

-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중심의 도시정책에 대한 고민 발생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펜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비접촉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면/접촉 관련 도시정책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도시성장은 인구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구가 집중/확대되면 도시가 성장한다는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는 인구집중이 이후에도 도시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될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 최근 현행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재생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도시재생 접근 필요성 확대
 - 지금까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어,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아카데미, 지역축제 등)의 제약이 발생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됨
-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시재생은 혁신(전면적)인지? 혹은 조정(소극적)인지?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예상되지만, 현행 도시재생 사업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야 함
 - 현재 전국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도시재생 분야 주요 의제(Agenda) 및 키워드

- 안전, 건강, 회복력, 로컬 거버넌스, 사회적거리, 언택트(비대면/비접촉), 빅데이터, 원격서비스(진료, 교육(에듀테크), 근무, 화상회의 등), 친환경, 일자리창출 등

2.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도시재생 방향과 실천전략

□ 위드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비전·목표

- (목표1) 언택트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
 - 언택트 기술의 본질은 안전·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므로, 도시재생형 언택트기술의 개념정립 및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 (목표2) 생태적 관점의 그린뉴딜 도시재생 실현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 미세먼지 문제 등의 대안으로서 생태적 관점에서 친환경 도시재생 적극적 추진
- (목표3)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포용·소통도시 실현
 - 감염병에 치명적이고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도시재생 비전·목표별 세부전략

(1) 언택트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활성화

- 도시재생은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비대면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S/W 도시재생 활성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① 온라인 도시재생 아카데미 :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교육프로그램을 광역·기초 단위 센터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현장지원센터의 교육부문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 ② 온라인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축제가 전면 금지되면서 지역의 영세한 문화예술인의 생계가 어려워짐.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통해 영세한 문화예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줄 수 있음
- ③ 거리두기 마을여행 투어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산을 소개하는 마을여행 프로그램 진행시 무선마이크와 개인이어폰을 활용하여, 거리두기를 고려한 마을여행 프로그램 진행. 지역상권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 병행 실시
- ④ 온라인 프리마켓 운영 : 지역의 영세한 사회적기업, 수공예작가 등의 작품과 재래시장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판매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수익금은 추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⑤ 공유오피스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음. 지역내 방역관리 규정(소독, 공기의 질 등 고려)을 준수하는 공유오피스(화상회의의 서비스 제공)를 운영하여, 일하는 패턴변화에 대응토록 함 » 도시재생 앵커시설에 도입

(2) 생태적 관점의 그린뉴딜 도시재생 구현

- 미세먼지 문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적 관점에서 실내·외 유희공간을 그린뉴딜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축 적극적 도입
- ① 도시내 실내·외 유희공간 활용형 도시농업 : 실내·외 유희공간을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빛물활용시스템 구축)
 - 실내 유희공간 활용 도시농업(예) : 수경재배, 지하 유희공간 버섯재배 등
 - 실외 유희공간 활용 도시농업(예) : 텃밭정원, 옥상 파이프팜 및 녹색커튼 활용

- ② 친환경 농작물 공공급식센터 운영 : 친환경 먹거리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휴공간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지역내 취약계층 우선 검토).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으로 적극적 추진. (한살림협동조합 사례 검토 필요)
- ③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도입 : 탄소에너지를 저감하기 위해 고효율의 제로에너지 주택을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기존주택 리모델링, 주택신축(도입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우 적극적 도입(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사례 검토)

- (3)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포용·소통도시 실현 : 로컬 거버넌스 적극적 활용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대될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차원의 접근 필요
 - ① e-Health 커뮤니티 공간 운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조성되는 앵커시설에 지역 보건서와 연계하여 헬스관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이 이상 징후 발생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구축된 빅데이터는 추후 감염병 관련 연구 및 정책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운영
 - ② 온라인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저학년)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청시, 지역내 기초의료지원 전문가(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사회복지센터 연계, 50+세대의 신규일자리 활용)가 파견되어 지역내 보건소, 의원·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③ 에듀테크 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등교를 대체하기 위하여 가정내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으나 조부모 양육/한부모 가정 어린이 등은 진행시 어려움 발생. 도시재생 앵커시설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추후 지역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야학 진행가능 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운영

「소규모기업의 자립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전주대 연구교수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 **허문경**

□ 논의배경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복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의 생존안보와 지역일자리’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 2016년 전주시민 대상 행복도 조사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으며, 코로나19에 의해 일자리와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스턴 모델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스턴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프레스턴 모델은 사회적 금융, 지역의 먹거리 순환체계 등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본 세션에서는 공공조달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다. 프레스턴의 경우, 주요 기관의 공공조달 지출액 가운데 5%를 지역 내 기업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관행을 개선한 결과, 4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18.2%로 증가했고, 시의회의 경우는 14%에서 30%로 증가했다. 실업률은 2014년 6.5%에서 2017년 3.1%로 영국평균(4.6%)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주는 공공조달의 현황에 대한 유효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선진사례를 통해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얻으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레스톤에서는 식품협동조합, 디지털혁신전문재단 등의 성공사례가 제시되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공공조달의 공급업체가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훈련하고 고용을 늘리고, 행정은 제3섹터 및 지역사회 부문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조달체계를 개발했다.

□ 전주의 개선방안 : 소규모기업의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교류하고, 공공조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적하여 공유하고, 학습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여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언 및 협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이외의 임팩트 투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 공공조달 관련 국내동향

(1) 상생협력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완성품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업체도 공공조달에 참여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상생협력 멘토제도’가 올해 4월부터 도입되어 혁신성장형, 역량강화형, 수입대체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혁신성장형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고, 역량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계약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에게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멘토링하는 방식으로 2020년 이후 전체 공공조달시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조달시장 수혜기업의

확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소규모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사회적 책임조달 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의 조달제도에서 적격심사 기준은 경영상태, 입찰가격, 품질관리 등 이 고려되는데, 특히 낙찰자 결정방법은 낙찰하한율(87.995%)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의 사회적 책임 장려항목을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구매가치 극대화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한 제도개선안(‘종합심사낙찰제도’)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는 조달구매액 중 중소기업(전체의 50%, 기술개발제품의 10%)과 여성기업(전체의 3~5%)등에 대해 의무화한 ‘구매비율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해외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협업을 위한 플랫폼

프랑스의 CAE는 노동, 고용, 사업을 융합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로서 프랑스 내 100개의 CAE에서 총 6,000명의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400명의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다. CAE는 사업개발자(창업계획지원 계약으로서 매출발생 전 단계)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으로서 이를 이용하면 예비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준비 또는 매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창업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조합원의 가입기준으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필요한 업종,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서종식 외, 2015).

□ 소규모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 촉구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시장(2018년 기준 123.4조원)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6.2%(94조원)이며, 발제에서 다른 유형인 소규모 용역은 15조원 시장에 해당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에 대한 전자입찰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의 업무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각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소규모기업이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는 단서규정이 있어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일 기준 5년까지의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우대기준(30점)이 마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서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에 대한 1점의 가산점이 부과되는 정도이다.

공공조달에 협업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창업초기기업은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지만 이러한 기회는 제한적이다.

소규모기업의 상당수가 창업초기에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거나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행정지원이 종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사업모델별 정보공유와 학습체계가 구축되고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겠다.

현재는 주로 개별기업의 설립 전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나, 발제에서 제안된 플랫폼이 마련되고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규모기업, 프리랜서, 공동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제6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지역화